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 100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 서울 AI 허브 소개

---

서울 AI 허브 센터장 인터뷰  
서울 AI 허브 소개



**“서울 AI 허브, 개방형 혁신 ‘용광로’  
서울, ‘글로벌 AI 테크 시티’로 우뚝 설 것”**

서울 AI 허브  
박찬진 센터장



“서울 AI 허브는 2017년 12월 개관 이래 지난 8년간 400여 개의 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해 온 ‘국내 최대의 공공 AI 기술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다”

박찬진 서울 AI 허브 센터장은 서울 AI 허브가 국내 스타트업, 특히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교(架橋)’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AI 허브의 역할은 시기에 따라 진화해왔다. 초기에는 스타트업 발굴과 입주 공간 제공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산업과 AI를 연결하는 실행(Execution) 플랫폼’이자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기업을 모아두는 집적지를 넘어 서울대, 카이스트, ETRI 등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연구거점 및 공공 AI 신기술 융합센터와 같은 국가 전략 기관들을 유치해 실질적인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를 완성했다”며 “2030년까지 양재를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서울 AI 테크 시티’로 완성하는 것이 서울 AI 허브의 궁극적인 미션”이라고 말했다.



**지원 기업 폭발적 성장에 자부심 ↑ “허브, 글로벌 수준 기업 길러내는 산실”**

박 센터장은 “서울 AI 허브는 허브가 지원한 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현재까지 입주 및 졸업 기업, 멤버십 기업을 포함해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했고 이들의 누적 기업 가치는 2025년 7월 기준 1.5조원에 달한다. 또 누적 투자 유치액은 4000억원을 돌파했으며 5500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질적인 면에서도 ‘클라우드웍스’의 IPO 성공, ‘아키스케치’와 ‘딥인스펙션’의 프리(Pre)-IPO 단계 진입 등 유니콘을 향한 실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기술력의 척도라 할 수 있는 CES 혁신상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 특히 2026년에는 네이션에이, 스튜디오랩 등이 최고혁신상을 포함해 7개사가 9개의 상을 휩쓰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는 허브가 단순한 인큐베이팅을 넘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기업을 길러내는 산실임을 입증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AI 통해 생산성 ↑ 비용 ↓ ‘성공 방정식’ 만드는 것이 목표”**

박 센터장은 ‘산업의 AI 전환(AI)’을 강조한다. 특히 2026년엔 AX가 산업에 확실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그는 2026년 AX의 핵심으로 ‘실행(Execution)’과 ‘구조적 전환’으로 꼽았다. 지금까지의 AX가 AI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PoC(개념 증명)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허브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SMEs)을 위해 ‘서울 산업 AI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수요기업의 AI 전환을 돕는 동시에 기술 공급자인 허브의 스타트업에게는 확실한 성공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다. AI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성공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AI 시대 경쟁력, ‘프로세스 혁신’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박 센터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이 ‘프로세스 혁신’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단순히 챗봇을 도입해 고객 응대를 자동화하는 수준(Assistant)을 넘어서야 한다. 최근 등장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나 ‘바이브 코딩(Vibe Coding)’ 같은 기술 흐름은 시가 업무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주체적인 실행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피지컬 AI 핵심기술 스타트업 육성 트랙’ 신설 관련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박 센터장은 또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승부처로 ‘피지컬 AI(Physical AI)’를 꼽았다.

그는 “피지컬 AI는 시가 로봇이나 설비와 결합해 물리적 세계를 인지하고 제어하는 기술이다. 제조와 하드웨어 강국인 대한민국에 가장 유리한 분야다.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이다. 인근의 수서 로봇 클러스터가 하드웨어와 실증 공간 중심이라면 서울 AI 허브는 그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AI 허브는 2026년 과제로 ‘피지컬 AI 핵심기술 스타트업 육성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CCTV나 로봇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멀티모달 인지 AI’, 복잡한 상황에서 최적의 경로와 작업을 결정하는 ‘판단/제어 AI’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이를 위해 허브는 한국AI로봇산업협회와 함께 3년째 ‘AI+로봇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며 산업체의 로봇 엔지니어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다”고 했다.

## 양질의 데이터를 가공·학습시킬 수 있도록 고성능 GPU 인프라 지원

박 센터장은 피지컬 AI와 함께 ‘데이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서 말하는 데이터는 인터넷에 떠도는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산업 현장의 기계가 뿜어내는 센서 데이터, 숙련공의 작업 노하우 같은 ‘암묵지(暗黙知: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體化)돼 있지만 말이나 글 등의 형식을 갖춰 표현할 수 없는 지식)”라며 “이것을 시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 즉 온톨로지(Ontology)나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야 하고 서울 AI 허브는 기업들이 가진 양질의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고성능 GPU 인프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이 데이터를 무기 삼아 AX 전환을 이끌고 도메인 특화 모델 등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허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글로벌 파트너 협력 확대, ‘국경 없는 AI 생태계’ 조성

박 센터장은 서울 AI 허브의 글로벌 협력 성과도 자랑했다.

그는 지난 3년간 MOU를 통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시기였다면 2026년엔 ‘작동하는 협력 구조(Working Structure)’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AI 연구소인 캐나다의 MILA 연구소와는 3년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14개 허브 기업을 파견해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앞으로는 뉴욕, 파리, 상하이 등 주요 AI 도시들과의 연대를 강화해 스타트업들이 세계 기술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경 없는 AI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센터장은 “서울 AI 허브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옹광로가 되고자 한다. 연구자에게는 도전적인 연구 주제를, 스타트업에게는 성장과 투자의 기회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는 혁신의 솔루션을,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시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2027년, 그리고 2030년까지 서울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AI 5대 도시’이자 ‘AI 테크 시티’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서울 AI 허브가 가장 앞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BUSINESS MILESTONE

- 202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 공학연구원)  
-ETRI 컨소시엄 운영기관(민간 위탁)
- 2025** 서울 AI 7대 비전(AI Seoul 2025) 선포  
강남데이터센터 신규 공간(2,280㎡) 조성
- 2024** 서울 AI 허브 핵심 메인센터 개관  
(2021.5. 착공~2024.1. 완공)
- 202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 AI 연구원)  
-ETRI 컨소시엄 신규 운영기관(민간 위탁)
- 2021** 육성·지원 AI 기업 누적 매출액 및 투자유치액  
각 2,000억원 초과 달성
- 2020**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 ETRI 컨소시엄 운영기관  
(민간 위탁)
- 2019** 허브 AI 기업 지원 공간 추가 조성
- 2017** KAIST 산학협력단(주)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  
최초 운영기관(민간 위탁)

KEY ACHIEVEMENT

**410+** 개사 AI 기업 육성·지원

**4,851** 억원 매출

**3,946** 억원 투자 유치

**5,369** 명 인재 양성

약 **1.5** 조원 기업 가치

\* 2025년 하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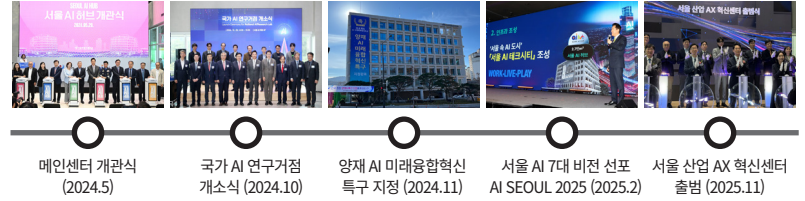
VISION & ROLES

서울 AI 허브

서울시가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 기술·스타트업 지원 기관

2017년 개관 이후 400개+ AI 스타트업 육성·100개+ 스타트업 입주 지원

2030년까지 AI 테크 시티로 확장해 양재를 대한민국 AI 산업의 중심이자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서울형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CORE BUSINESS

기술 지원

기술 혁신·글로벌 협업 체계 구축

- AI Seoul Fellow
- 글로벌 공동연구 협력
- AI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 서울 AI 허브 AI 전환(AI) 지원
- AI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를 구축 지원
- 카이스트 AI대학원 연계 산학협력 공동연구

운영 지원

스타트업 성장·인적 네트워크 지원

-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 서울 AI 허브 기업 네트워킹
- 글로벌 인재 채용

투자 연계

민간 투자 촉진·기술 사업화 매칭·글로벌 진출

- AI 스타트업 투자 연계 지원
- 전략 산업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인재 양성

산·학·연 생태계 활성화

- AI+X 교육
- AI 콘퍼런스
- AI 코어 핵심인재 육성 지원사업
- AI 반도체 설계 실무 역량 강화 과정
- AI 반도체 설계 전문 엔지니어 양성 과정
- 카이스트 AI대학원 연계 최고급 인재양성 과정



##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 입주기업

네이션에이	생성 AI 기반 3D 콘텐츠 제작 도구, AI·3D 인터랙티브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
에임퓨처	AI 처리 특화 NPU HW·SW 개발 환경, 스마트다잉·스마트병동 솔루션 제공
피아스페이스	VLM 기반 멀티모달 AI CCTV 분석 솔루션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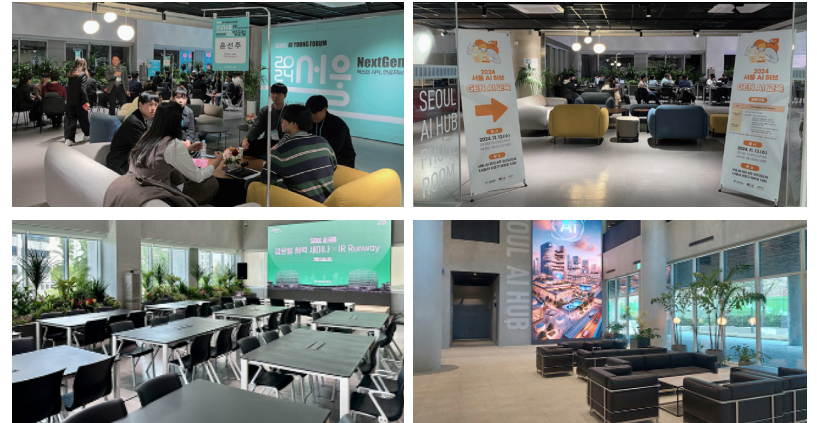
## 서울 AI 허브 하이브랜드 입주기업

넷록스	깃합 상 공개 소프트웨어 및 기술 지원 서비스
레졸루션	비전 AI 기반 PCB-A 검사 자동화 솔루션 서비스
마고	AI 기반 대화분석 솔루션 및 서비스
별따러가자	실시간 모빌리티 사고·도난 알림서비스 및 AI 위험도 분석 서비스
에어로로보틱스이노베이션	3D 시맨틱 기반 비주얼 내비게이션 AI 시스템 서비스
에이브노틱스	해양 상항 인식 플랫폼 서비스
웨스트문	합성데이터 생성 솔루션, AI 도입·활용 원스톱 서비스
콘티고	인사전략 의사결정 지원 에이전트 서비스
큐빅	합성데이터 생성 솔루션, AI 에이전트 기반 데이터 협업 플랫폼, 생성형 AI 보안 게이트웨이 솔루션 제공
크로프트 농업회사법인	AI 기반 온실 관리 솔루션 서비스
클레버러스	엣지 디바이스 기반 AI 이상행동 모니터링 솔루션 서비스
틸다	AI 기반 태양광·ESS·DR 운전 실시간 최적화 플랫폼 서비스
파이미디어랩	마커·센서없이 객체 영상촬영으로 위치 측위 가능 알고리즘, 고성능 PTZ 온디바이스 카메라, 작업장 위험 모니터링 솔루션 등 제공
펄럼테크놀로지스	AI 상세페이지 자동 제작 솔루션 제공
펫페오트	비디오 AI 기반 반려동물 행동 분석 솔루션 제공 AI CCTV 서비스

## 서울 AI 허브 한국교총 입주기업

넥스툼	LLM 기반 AI 데이터 비서 서비스
더대시	AI 기반 노지 농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제공
디자인드에이아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온디바이스 비전 AI 최적화 솔루션 제공
모닛	요양시설용 기저귀 케어 시스템 서비스
모빅랩	초음파·무선 진동·제조 데이터 AI 진단 서비스
보다비	세일즈 대화 분석 스코어링 AI 솔루션 제공
아트젠스페이스	AI 독서 플랫폼 서비스
에이뉴트	데이터 관리 솔루션·AI 활용 고품질 데이터 구축 서비스
온잇코리아	이사·운송 서비스
인절미	답러닝 예측 기반 게임형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
일만백만	비디오 생성형 AI 서비스
테이아	브랜드 퍼포먼스 OS 및 지능형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제공
파이프트리	답러닝 기반 가금류 질병예찰 및 평체 예측 시스템 서비스
플라스크	웹 기반 AI 게임 제작·운영 플랫폼, 브라우저 IDE에서 게임 제작·배포 서비스

\* 2025년 하반기 기준



## 서울 AI 허브 희경빌딩 입주기업

게이머리퍼블릭	실시간 개인 맞춤형 게임 코칭 AI 서비스
그레이비랩	AI 컬처 진단 기반 HR 서비스, 생성AI 기반 취업코칭 서비스
누리에이아이	AI 에이전트 내장 파일 공유 솔루션, 질문 즉시 답변 AI 서비스
더블유닷에이아이	인공유방 보형물 안전진단 AI 솔루션 제공
데이터비	번역·영문 교정·패러프레이즈 기능 제공 SaaS 서비스
델토이드	AI 기반 환자 여정 관리 솔루션 제공
드로미	도로 위 포트홀 크랙 탐지 및 관리 솔루션, 수자원 오염원 통합관리 시스템 제공
디어젠	AI 신약개발 플랫폼 서비스
디엑스알	제조 공정 자동화 솔루션 제공
랜식	AI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 서비스
루덴시티	올인원 참여형 광고 서비스
리틀캣	AI 헬스케어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제공
마이공사	AI·3D기술 결합 공간 스타일링 AI 서비스
매크로엑트	강화학습 기반 적응형 로봇 솔루션 서비스
바이브에이아이	AI 빅데이터 기반 도시 경쟁력 분석 AI 에이전트 SaaS
바이브존	K팝 이미지 아카이빙 앱 서비스, 아트·서브컬처 모델 콘텐츠 구독 서비스
브이다임	AI 아바타 생성 솔루션, 폴 모션 트래킹 솔루션, 버추얼 스테이지 AI 솔루션, AI NPC 서비스
비드레프트	AGI 공동·AI 서비스 자동 생성 AI·피지컬 AI 로봇 플랫폼 제공
스웨번즈	인터포저 신호선 구조 및 배치 최적화 소프트웨어 서비스
스튜디오랩	상세페이지 자동 생성 SaaS 솔루션 제공
스튜디오프리월루전	AI 영상 생성 솔루션, AI 콘텐츠 전문 플랫폼 서비스

## 서울 AI 허브 희경빌딩 입주기업

스트럭텀	스토리 기반 멀티에이전트 플랫폼 제공
쓰리알이노베이션	스마트기기 센서 데이터 활용 주의력·정신건강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시티아이랩	도로교통정보수집·신호최적화·화재전조증상맞춤형 솔루션 제공
에스앤이컴퍼니	빅데이터·AI 기반 농산물 생육·작황·가격 진단 및 예측 시스템 제공
에이아이구루	제조 AI 특화 솔루션 서비스
에이아이링크	법률 번역 AI 솔루션 서비스
에이아이스타	웹 기반 신소재 탐색 솔루션, AI 기반 3차원 단백질 구조 예측 제공
오노마에이아이	AI 웹툰 제작 올인원 솔루션,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플랫폼 제공
온더플라이	엔터프라이즈 AI SaaS·온프레미스 솔루션·맞춤형 AI 서비스
완드	AI 특허 통합 플랫폼 서비스
워프스페이스	AI 컴패니언 서비스
이어가다	오디오·숏폼 콘텐츠 AI 멀티에이전트 기반 자동화 SaaS
주피터랩스	AI 기반 패션 공급망 솔루션, 해외 특송 솔루션 제공
카이어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MLOps 솔루션 제공
툰스케어	생성형 AI 기반 전문 콘텐츠 제작 플랫폼, 교육용 생성형 AI 플랫폼 제공
튜닝	멀티 페르소나 기반 AI SNS 서비스, AI 가드레일 솔루션 서비스
팀에브리웨어	제조업 현장 관리 AI 기반 SaaS 솔루션 제공
퍼스널에이아이	온디바이스 기반 데이터 거래 플랫폼 서비스
평행공간	3D 복원 자동화 솔루션, 하자점검·AS 솔루션, 실시간 IoT 데이터 뷰어 제작 서비스
프리베노티스	상하부 내시경 암 및 고위험전암질환 진단보조·소화기암 고위험군 환자중심 AI 추적 관리 솔루션 제공
피노랩	생수 데이터·물맛평가·수질평가·워터 콘텐츠 제공 서비스

\* 2025년 하반기 기준



# TABLE OF CONTENTS



- 18 **AI+교육**  
게이머리퍼블릭(GAMER REPUBLIC)  
그레이비랩(Gravy lab)  
데이터비(Data B)  
마고(MAGO)  
툰스퀘어(Toonsquare)
- 30 **AI+금융**  
보다비(VODABI)
- 34 **AI+농업·푸드테크**  
더대시(The DASH)  
에스앤이컴퍼니(SnE Company)  
크로프트 농업회사법인(Croft)  
파이프트리(Paiptree)  
피노랩(Pinot Lab)
- 46 **AI+리테일·커머스**  
루덴시티(Ludencity)  
스튜디오랩(STUDIO LAB)  
주피터랩스(JUPITER LABS)  
펄크럼테크놀로지스(Fulcrum Technologies)
- 56 **AI+모빌리티**  
드로미(DroMii)  
바이브에이아이(VibeAI)  
별따러가자(Star Pickers)  
시티아이랩(CITYEYELAB)  
에이브노틱스(AiVeNautics)  
온잇코리아(Onitkorea)



- 70 **AI+미디어 콘텐츠**  
네이션에이(NationA)  
누리에에이아이(NURIE AI)  
마이공사(MYGONGSA)  
바이브존(Vibezone)  
브이디임(Vdigm)  
스튜디오프리윌루션(STUDIO FREEWILLUSION)  
스트럭텀(Structum)  
오노마에이아이(Onoma AI)  
워프스페이스(Warp Space Inc)  
이어가다(Eargada)  
일만백만(10km.ai)  
테이아(Theia)  
튜닙(TUNIB)  
플라스크(PLASK)
- 100 **AI+보안**  
넷록스(Netlox)  
퍼스널에이아이(Personal AI)  
피아스페이스(PIASPACE)
- 108 **AI+제조**  
넥스톨(Nextorm)  
디엑스알(DXR)  
레졸루션(Resolution)  
매크로액트(Macroact)  
모빅랩(MOVIC Lab)  
스웨벤즈(Swevenz)  
아티젠스페이스(ArtygenSpace)  
에어로로보틱스이노베이션(Aero Robotics Innovations, ARI)  
에이뉴트(AiNEWT)  
에이아이구루(AI Guru)  
에이아이스타(AI Star)  
에임퓨처(AiM Future)  
임팩티브AI(Impactive AI)  
카이어(Kaier)  
틸다(Tilda)  
팀에브리웨어(Team-EveryWhere)  
파이미디어랩(Paimedialab)  
평행공간(Parallel Space)



- 146 **AI+헬스케어**  
더블유닷에이아이(W.AI)  
델토이드(DELTOID)  
디어젠(Deargen)  
랜식(Lansik)  
리틀캣(The Little Cat)  
리티브(LITV)  
모닛(MONIT)  
비드래프트(VIDRAFT)  
쓰리알이노베이션(3R Innovation)  
에이비스(AVIS)  
웨스트문(Westmoon)  
인절미(Injewelme)  
큐빅(CUBIG)  
클레버러스(CLEVERUS)  
펫페오텍(Petpeotalk)  
프리베노틱스(Prevenotics)
- 180 **AI+기타**  
디자인드에이아이(DesignedAI)  
에이아이링고(AiLingGo)  
온더플라이(OnTheFly Inc.)  
완드(WAND)  
콘티고(Contigo)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5-26

## AI + 교육

게이머리퍼블릭(GAMER REPUBLIC)  
그레이비랩(Gravy lab)  
데이터버(Data B)  
마고(MAGO)  
툰스퀘어(Toonsquare)

## 게이머리퍼블릭, 실시간 AI 코칭으로 게이머 역량 강화

게이머리퍼블릭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인기를 구사한 AI 음성 코칭 플랫폼 'STATUP.GG'을 다른 게임으로도 확장하며 본격적인 게임 플레이어 학습 지원에 나섰다.

### AI 코치 'STATUP.GG', 실시간 피드백으로 게임 실력 향상 돕는다

게이머리퍼블릭의 'STATUP.GG'는 게임 플레이어의 상황에 맞춰 실시간으로 게임을 코칭해 주는 AI 기반 음성 코칭 플랫폼이다.

실시간으로 게임플레이를 분석해 사용자의 경험과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한다.

레인 컨트롤, 맵 인지, 팀 의사결정에 대한 실용적인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사용자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코칭도 원하는 정도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4가지 코칭 모드로 구성돼 가벼운 조언부터 로테이션 및 매크로 플레이에 대한 전술 조언까지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러한 맞춤 코칭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게이머리퍼블릭의



기업명	게이머리퍼블릭(GAMER REPUBLIC)
대표자명	류지원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STATUP.GG
사업분야	· AI+교육 · AI+리테일·커머스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개발·운영 기술: AI 경량화·최적화, 오픈·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추천 시스템, 예측·분석 모델링

AI 기술력이다. 비전인식 AI, AI 학습용 가상 데이터 생성, 멀티소스 다변수 빅데이터 분석, 게임 상황 분석 AI, 개인 맞춤 솔루션 제공 AI 등 다양한 기술을 결합해 개인별 플레이 상황에 최적화된 분석과 피드백을 지원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STATUP.GG를 이용한 사용자들의 평균 승률은 약 7%포인트 상승했다. 데이터 기반 코칭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과 훈련을 경험하며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이머리퍼블릭은 6조원 규모의 전세계 게임 코칭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부분 사람에 의한 1:1 코칭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높은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 게이머리퍼블릭,

#### LoL 시작으로 글로벌 게임 서비스 확장

게이머리퍼블릭은 지난해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에 자사 서비스를 적용해 출시한 이후 전세계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점차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1억8000만 플레이어 중 10%의 사용자를 자사 서비스로 유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향후 게임을 서비스하는 모든



지역의 언어를 지원하고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협력도 이뤄나갈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출시 3년 차에는 약 500만명, 5년 차에는 1800만명의 플레이어가 자사 서비스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이머리퍼블릭은 리그 오브 레전드 외에 배틀그라운드(PUBG), 포트나이트(Fortnite), TFT 등 다양한 글로벌 게임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류지원 게이머리퍼블릭 대표는 "게임 데이터를 사후 분석해 지난 매치를 점수화하는 서비스는 세상에 많이 존재하지만 게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사용자의 실력에 맞춰 실시간으로 코칭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었다"며 "데이터 기반의 지능적 코칭을 통해 게이머들은 보다 나은 플레이어로 성장하고 게임에서 더욱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레이비랩, AI 기반 ‘컬처핏 진단’으로 차세대 HR 혁신

### 조직문화 컬처핏 진단부터 이를 이용한 채용 서비스까지 제공

HR 테크 기업 그레이비랩은 AI를 활용한 ‘컬처핏(Culture Fit) 진단’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람과 조직의 적합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채용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그레이비랩은 AI 기반 개인 맞춤형 취업·커리어 코칭 플랫폼 ‘그래버(Grabber)’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그레이비랩은 지원자의 업무 성향과 가치관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진단하고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속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조직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설문 데이터를 하루 만에 자동 분석하는 AI 서베이 툴을 통해 인사담당자의 업무 효율성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솔루션은 이미 삼성벤처투자, 남양유업, SAP코리아, LG CNS, SR, 현대마린설루션 등 다양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입돼 활용 성과를 입증했다.

그레이비랩은 이러한 비즈니스 성과로 ‘엔비디아 인셉션(NVIDIA Inception)’ 프로그램 멤버로 선정되기도 했다.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스타트업

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술 지원, 시장 진출 기회, 네트워킹 및 리소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레이비랩은 “좋은 인재도 조직문화와 맞지 않으면 쉽게 떠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며 “AI 기반 HR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채용부터 리더십 개발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AI 취업 코칭 플랫폼 개발로 업계 혁신

그레이비랩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중심에는 AI 컬처핏(Culture-fit) 진단 기반 HR 서비스 ‘그래버HR(GrabberHR)’이 있다.

그래버HR은 AI 진단을 통해 개인별 업무성향을 파악해 코칭해 주는 솔루션으로 취업이나 경력 관리를 기업 관점에서 취업자의 관점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에서 그 혁신성이 빛을 발한다. 특히 자기 주도적인 MZ세대의 성향과 상응해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MOU 체결을 이어가고 있다.

또 그레이비랩의 대표 솔루션중 하나인 ‘애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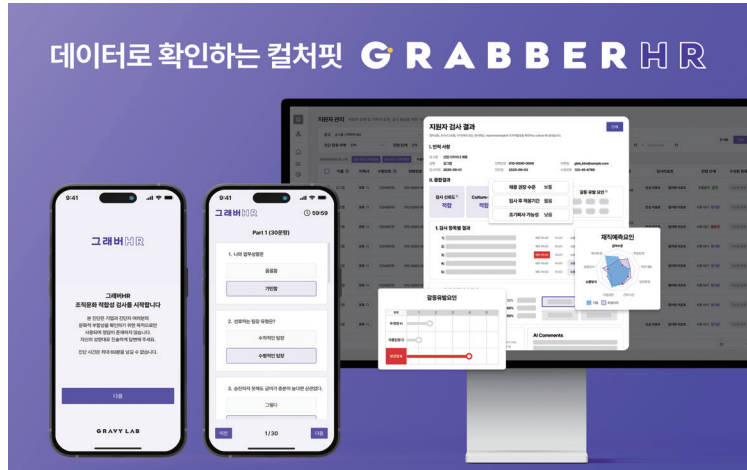
기업명	그레이비랩(Gravy lab)
대표자명	오지연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그래버HR(GrabberHR)·애스크토비(Askstobi)
사업분야	· AI+교육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토비(Askstobi)’는 생성형 AI 기반 취업코칭 서비스다. 애스크토비는 AI 기술을 통해 구직자가 기업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스토리 초안을 제공하는 커리어 관리 서비스다. 사용자는 본인의 이력 정보를 입력한 뒤 원하는 포지션을 검색하면 실시간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레이비랩의 솔루션에는 LLM, AG 등 로컬 추론 모델과 타깃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는 ‘빅데이터 크롤링(Bigdata crawling)’, 데이터 파이프라인별 데이터 수집·전처리·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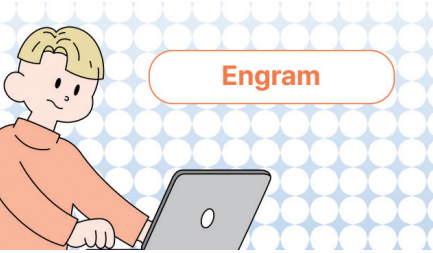
가능한 ‘ETL’ 등의 기술들이 적용돼 있다. 그레이비랩은 앞으로 구성원의 입퇴사일, 휴가사용률 등 인사 서비스와의 제휴 연동을 통한 지표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영어·일본어 버전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진단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성과지표의 예측, 시계열 분석을 제공하는 서비스 ‘HR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및 취준, 커리어 고민하는 학생들을 타깃해 생성형 AI 기반 교육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 데이터비, 비영어민도 불편함 없이 영어 사용토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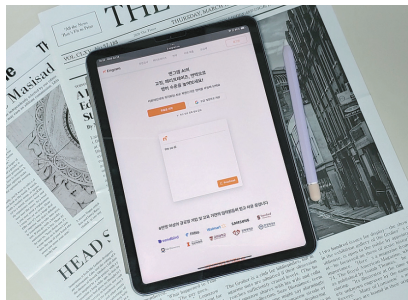


En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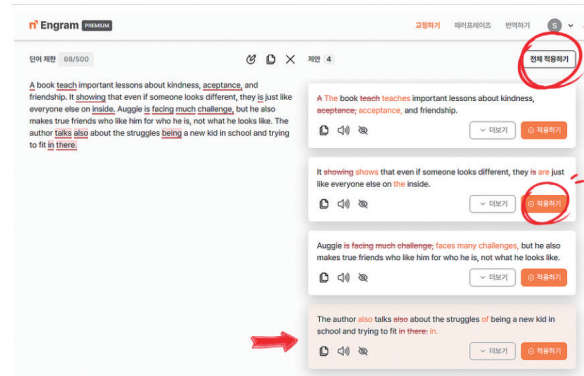
데이터비는 비영어민들이 영어를 사용하는데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자동 영문 교정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비영어권 사용자용 교정 프로그램 '엔그램', 영어 문장 입력시 AI가 오타까지 인식 국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영어 실력을 평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0%의 사람들이 초보 또는 왕초보 수준이라고 한다. 반대로 영어 실력이 '고급'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약 2%로 영어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영어 교육이 활발하지만 수능

이나 토익과 같은 문제풀이형 영어에만 집중하다 보니 개인의 회화나 작문 실력은 향상되지 않고 원어민과의 소통을 많은 사람이 어려워한다. 데이터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AI 교정 프로그램 '엔그램(Engram)'을 개발했다. 엔그램은 비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으로 사용자가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오타까지 인식해 교정 문장을 제안한다. 또 온라인 기반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영문 교정이 필요하면 PC, 태블릿, 모바일 등으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번역 및 영문 교정, 패러프레이즈 기능을 제공하는 엔그램은 SaaS 형태로 제공되며 AI 기술의 조합을 통한 최적의 성능, 목적에 충실한 사용자 경험, AI 제품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특징으로 한다. 엔그램은 자연스럽고 정확한 번역은 물론 번역된 초안을 다듬는데 도움이 되는 영문 교정 기능과 패러프레이징 기능까지 함께 갖췄다. 이 때 영문 교정 기능은 사용자가 글의 세세한 부분을 수정한 후 문



기업명	데이터비(Data B)
대표자명	오승현
설립연도	2018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엔그램(Engram)
사업분야	· AI+교육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 멀티모달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음성인식-합성(STT-TTS)



법 오류와 어색한 표현을 고칠 때 유용하다. 또 패러프레이징 기능은 목적에 맞게 문장을 학술적으로 바꾸거나 문장 길이를 줄이는 등의 수정 작업을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비영어민에 최적화됐다는 점도 엔그램의 특징이다. 엔그램은 자체 개발한 딥러닝 모델과 생성형 AI를 결합한 알고리즘을 통해 비영어민이 자주 틀리는 문법 오류나 어색한 표현을 더 잘 잡아내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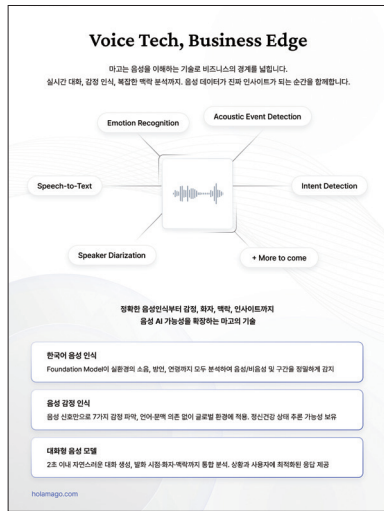
**일본·미국·중국 등 글로벌 시장서 신규 고객 확보 확대할 것**  
데이터비는 2021년 AI 영문 교정 서비스 '엔그램'을 출시하고 하나벤처스로부터 시드 투자를, 2022년엔 스트롱벤처스와 벤처스퀘어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2023

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에 선정됐다. 2023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 법인을 설립했다. 데이터비는 엔그램을 기반으로 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영어를 업무 및 학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연구원 및 직장인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영어 의사 소통이 필요한 6만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 및 교육 기관 임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비는 향후 제품 개선과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핵심 역량인 영문 번역과 교정, 패러프레이징 성능 개선에 나선다. 또 앞으로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카메라와 마이크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중남미 국가에서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 음성인식부터 감정·대화까지... 마고, 이해 넘어 현실적 문제에 답하다

오디온, 음성 신호만으로 7가지 감정 상태 분석  
음성인식과 감정 인식 모델로 대화형 AI 기술 기반 B2B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마고는 음성 AI 시장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마고의 핵심 솔루션인 '오디온(Audion)'은 다양한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플로우를 구성하고 반복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자막 생성, 소스 분리, 텍스트 분석 등 소리를 다루는 모든 작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코드 한 줄로 시작하는 간단한 도입 과정과 다양한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할 수 있다는 점은 오디온의 강력한 경쟁력이다.  
무엇보다 마고의 '한국어 음성인식' 기능은 실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을 구현했고 음성과



기업명	마고(MAGO)
대표자명	고현웅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오디온(Audion)
사업분야	· AI+교육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AI API-SDK 개발, 음성인식·합성(STT/TTS)

비음성을 구분해 음성 구간을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  
또 '음성 감정 인식(speech emotion recognition)' 기능은 음성 신호만으로 화자의 7가지 감정 상태를 분석할 수 있어 다국어 환경에서도 감정 인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현웅 대표는 "모든 연령대의 발화 특성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지역 방언과 사투리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다"며 "향후 음성만으로 사용자의 우울증, 인지 장애, 치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탐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했다.

업과 스타트업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글로벌 CRM 연동, API/SDK 활용 B2B SaaS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영업 효율화와 고객 관리 최적화를 기대하는 금융 산업군도 핵심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마고의 핵심 솔루션인 '오디온'은 사용자는 원하는 기능을 선택해 플로우를 구성하고 반복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고에 따르면 일상 대화나 특수한 상황 속 마고의 음성 인식 정확도는 99.1%에 이르며 음성 신호를 분석해 기쁨, 슬픔, 분노 등 7가지 감정과 우울감 등을 판단하는 정확도도 85%를 기록하고 있다.

**AI 기반 대화 분석 고도화·다국어 지원 확대**  
마고는 2024년 5개의 대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현재는 SKT, 교보생명 등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중이며 글로벌 기업과도 페이드(Paid) PoC를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마고는 발화 시점, 방식, 화자를 감지하는 종합 음성 분석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의도를 빠르게 이해함으로써 2초 이내 응답으로 자연스러운 실시간 음성 대화가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

마고는 미국, 일본, 유럽 등 CRM-ERP 플랫폼 및 DX 수요가 높은 국가 진출을 추진중에 있다. 실제 마고는 조만간 일본 제트로(JETRO)와 협력해 현지 DX 요구가 높은 기업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마고는 오디온을 SK그룹에 있는 전사 교육 영상의 자막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API를 제공 중이다.

또 감정, 의도, 키워드/기회 분석 등 대화 인텔리전스(Conversation Intelligence)를 자체 알고리즘과 대규모 데이터로 고도화할 계획이며 API/SDK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데이터 및 보안 인증 강화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고는 오디온 주요 타깃 시장으로 국내에서는 CRM 연동 및 대화 분석이 필요한 대기

## 투스퀘어,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선도

### 투닝 투닝플러스, 생성형 AI로 웹툰 작업 효율 ‘극대화’

투스퀘어는 에듀테크, 웹툰·웹소설 등 다양한 창작 분야에서 생성형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회사는 ‘투닝 플러스(Tooning plus)’와 ‘투닝(Tooning)’을 중심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교육용 생성형 AI 플랫폼 투닝은 이미 국내 여러 학교에서 사용되며 AI 크리에이터 육성 교육의 활용성을 인정

받고 있다.

투닝 에디터, 생성형 AI와의 대화·질문을 위한 투닝 챗·투닝 캐릭터, 이미지 생성 투닝 매직, 콘텐츠 보관 투닝 보드 등 웹툰 및 콘텐츠 제작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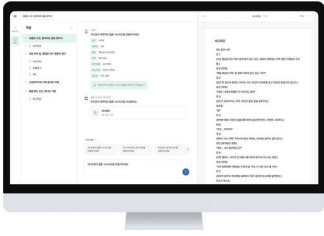
또 프롬프트 필터링 검열 및 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해 안전한 생성형 AI 환경을 지원하고 직관적 UI와 기능 설계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2025년 정식 출시된 전문 콘텐츠 제작 플랫폼 ‘투닝 플러스’는 생성형 AI 기반 올인원 SaaS 솔루션이다. 웹툰, 웹소설, 스토리보드 제작을 위한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스토리 생성부터 콘티 장면 구성, 편집, 공유까지 모두 자동화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AI 언어모델, 3D 컷 배치, 스타일 변환 이미지 생성, 실시간 협업 에디터 등을 통한 제공해 창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고품질 웹툰을 제작할 수 있다. 가장 큰 강점은 AI를 통한 유기적 연결로 작가의 아이디어를 단계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는 “프로 작가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웹툰 창작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2028년 매출 570억 목표…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현재 투스퀘어는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 제작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대표 플랫폼인 투닝과 투닝 플러스의 국제화 및 현지화

### Stories



투스퀘어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창작 활동과 기업 마케팅 활동을 돕는 글로벌 창작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기업명	투스퀘어(Toonsquare)
대표자명	이호영
설립연도	2019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투닝 플러스(Tooning plus)·투닝(Tooning)
사업분야	· AI+교육 · AI+미디어 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모델 개발·배포·모니터링)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를 준비 중이다.

투닝은 투스퀘어-하노이한국국제학교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투닝 플러스는 북미 위주의 광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오는 2028년 매출 570억원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주 공략 시장은 북미권과 중국이다. 북미 지역의 경우 미국지사까지 설립을 완료한 상황이며, 중국은 내년 협력사를 통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회사는 AI 기반 웹툰 제작 기술과 콘텐츠 IP 유통 역량의 결합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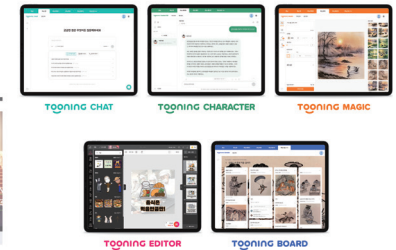
루었듯이 GPU 환경 지원과 작품 공급 확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본격적인 케도에 오를 AI 웹툰 플랫폼 사업도 매출의 중요한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호영 투스퀘어 대표는 “현재 글로벌 매출 비율이 국내 매출에 비해 크지 않지만 북미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작은 수요일도 국내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 지사의 설립을 완료했다. 향후 북미와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TOONING PLUS



### TOONING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5-26

AI + 금융

보다비(VODABI)

## 보다비, 세일즈 대화 분석 기술로 계약 성사율 ‘업’

### 보다비, 고객센터나 세일즈팀 운영에 중요한 지표 활용↑

2020년 1월 설립된 보다비는 AI 기반 세일즈 대화 분석 기술 전문 기업으로 고객과 세일즈콜 직원간 대화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자체 개발한 AI 기술을 이용해 수많은 세일즈콜 중 어떤 건이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 분석해 수치로 내놓는다. 이를 통해 세일즈콜 계약 성사율을 높이고 있다.

회사의 핵심 제품은 세일즈 대화 분석 스코어링 AI 솔루션 ‘보다비(VODABI)’다. 이 솔루션은 콜센터 및 챗봇의 대화 내용 분석, 세일즈 대화의 충실도 평가, 세일즈 성사 가능성 점수를 제공

하는 분석 알고리즘 모델 및 솔루션이다. 실제 성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고객센터나 세일즈팀 운영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다비의 핵심 기술은 AI를 활용한 세일즈 대화 상태 추적이다. 주고받는 세일즈 대화상에서 변화하는 세일즈 정보를 추적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세일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세일즈 대화 상태를 매 대화 진행 단계마다 추론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기술은 세일즈 대화 핵심 요소 추출이다. 활용 분야의 데이터가 작거나 상담 스크립트 정도만 있어도 세일즈 대화 데이터셋을 생성해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로 사전학

### 솔루션 포트폴리오



BANTCQ+E Framework: Budget, Authority, Needs, Timing, Competition, Question + Essential - Y/N, P/N/N, Scoring

기업명	보다비(VODABI)
대표자명	이삼현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보다비(VODABI)
사업분야	· AI+금융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예측 분석 모델링

습한 보다비 언어모델은 많은 데이터가 없어도 대화 핵심 요소를 판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활용 목적에 따라 세일즈 대화에서 얻은 정보를 요약해 점수화하고 세일즈 대화 상태 추적 결과를 활용해 점수의 근거 제공하는 ‘세일즈 대화 스코어링(Scoring) 기술’도 장점이다.

무엇보다 보다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세일즈 대화의 핵심요소를 담은 체계 ‘BANTCQ+E 프레임워크’로 세일즈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관점에서 보다비 요소기술에 적용돼 중요한 세일즈 정보 추출할 수 있다. BANTCQ는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는 ‘예산(B, Budget)·권한(A, Authority)·니즈(N, Needs)·시기(T, Timeline)·경쟁(C, Competition)·질문(Q, Question) 등 6개 카테고리의 약자를 뜻한다.

보다비는 BANTCQ+E를 활용해 판매 전환 강화 및 규정 준수 지침, 규정 및 표준 스크립트 모니터링한다. 보다비 솔루션은 또 90% 이상의 정확도로 매우 정확한 대화 점수를 제공한다.

**계약 성사 가능성 알려주고 상담원 코칭까지**  
보다비 서비스를 이용하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집중할 수 있다. 또 성과 개선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발견해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상담 코칭 과정을 자동화해 비용 효율적

으로 영업팀·고객센터 운영이 가능하다. 자사 특허 기술인 BANTCQ 프레임워크 라이선스를 통해 복미 시장 경쟁사들을 고객사로 포지셔닝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보다비는 고객과 텔레마케팅 상담원과 의 음성 및 대화 내용을 분석해 성공적인 세일즈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보다비는 특히 금융권 업무 모델을 고도화해 중견중소 금융기관 대상 대화분석 솔루션 공급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각 금융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후 해외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향후 지역별, 언어별 대화 분석 스코어링 솔루션을 출시해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삼현 보다비 대표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한다. 보다비의 시간이 됐다. 기업이나 개인은 고객과의 판매 대화를 통해 많은 보이 스 데이터를 획득한다. 생성 AI의 출현으로 그들은 ‘이러한 보이스 데이터가 스코어링 될 수 있을까’를 궁금해 하기 시작했다. 보다비를 통해 보이스 데이터는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로 연결이 돼 성과 증대와 자동화를 통한 효율 증대로 이어진다. 사용자에게 ‘보답이(보다비)’되는 보다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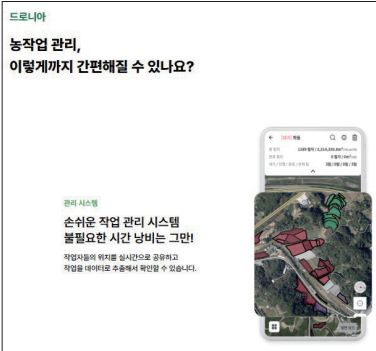
서울 AI 허브 2025-26

## AI + 농업·푸드테크

더대시(The DASH)  
에스앤이컴퍼니(SnE Company)  
크로프트 농업회사법인(Croft)  
파이프트리(Paiptree)  
피노랩(Pinot Lab)



## 더대시, 낙후된 영농 환경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



더대시는 농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낙후된 영농 환경을 데이터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스타트업이다.

### 노지 농업 특화 관리 SaaS ‘드로니아’, 현장 인력 관리·협업 혁신

더대시의 주력 제품인 ‘드로니아’는 노지 농업에 특화된 AI 기반 통합 관리 솔루션이다. 기존 전통적인 농업 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진행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로니아의 핵심 기능은 농작업 사전계획 수립·팀간 실시간 정보 공유·행정문서 자동 완성

기능이다.

작업용 디지털 지도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농장의 주소·좌표·농가 정보를 10분 이내에 시각화할 수 있는데 AI 기반 클러스터링 엔진을 통해 복수 작업지를 작업자의 역량과 현장 조건에 맞게 자동 할당함으로써 기존 수기 방식 대비 농작업 계획과 배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농기계와 인력 위치, 필지별 작업 현황 등 모든 정보를 농업 공동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자동 산출되는 경작 면적과 투입 자원, 생산량 데이터도 집계해 업무의 효율성과 협업 신뢰도,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

아울러 농작업 수행 로그 기반의 다양한 행정문서를 자동 완성하는 기능은 기존 수기 작업에 의존했던 비정형적 행정 환경을 개선시킨다. 인적 자원 관리 및 자재·재무관리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반복적 행정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현장 데이터 기반의 경영 의사결정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

김학준 더대시 대표는 “드로니아는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없이 범용적으로 모든 노지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 관리 SaaS로, 시장 선도 기업의 입지와 차별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생육 분석, 농업용 장비 관제에 집중한 글로벌 농업 SW들과 달리 인적자원간 소통 및 현장 데이터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해 인력 의존도 높은 농업 시장에서 독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명	더대시(The DASH)
대표자명	김학준
설립연도	2017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드로니아(Droneia)
사업분야	· AI+농업·푸드테크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AI 응용 분야 기술: 추천 시스템

### 동남아시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시동...기술·서비스 고도화로 경쟁력 강화

더대시는 국내 시장 공략과 함께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국내 농업과 유사한 동남아시아 시장부터 공략하고 점차적으로 대상 국가를 확대해 총 8600만명에 달하는 글로벌 농업 부문 중사자를 대상으로 입지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소규모로 파편화된 농업 특성을 가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뿐 아니라 일본·미국의 소형 농가를 집중공략할 경우 32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더대시는 필리핀 네그로스 오리엔탈 주의 기홍안(Guihulngan)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기반 농작업 계획 최적화 및 투입 자원 추적 기술의 PoC를 통한 시장 진출

을 앞둔 상황으로 2026년부터 필리핀 사탕수수 농가부터 시작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 2027년부터 적시성을 필요로 하는 농자재 및 장비 유통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사의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확대·고도화해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까지 확보한 40억㎡ 이상의 농업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작물 생육 상태 진단·처방·예측 엔진 구현과 함께 기후 변화와 병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며 AI 농작업 계획 자동화 기술 및 텔레메틱스 기반 드론 운용 기술을 고도화해 농기계 전반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R&D를 추진 및 기획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범국가적 작물 재배 데이터 취득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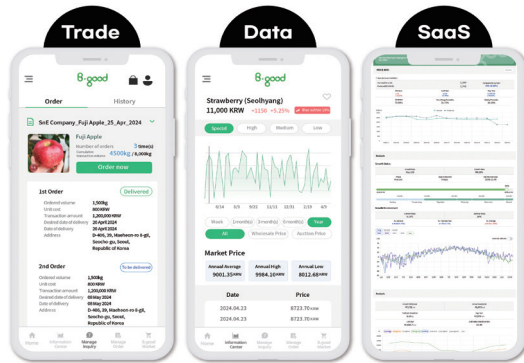
## 에스앤이컴퍼니, 빅데이터·AI 예측 기술로 신기준 제시

### AI로 농작물 작황·시세 예측 시대 언다

에스앤이컴퍼니는 서울신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난 2020년 8월 설립됐다. 에스앤이컴퍼니는 최근 약 20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설립후 총 50억원 가량의 투자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에스앤이컴퍼니는 약간의 흠집이나 크기 미달 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의 선도거래 플랫폼 '비굿(B-good)'으로 출발했다. 선도거래란 미리 계약하고 나중에 상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농작물의 생육, 작황, 가격을 예측하는 AI 기술을 개발했다. 관련 데이터 거래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굿은 빅데이터 및 AI 기반 농산물 생육·작황·가격 진단 및 예측 시스템(SaaS)으로 생육·예측은 딥러닝 기반 비전(Vision) 기술을 활용해 작물 이미지를 분석하고 생육 상태를 정량화하며 이를 통해 수확 시기 및 등급을 예측한다.



한편 에스앤이컴퍼니는 DX(디지털 전환) 분야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기 작업일지와 오프라인 문서를 ADF 스캐너 및 휴대폰 앱 기반의 OCR로 스캔해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해 준다.

### AI 기반 예측 관련 IP 및 인증 선제적 확보 등 차별화로 내세워

에스앤이컴퍼니는 AI 기반 예측 관련 IP 및 인증 선제적 확보, 빅데이터 및 AI 기반 '예측 프로세스' 자체 개발 및 구축 등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정형 빅데이터는 물론 작물 생육이미지, 위성 영상데이터 등 비정형 빅데이터까지 수집·전처리·분석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민의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경험에 의존한 기존 재배방식에서 벗어나 품목별 재배환경(기상 등)을 데이터화해 수확 등급, 시기, 가격 등을 분석 및 예측하고 있다.

예측 프로세스 단계는 '데이터

기업명	에스앤이컴퍼니(SnE Company)
대표자명	장세훈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비굿(B-good)
사업분야	· AI+농업·푸드테크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대규모언어모델(LLM)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예측 분석 모델링

수집→데이터 매핑 및 학습→모델 학습 및 고도화로 자체 정책 수립 후 내부 개발(외부 용역 X). 자체 앙상블 모델을 통해 수년간 학습 및 고도화에 예측 신뢰성 확보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에스앤이컴퍼니는 이와 같은 솔루션과 차별성을 바탕으로 식품제조가공업 타깃형 구매대행(선도거래)으로 2024년에 서비스 런칭년도(2021년) 대비 약 11배 증가한 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3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현재 회사는 국내 음료 ODM 및 OEM, 육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분야별 메인 기업들을 수요처로 확보해 거래 구조를 통해 거래 물량 및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또 작황 및 생육을 예측하는 성능에 대해서도 추가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AI 경영시스템을 다루는 ISO 42001 인증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앤이컴퍼니는 해외 시장 진출도 모색 중이다. 캐나다와 베트남 등에 현지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고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최적작물 추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에스앤이컴퍼니는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에서 중소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

에스앤이컴퍼니는 농산업·식자재 직거래 플랫폼 '비굿(B-good)'을 서비스하며 기술력과 시장 가능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한 AI 기반 디지털 농업 플랫폼(AX)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회사는 수기 기록의 디지털 전환(OCR 기반 DX), 생육·진단 분석 및 예측 AI 모델 구현 및 고도화, 농산물우수관리제도(VietGAP)·국제우수농산물관리기준(GlobalGAP) 인증 리포트 자동화 시스템 구축, 시각화 대시보드 및 사용자 피드백 루프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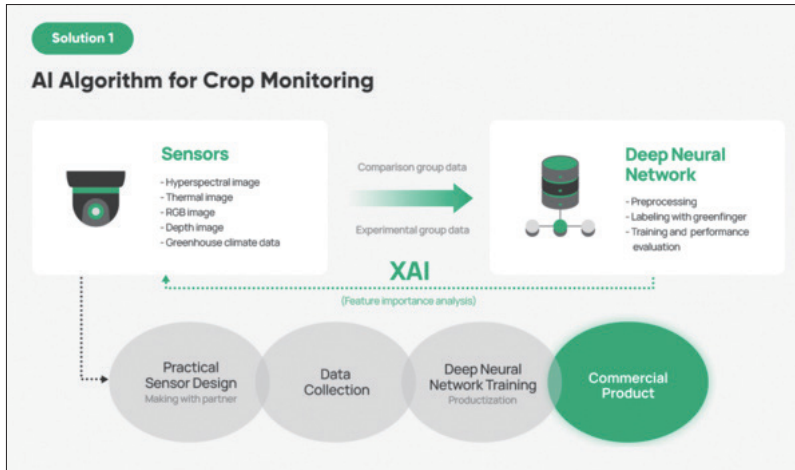
장세훈 에스앤이컴퍼니 대표는 "에스앤이컴퍼니의 목표는 기술을 한층 고도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 무대를 넓혀가는 것"이라며 "AI 허브에서 입주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국내 사업의 기틀을 잘 다질 수 있었고 그 기반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이 본격 도입되지 않은 국가들에서 에스앤이컴퍼니 기술과 솔루션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크로프트, 상업온실 기반 농업 AI SaaS로 시장 공략 ‘박차’

크로프트는 AI 기반 스마트 온실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온실 환경을 자동 제어해 최적의 재배 조건을 구현하는 온실 작물 관리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크로프트OS’로 비전문가도 최적 재배 가능...생산량↑·운영비↓  
 크로프트가 AI 기반 온실 관리 솔루션 ‘크로프트OS(CroftOS)’를 내세워 국내외 상업용 온실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크로프트OS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실 환경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합 운영 플랫폼이다. 이 시스템은 작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해 최적의 재배 전략을 수립하고 설정된 전략에 따라 온실 장비를 자동 제어함으로써 생산량 증대와 에너지·자원 사용의 최적화를 동시에 실현한다. 크로프트OS의 핵심 기술은 AI를 기반으로 온실 환경을 제어하고 생산량을 높이며 자원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작물 모니터링 AI는 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진단하며 재배 전략 AI는 최적의 재배 조건을 설정한다.



기업명	크로프트 농업회사법인(Croft)
대표자명	류희경-이우람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크로프트OS(CroftOS)
사업분야	· AI+농업·푸드테크
기술분야	· AI 모델 아키텍처: 시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개발·운영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로보틱스·자율주행 AI

또 제어 AI는 설정된 전략에 따라 온실 장치를 자동으로 조정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유지한다. 회사측은 실제 상업 온실 환경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생산량 향상과 운영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AI 제어 기술이 온실 재배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해 비전문가도 최적의 재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크로프트OS는 연구 및 시험 온실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센서 회사 및 에이지테크(ag-tech)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내년 AI 기반 스마트 온실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상업 생산과 운영을 통해 크로프트OS의 기능을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농업 AI SaaS로 국내 실증·글로벌 시장 단계적 공략

크로프트는 국내외 PoC(Proof of Concept) 및 실증 기반 확보를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방침이다. 1~2년 내 초기 실현을 목표로 국내 시장을 우선 공략한다. 청년창업 농·신규 조성 온실, 데이터 수집·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기관, 지자체 실증 온실을 1차 타깃으로 삼아 표준 설계·모듈형 크로프트OS

를 단계 도입한다는 전략이다. 기존 비이상적 온실은 센서, 제어, 작물 데이터 모듈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이상적 조건’에 가까운 환경으로 보정하도록 설계하고 신규 신축 온실에는 표준화된 온실 패키지를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또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정읍 온실 등 실증 거점을 활용해 시제품을 고도화하고 연구기관·대학·교육기관에 보급형 제품을 우선 공급하여 초기 매출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3~5년 내 상업용 온실 중심 제품 상용화와 통합 AI 제어 플랫폼 확대를 추진한다. 해외 매출 비중 확대와 플랫폼 기반 농업 AI SaaS 전환을 목표로 기존 제어 솔루션 고객을 대상으로 기능 확장 판매를 진행하며 하드웨어 일회성 판매와 SaaS 기반 월/년 단위 구독 수익 모델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및 디자인권 확보, 현지 파트너 발굴을 통해 글로벌 시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크로프트는 국가별 전략을 차별화해 추진한다. 일본은 국내외 유사한 온실 구조·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으나 숙련 재배사 부족 문제를 고려, 현지 파트너십 중심으로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 파이프트리, 모든 AI 기반 농장 물류 프로세스 투명하게 공개



### 생산부터 출하까지...산업 전반 SCM AI 플랫폼 '파머스마인드'

파이프트리는 AI 기반 애그테크(AgTech) 스타트업으로 계열화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출하) 정보와 생산계획, 배차계획, 사료분석, 도계/출하 및 등외품 분석 등 생산부터 출하까지 산업 전반의 데이터 공급망 관리(SCM) 인공지능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파이프트리의 대표 솔루션은 AI 기반 양계관리 솔루션 '파머스마인드(Farmers Mind)'다. 파머스마인드는 농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농장의 환경 정보, 육계 가격뿐만 아니라 사육 중인 닭의 실시간 평균 체

중, CCTV 모니터링, 사료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파머스마인드는 CCTV와 IoT 센서 모듈로 양계농장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딥러닝(심층학습) 기반으로 분석해 생산성을 높인다.

구체적으로 양계 중량 예측 서비스, 방역관리 서비스, 시설관리 서비스, 도계 생산량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양계 중량 예측 서비스는 닭을 촬영한 뒤 중량 분포를 AI로 분석해 적정 출하 시점과 출하량을 계산한다. 특히 파이프트리는 파머스마인드가 국내 유일의 상용화 가능 수준의 기술을 갖춘 솔루션이라고 자부한다.

실제 파이프트리는 파머스마인드를 처갓집양념통닭으로 유명한 체리부로 및 신우에프에스를 중심으로 충청권 농장의 절반 가까이의 생산 및 도폐사 정보를 분석·수집 중에 있다. 파이프트리는 향후 파머스마인드를 글로벌 단위의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겠다는 포부다.

### 태국·일본·대만 비롯 미국·브라질까지 시장 확대 꾀한다

파이프트리는 지난 2020년 6월 법인 설립후 디캡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 선정됐고 아일랜드인베스트, 리벤처스, 로우파트너스, 아이엑스브이, 그린랩스로부터 약 32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3년 2월 TIPS 선정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또 파이프트리는 2025년 2월 국내 생계물류

기업명	파이프트리(Paiptree)
대표자명	장유창·이병권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Series B
주요제품	파머스마인드(Farmers Mind)
사업분야	· AI+농업·푸드테크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예측 분석 모델링

회사인 한호운수와 손잡고 물류 자동화 혁신에 나서기도 했다.

파이프트리는 파머스마인드를 기반으로 생산 관리부터 영업, 출하까지 전반적인 공급망 관리(SCM) 역할을 확장하고 향후 사료유통과 축산물유통까지 통합물류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파이프트리는 이미 양계 산업에서 원종계의 암수 구분 관리 기술, 도계장의 등외품 감별 기술 등 다양한 R&D(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기술은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와 유사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해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태국,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라오스, 에티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등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후속 투자 유치 및 미국·브라질 등으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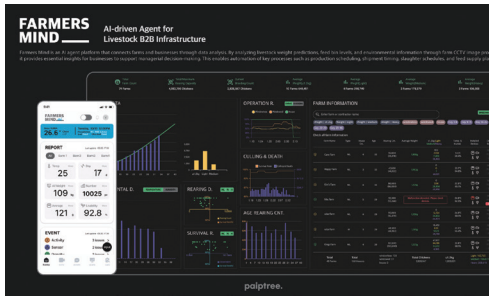
이에 파이프트리는 지난 2025년 3월 태국의 CPF(Charoen Pokphand Foods Company)와 대규모 생산 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해 초대형 생산운영 방식에 특화된 자사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 미팅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파이프트리는 이를 계기로 태국의 최대 수

출국인 일본 및 대만에 보유 중인 협력 기업들과 긴밀한 시스템 연동으로 곡물 기업 카길(Cargill)과 같이 지역별 관리를 넘어 국가 단위의 유통까지도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기초를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장유창 파이프트리 대표는 "양사의 협력이 AI 기반 축산 스마트팜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계기로서 전세계 축산 산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브라질 등 해외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프트리는 농부와 기업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 피노랩, 물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소중함을 기업·소비자 가치로 전환

피노랩은 물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고객, 채널에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중심 세계 최고 수준 서비스 제공

피노랩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술을 활용해  
와인 키오스크, 금융 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2021년 6월 삼성전자  
C-랩(Lab)에서 스펀오프해 회사를 설립했고 5  
억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피노랩은 현재 8건의 특허 출원(미국 특허 2건,  
등록 1건, 상표권 등록 3건 등)을 했으며 국내외  
생수 생산·유통업체를 타깃으로 해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피노랩은 유럽 워터소믈리에 협회(EWSA)  
가 운영하는 기업 자보드(Zavod) 및 중국 워  
터소믈리에 협회장이 운영하는 퓨어로지카  
(Purelogica)와 MOU 체결하는 등 해외 워터 전  
문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피노랩은 전세계 70개국 1000개 이상의 생수  
정보를 제공하는 최대의 물 데이터 서비스 플랫  
폼을 구축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발전시켜 나  
갈 계획이다.

특히 피노랩은 물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중심  
으로 플랫폼 내에 생수 유통정보, 수질정보, 물  
을 이용한 다양한 다른 음료와의 레시피(커피,  
차, 칵테일 등) 등의 콘텐츠를 보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워터 플랫폼을 유지하고 이를 필요로 하  
는 기업과 협업을 통해 성장해 나가겠다는 목표  
를 세워 놓고 있다.

피노랩은 대표 솔루션으로 ‘워터소믈리에  
(Water Sommelier)’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전세계 60여개국의 1000개 이상  
의 생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맛 평가,  
수질평가, 물 콘텐츠를 제공한다.

피노랩의 워터소믈리에 플랫폼은 생수 판매 데  
이터를 수집하고 자사 품질 평가기준과 접목해  
생수 커머스 분석 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바탕  
으로 유통 채널별, 고객별 맞춤 생수 브랜딩 컨  
설팔링을 제공한다.

단순히 분석 데이터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기술

기업명	피노랩(Pinot Lab)
대표자명	안성원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워터소믈리에(Water Sommelier)
사업분야	· AI+농업·푸드테크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추천 시스템, 예측·분석 모델링

을 활용해 제품의 물맛, 성분, 스토리텔링 정  
보와 같은 특징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생성형 AI로 분석한 결과는 자연어 형태로  
도출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제공  
한다. 제품 관련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서  
비스도 진행 중이다.

기술적인 배경은 LLM 기술을 활용해 정제  
된 데이터를 파인 튜닝 학습시켜 당사가 원  
하는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되는 워터소믈리  
에 에이전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생수업계는 전형적인 전통시장으로 IT와 AI  
기술 도입이 가장 늦은 분야다. 피노랩의 대  
부분 고객사들은 아날로그 방식의 유통과  
마케팅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판매확대와  
효과적인 마케팅을 고민중이다.

이런 고객사를 대상으로 피노랩은 적극적으로  
AI 기술과 자사만이 보유한 세계 최대 규  
모의 물 데이터를 활용해 효율적인 마케팅  
콘텐츠와 판매전략을 제공한다. 경쟁사가  
활용하지 못하는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경쟁사에는 없는 자사만의 물 데이  
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도출과 판매확대  
를 위한 컨설팅은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유  
료 고객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피노랩은 물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  
한 상황에서 물을 활용해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F&B 음료 분야의 사업으로 확



장할 계획이다.

실제 피노랩은 2024년 10월 차 브랜드와  
협업해 차를 우릴 때 쓰는 물 종류에 따른 맛  
과 향의 차이를 분석, 생수와 차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향후 커피, 차, 칵테일의 특징별로 사용  
되는 생수 추천 및 물맛 비교, 레시피 콘텐츠  
등을 제공하면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5-26

## AI + 리테일커머스

루덴시티(Ludacity)

스튜디오랩(STUDIO LAB)

주피터랩스(JUPITER LABS)

펄크럼테크놀로지스(Fulcrum Technologies)

# Ludencity

## 루덴시티, AI 기반 참여형 마케팅 플랫폼 '브랜드리'로 중소 뷰티 브랜드 마케팅 자동화 혁신 선도

### 브랜드리, 마케팅 인력 부족 중소 뷰티 브랜드도 손쉽게 참여형 캠페인 운영 가능토록

루덴시티가 운영하는 AI 기반 참여형 광고 플랫폼 '브랜드리 (Brandary)'가 마케팅 인력이 부족한 중소 뷰티 브랜드 사이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다. 브랜드리는 상세페이지 URL 만 전달하면 캠페인 기획-운영-검수-CS-리포트까지 전체 과정을 전담해주는 '올인원(All-in-One) 참여형 캠페인 솔루션'으로, 이미 다수의 브랜드가 올리브영, 쿠팡, 무신사 등 주요 커머스 플랫폼에서 단기간에 판매 촉진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브랜드리는 브랜드-고객 매칭 모델, LLM 기반 콘텐츠 생성, OCR 기반 인증, 이미지 분석 모델, 성과 예측 및 설계 엔진, 참여형 모바일 앱 서비스 등 다양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캠페인의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광고주는 캠페인

기획, 참여자 모집, 인증 검수, 리포트 작성 등 복잡한 업무를 일일이 수행할 필요가 없다. 브랜드리 솔루션이 모든 과정을 대행하여 검수, 성과, 집행은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중소 브랜드도 고객 참여형 마케팅을 부담없이 실행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 브랜드리는 중소 뷰티 브랜드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참여형 마케팅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단순 구매 기반 캠페인뿐 아니라 소비자 경험 확장, 신규 회원 확보, 채널 구독 전환 등 다양한 목표의 참여형 마케팅을 하나의 캠페인으로 통합 설계, 운영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목표에 따라 여러 에이전시를 병행 활용하거나 복잡한 설정을 직접 관리해야 해 커뮤니케이션 부담과 운영 리스크가 크게 소모되는 경우가 많았다. 브랜드리는 유연한 캠페인 설계 구조를 통해 브랜드의 다양한 목표를 단일 플랫폼에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기반 위에서 브랜드리는 소비

기업명	루덴시티(Ludencity)
대표자명	한동식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브랜드리(Brandary)
사업분야	· AI+리테일·커머스: 개인화 추천·수요예측 등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추천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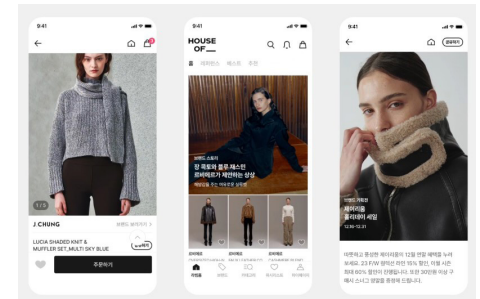
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제품 관심도 형성, 상세페이지 유입 증가, 구매 전환 개선 등 핵심 지표를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는 브랜드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성과 관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중소 브랜드가 한정된 리소스로도 성과 중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루덴시티는 향후 브랜드리의 참여형 캠페인 상품 라인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쿼즈 참여, 체험형 미션, 트래픽 전환 미션 등 브랜드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맞춤형 캠페인을 도입해 활용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또한 광고주 대비보드를 고도화해 실시간 성과 분석 및 자동 최적화 기능을 강화하고, 참여자 측면에서는 마일리지 프로그램, 팀 미션 등 참여 경험을 확장해 재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진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브랜드리를 단순한 성과 집행 도구를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에 나간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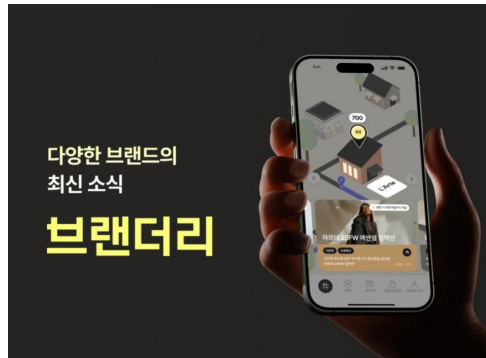
### 매출 3000억 목표...향후 일본·동남아·북미 시장 '정조준'

루덴시티는 창업 초기 매쉬업벤처스와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로부터 투자를 유치

루덴시티는 중소 뷰티 브랜드를 위한 올인원 참여형 마케팅 솔루션 '브랜드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기술과 혁신을 통해 인력이 부족한 중소 브랜드도 참여형 마케팅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했으며, 현재 브랜드리를 중심으로 중소 뷰티 브랜드의 실질적 매출 성장을 지원하는 애드테크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회사는 중기적으로 매출 3,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일본·동남아·북미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스튜디오랩, 패션 커머스 AI로 혁신

스튜디오랩은 미디어 및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 젠시, 사진 한 장으로 고품질 상세페이지 제작 가능 '시마법사'

스튜디오랩은 삼성전자 사내벤처 C-랩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2020년 1월 삼성전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불과 1년만에 독립법인으로 스피노프했으며 AI 기술로 패션 커머스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스튜디오랩은 AI를 기반으로 해 개인화 추천·수요 예측 등 리테일 및 커머스 분야와 생성AI·가상인간·콘텐츠 자동화 등을 앞세워 미디어 및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튜디오랩은 비전-언어 모델

(VLM), 자연어처리(NLP), 컴퓨터비전(CV), 추천 시스템,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 AI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2021년 7월 창업 이래 가파른 성장 행진을 이어온 스튜디오랩은 2024년 12월 33억원 규모의 프리(Pre)A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네이버 D2SF, 디캠프, 서울경제진흥원 등 굴지의 투자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스튜디오랩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스튜디오랩의 핵심 무기는 제품 사진 한 장으로 고품질 상세페이지를 자동 제작하는 시마법사 '젠시(GENCY)'다. 젠시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미지를 분석해 상품명, 디자인 소재, 스타일을 추출하고 최적의 레이아웃과 문구로 페이지를 완성한다.



기업명	스튜디오랩(STUDIO LAB)
대표자명	강성훈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젠시(GENCY)·젠시(GENCY) PB
사업분야	· AI+리테일·커머스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비전-언어 모델(VLM)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컴퓨터비전(CV) 등

또 콘텐츠 제작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상품 런칭 속도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가 크며 오픈AI의 거대 언어 모델(LLM)인 GPT와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결합해 기존에 수일이 소요되던 상세페이지 제작을 약 15초 내외로 단축할 수 있고 AI로 생성한 카피라이팅을 제품 이미지와 조합하고 자동 배치해 홍보에 최적화된 즉시 활용 가능한 완결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더불어 AI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러닝타임을 최소화한 직관적 UX/UI를 제공한다.

젠시는 F&F, 신성통상, 더네이처홀딩스, 위비스 등 패션 대기업은 물론 1인 소상공인까지 디자인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막론하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은 상세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본질적인 비즈니스 성장과 가치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젠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기능은 제품에 최적화된 카피라이팅을 자동 생성하고 이미지와 함께 적절하게 배치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최대 50개까지 대량의 상세페이지를 신속하게 제작하면서도 디자인의 퀄리티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패션 넘어 사업 영역 확대...한국 AI 기술 알리겠다"

스튜디오랩의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통해 세계 무대에 한국의 AI 기술을 알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다. 또 패션을 넘어 리빙, 뷰티, 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각오다. 언젠가는 '아마존 고(Amazon Go)' 같은 무인 매장도 보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다.

이에 스튜디오랩은 상세페이지 외의 다양한 커머스 콘텐츠 자동화하고 패션 도메인에서 패션 외 도메인으로 진출해 모든 커머스 영역의 콘텐츠 문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주피터랩스, AI로 패션산업 디지털 전환 ‘앞장’

### 패션산업 특화 경영관리 솔루션 ‘위빙’으로 운영 효율성↑

주피터랩스는 공급망 관리 솔루션 ‘위빙’, 국제 특송 서비스 ‘위빙-X’, 풀필먼트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패션 사업자를 위한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대문 패션 시장의 혁신을 꾀한다는 목표로 설립됐으며 LG전자, SK하이닉스, 쿠팡, 브랜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 공급망과 물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패션 기반 SCM 솔루션을 개발했다.

위빙은 패션 도소매 사업자를 위한 경영관리 솔루션으로 주문부터 정산까지 운영 과정을 올인원으로 제공한다. 패션산업 특유의 옵션·컬러·

사이즈 복잡도를 체계화된 마스터 정보로 관리할 수 있고 SaaS와 풀필먼트 통합 운영으로 실제 실행까지 보장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도와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위빙-X는 투명한 정산정보를 제공하는 항공·해상 특송 솔루션으로 특송 과정 중 발생하는 운임 및 부가비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화물의 이동 현황도 실시간으로 추적해 배송 단계별 상태를 공유할 수 있으며 국가별 화물 특성에 따른 멀티 캐리어도 연동해 운영 가능하다.

아울러 물류비 구조를 구간별로 분석해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를 도출해냄으로써 물류비용을 최적화한다.



기업명	주피터랩스(JUPITER LABS)
대표자명	안강휘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위빙(Weaving)-위빙-X(Weaving-X)-SCM 포털(SCM Portal)
사업분야	· AI+리테일·커머스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추천 시스템

회사는 “위빙과 위빙-X는 전사시스템 통합·재고 정확도 개선·물류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며 “실제 여러 패션 플랫폼 및 브랜드에 활용한 결과 관리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주피터랩스는 전사시스템을 연결하는 SCM 포털(SCM Portal) 솔루션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시스템과의 연결 편의성을 지원한다.

### 5년 내 국내 3대 패션 SCM 플랫폼으로 성장

주피터랩스는 패션·뷰티 특화 공급망 DX 선도기업을 목표로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방침이다. 중국·일본·미국·동남아·대만 등을 타깃으로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패션·뷰티 플랫폼과의 업무 협업을 확대하고 중국은 로컬 유통 플랫폼 연동을 통한 상품 DB와 연계 플랫폼 확대를 통한 국내 상품소싱 경로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패션 플랫폼 풀필먼트 대행 및 특송 물량 확대에 집중하며 동남아와 대만은 해외 진출 희망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특성 채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미 다수의 해외 패션 플랫폼과 협업을 확대하는 중이다. 특히 올해는 중국 직소싱 연동 플랫폼에 집중, 협업 확대에 나서

주피터랩스는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과 AI를 활용해 패션 물류 사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 관리 통합사업계획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 있다. 2026년엔 SCM 포털을 SaaS로 전환하고 위빙 B2B 플랫폼의 연동을 확대하며 중국 내 풀필먼트 거점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또 2027년엔 상품DB를 바탕으로 각종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 가능한 전문 SCM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이후 2030년까지 IPO 또는 전략적 M&A를 통한 글로벌 투자 회수(Exit)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회사는 위빙 출시 이후 매출 성장을 지속 기록하고 있다. 2024년에는 109억원 매출을 달성했고 2025년 매출은 1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강휘 주피터랩스 대표는 “향후 5년 내 AI와 풀필먼트를 결합한 모델을 통해 국내 3대 패션 SCM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신제품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SCM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했다.

## 펄크럼테크놀로지스 “압도적 기술 격차로 이커머스 AI 시장 평정셀러 위한 ‘슈퍼 에이전트’로 도약”

### ‘후커블’로 누구나 쉽게 고품질 상세페이지 제작 가능

펄크럼테크놀로지스는 이커머스 셀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가속화하는 리테일 테크 기업으로 AI 기반 상세페이지 자동화 솔루션 ‘후커블’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이커머스 셀러들이 제품 정보와 이미지를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가독성 높고 구매를 유도하는 상세페이지를 수 분 내에 완성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국내 상세페이지 생성 AI 중 최초로 탑재된 ‘GIF(움짤) 자동 생성’ 기능은 정적인 이미지를 넘어 생동감 있는 연출을 가능케 하여 고객의 시선을 붙잡고 체류 시간을 극대화한다.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바로 적용 가능한 이미지 파일 형태로 결과물을 제공해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후커블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검증된 ‘매출 성공 방정식’을 학습한 특화된 AI 모델을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단순히 텍스트와 이미지를 배열하는 차원을 넘어, AI가 제품 사진 속에 숨겨진 핵심 소구점(Selling Point)을 스스로 찾아내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최적의 스토리텔링을 설계한다. 마치 베테랑 MD가 기획하고 전문 디자이너가 작업한 것처럼, 고객의 시선 흐름과 구매 심리에 맞춰 문구와 배치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획, 카피라이팅, 디자인이라는 각각의 전문 영역을 AI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통합 수행함으로써, 사용자는 전문 지식 없이도 제품 등록 즉시 ‘매출로 이어지는 상세페이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세페이지 솔루션들은 기획 초안에만 집중하거나 단순한 디자인 툴 기능만 제공한 반면 후커블은 기획부터 디자인까지의 전 과정을 AI가 한 번에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AI가 제품의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기획을 하고 그에

펄크럼테크놀로지스는 노동 집약적인 이커머스 업무 환경을 AI 기술로 완벽히 혁신해 모든 셀러가 소모적인 작업 대신 ‘성장’과 ‘브랜드’라는 비즈니스의 본질에만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전문 디자이너나 복잡한 디자인 툴 없이도 누구나 쉽게 고품질의 상세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후커블은 제품의 주요 특징과 판매 포인트를 분석해 효과적인 문구와 디자인 요소를 자동으로 배치하며 AI가 생성한 초안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직관적인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기업명	펄크럼테크놀로지스(Fulcrum Technologies)
대표자명	고우빈
설립연도	2025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후커블(Hookable)
사업분야	· AI+리테일 커머스: 개인화 추천·수요예측 등 · AI+미디어·콘텐츠: 생성AI·가상인간·콘텐츠 자동화 등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맞춰 디자인을 구성하기 때문에 내용과 디자인이 따로 놀아 어색해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다.

### “가장 고통스런 ‘상세페이지’ 문제 완벽 해결…마케팅·운영까지 AI가 책임질 것”

펄크럼테크놀로지스는 단순히 상세페이지를 만드는 도구를 넘어 국내 이커머스 AI 시장의 기술 표준을 이끄는 ‘압도적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고우빈 대표는 “이커머스 셀러들에게 가장 높고 험난한 진입장벽이었던 ‘상세페이지 제작’ 문제를 후커블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퀄리티로 해결했다”며 기술력

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후커블은 타 서비스가 흉내 낼 수 없는 데이터 분석력과 디자인 완성도로 시장 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다음 단계로 비즈니스를 확장한다. 고 대표는 “셀러들이 가장 어려워하던 상세페이지 문제를 정복했다는 것은 이커머스 밸류체인의 핵심 고리를 풀었다는 의미”라며 “이제 상세페이지를 넘어 상품 소싱, 마케팅, 고객 관리 등 셀러가 겪는 모든 비즈니스 난관을 스스로 해결해 주는 ‘자율형 AI 에이전트 (Autonomous AI Agent)’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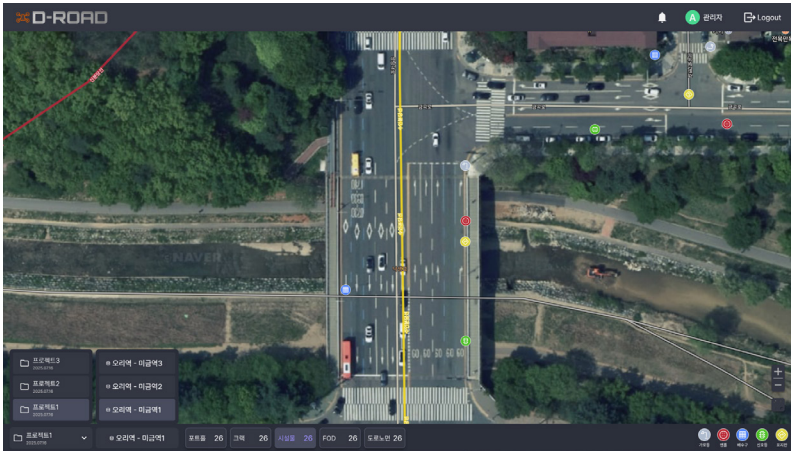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5-26

## AI + 모빌리티

드로미(DroMii)  
바이브에이아이(VibeAI)  
별따라가자(Star Pickers)  
시티아이랩(CITYEYELAB)  
에이브노틱스(AiVeNautics)  
온잇코리아(Onitkorea)

## 드로미, 드론·위성으로 데이터 획득 AI 기반 공간 솔루션 제공



### K-아쿠아즈·D-로드, 최적 관리 전략 수립 도와...관리 효율성↑·비용↓

드로미는 공간정보 기반의 데이터 처리,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전문 GeoAI(Geospatial AI) 스타트업이다. 드로미는 딥러닝 및 드론 기반의 무(無) 차량 도로정사 사진 제작 솔루션, 다방향 카메라를 이용한 3D 모델 제작 솔루션, 드론 기반의 실사형 도로정밀 안전지도(HDSMap) 제작 솔루션, 노드(Node) 기반의 네트워크 분산 처리를 이용한 영상처리 자동화 솔루션 등을 개발했다.

드로미의 대표 제품은 'D-로드(D-ROAD)·K-아쿠아즈(K-AQUAS)·CfSM'로 D-로드는 도로위

의 포트홀 크랙 탐지 및 관리 솔루션이고 K-아쿠아즈는 수자원 오염원 통합관리 시스템이며 CfSM는 딥러닝 및 드론 기반의 도로 위 차량 이미지 자동 제거 솔루션이다.

D-로드는 드론으로 촬영된 도로 이미지에서 차량과 그림자를 자동으로 제거함으로써 실제 도로 노면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간적 제약은 극복한 도로 환경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면서 보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및 예방적 보수가 이뤄질 수 있다.

K-아쿠아즈는 위성영상과 드론 촬영 데이터를 활용해 하천 유역의 오염원을 조기 감지하고 이를 시각화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웹

기업명	드로미(DroMii)
대표자명	이승호
설립연도	2017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D-로드(D-ROAD)·K-아쿠아즈(K-AQUAS)·CfSM
사업분야	· AI+모빌리티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기반 플랫폼이다. 특히 하천 주변 비점오염원을 조기에 탐지하고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K-아쿠아즈는 정규 식생 지수(NDVI)·수역 지수(NDWI)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위성 영상 분석을 진행하며 초해상도(Super Resolution) 기술을 적용해 위성 영상의 해상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연도별·지수별 환경 변화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졌고 드론을 통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오염원 위치를 자동 매핑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CfSM는 딥러닝 및 드론을 통해 도로 위 차량 이미지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솔루션이다. 이를 통해 도로 위 크랙과 포트홀 등 문 제점을 파악한 뒤 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또 해당 제품을 통해 도로의 차선 및 크기까지 정밀하게 파악해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도로 정밀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 AI 서비스 고도화... 'D-파인드'로 글로벌 시장 적극 공략

드로미는 자사 서비스를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중동, 남아프리카공화국, 동남아시아 등 주요 신흥 개발 시장을 타깃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회사는 국공유지 내 불법경작지 및 조

드로미는 드론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를 AI를 사용해 도로 교통 정보를 생성한다.

서 자동화 시스템인 'D-파인드(D-FIND)'를 준비 중이다.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MOU 기반 국가별 유지보수 및 미팅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는 두바이 스마트시티, NEOM 시티 등 투자 규모에 따라 유료 위성데이터의 도입과 데이터보안을 고려한 구축형(On-premis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란세리아(Lanseria) 스마트시티, 무이크루프(MOOIKLOOF) 메가시티 등 대규모 주거 및 교통 인프라 사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부지와 미등록 구조물의 현황 파악에 따라 클래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는 농촌 기반 국유지 개발과 신도시 확장 사업을 배경으로 불법경작지, 분묘, 무허가 주택 등에 대한 보상 산정과 디지털 조사 이력 관리를 중점으로 토지피복도 기반 지장물 분석 기능 중심의 SaaS 플랫폼을 제안할 계획이다.

## 바이브에이아이, 행동 패턴 분석 SaaS 기반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바이브에이아이는 독자적 AI 딥러닝 엔진 기반 행동 패턴 분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사용자 행동을 더욱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바이브체크, AI 자연어 형태소 분석 기술로 도시 경쟁력 분석 강화

바이브에이아이는 소셜 관심 키워드를 도출하고 사용자 행동패턴을 분석해 SaaS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바이브에이아이만의 AI 딥러닝 형태소분석 기술로 분석된 데이터는 고객들이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즉, 사용자의 상황인지 및 잠재욕구에 대한 예측정보를 통해 새로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바이브에이아이는 "당사 플랫폼은 데이터를 통합해 귀사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 핵심 개인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AI 기반 플랫폼은 독

점적인 딥러닝 및 행동 패턴 분석을 활용해 고도로 개인화된 인사이트를, 또 AI-딥러닝-행동 패턴 분석의 통합된 기능을 통해 프리미엄 분석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브에이아이의 주력 제품인 '바이브체크'는 AI-빅데이터 기반의 도시 경쟁력 분석 에이전트 솔루션이다. 리뷰, SNS, 검색 트렌드 등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해 특정 지역의 감정, 관심, 활성화를 측정함으로써 모니터링-성과 벤치마킹-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바이브체크의 핵심은 AI 자연어 형태소 분석 기술을 활용해 도시 인지도를 지표화하고 경쟁력 분석과 산업 도메인 정보(Industry Domain Knowledge)를 반영해 도시 활성화를 예측·추천하는 도메인 특화 AI 에이전트 기능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바이브체크는 지난 5년간 전국 600만건의 실제 데이터를 학습한 실전 AI 모델을 기반으로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1000개 리뷰 기준 0.0089초, 키워드 추출 정확도 90%의 높은 AI 자연어처리 역량 수준을 제공한다.

해의 시장에서 실제 고객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신뢰성과 사용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적·사업적 경쟁우위 환경을 구축한다.

기업명 바이브에이아이(VibeAI)

대표자명 홍준호

설립연도 2024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바이브체크(VibeCheck)

사업분야 · AI+모빌리티 · AI+공공-스마트시티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예측 분석 모델링, 로보틱스-자율주행 AI

### 바이브에이아이, 캐나다 시장 진출로 글로벌 스케일업 '박차'

바이브에이아이는 이미 국내뿐 아니라 캐나다 시장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글로벌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온타리오주 내 지자체 및 토론토 국제공항 솔루션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파일럿 서비스(Pilot Service)를 진행 중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0개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브에이아이는 글로벌 고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현지화함으로써 향후 5년 내 북미 시장에서 도시 활성화 예측·추천

AI 에이전트 분야의 대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글로벌 100개 도시에 Sa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도시의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관광객 맞춤형 큐레이션 AI 에이전트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호 바이브에이아이 대표는 "바이브체크는 AI-딥러닝-행동 패턴 분석 전반에 걸친 통합 기능을 제공해 도시 관리자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지자체의 한정된 자원 내에서 최적의 활성화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북미 전역과 유럽 시장으로 글로벌 스케일업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AAA 기술 전략을 활용하여 초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ggregating Data > AI Deep Learning > Acting with Data



## 별따러가자, AIoT 모션 센서로 소중한 생명 지킨다

별따러가자는 모빌리티가 가진 가치를 지키고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AIoT 모션센서 활용 모빌리티 사용 안정성 UP

별따러가자는 모션 센서가 포함된 AIoT를 통한 모빌리티 안전, 이동 관제 서비스 '라이더로그'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10월 런칭된 이 서비스는 안전 관제 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와 연계한 비즈니스 확장도 가능하다.

라이더로그는 모션 센서가 포함된 AIoT를 활용한 모빌리티 안전, 이동 관제 서비스로 자체 개발한 모션 센서와 독자적 모션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관제를 통한 즉각적 사고 확인이 가능해 스마트 안전 시티 역할을 제공한다. 또 IoT 설치와 관리, 안전 관제, 안전 점수 산출 기능을 단일 웹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자전거 등 소형 모빌리티에 부착된 AIoT 모션센서를 통해 차량의 움직임 패턴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AI로 분석해 사고 위험을 예측하거나 안전 운전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모션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oT와 AI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핵심 기술을 활용해 소형 모빌리티 운행 관련 기존 위치 추적 이상의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이더로그를 사용하면 운전자는 모션센서로 측정된 다양한 운전습관을 통해 안전 점수를 확인해볼 수 있고 e-콜(e-Call) 기능을 통해 사고 발생 감지 시 등록된 긴급 연락처로 문자를 자동 발송함으로써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 자세한 주행 정보를 제공해 위치, 시간, 차량번호 등 사고 추정 기록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차량 관제 시스템을 통해 소속 라이더들의 가동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운휴차량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점수, 사고 발생 건수, 위치 확인을 통한 차량 도난 및 유실에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라이더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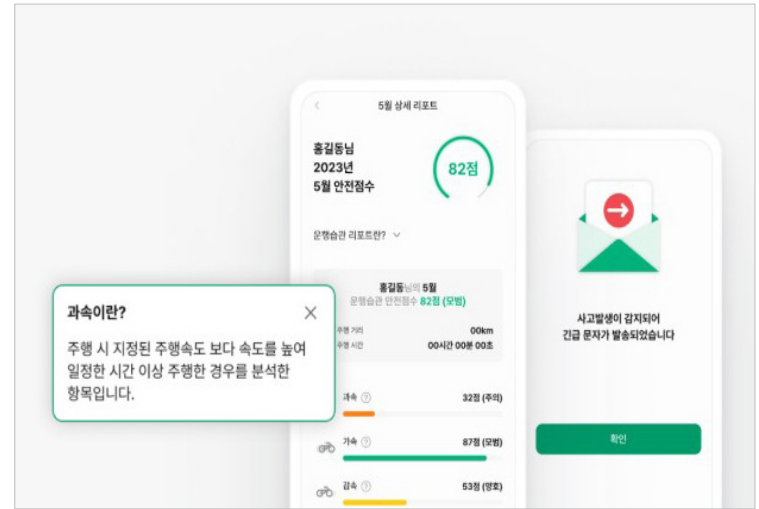
회사측은 "라이더로그는 기존 스마트워치 대비 AI 판단 오류율 0%를 자랑한다"며 "국내 유일 소방서와 연결된 구난 시스템도 자사의 강점"이라고 내세웠다.

현재 라이더로그는 서울시 은평구 전동보장구 안전관리 시스템, 충남 예산군 고령자 이륜차 사고자동 시스템, 경북 이륜차·농기계 사고 알림 시스템, 인도네시아 발리 관광객 대어 오토바이 안전관리 시스템, 이륜차 렌탈사를 위한 FMS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동남아 집중 공략...개인용 서비스 출시 예정

별따러가자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자사의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업명	별따러가자(Star Pickers)
대표자명	박추진·김경묵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라이더로그(RiderLog)·나드리(NADRI)
사업분야	· AI+모빌리티 · AI+보안 · AI+공공·스마트시티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엣지 AI·온디바이스 AI



내다보고 있다. 오토바이 등 모빌리티 활용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우선 진출, 인도네시아 외에 다른 동남아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발리섬 관광차량 안전관리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시장 진출을 완료했다. 회사는 해당 시장에서의 B2B 사업을 근거로 향후 오토바이 안전 및 도난을 관리하는 개인용 앱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3년 내 사용자 20만명을 확보하겠다는 목

표다. 해당 서비스는 사고 발생시 지정 사용자에게 실시간 사고 위치와 함께 알림 발송, 도난 시도 확인시 사용자에게 즉시 알림 발송, 도난 후 추적 기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추진 별따러가자 대표는 "라이더로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사회적 편익 증대의 효과를 검증했다"며 "AI와 IoT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된 라이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티아이랩, AI·디지털 기술로 도시교통 혁신 이끈다

###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 기반 안전·관리·운영 등 인사이트 제공

시티아이랩은 도시교통 정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기존의 관제 시스템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을 통해 자동 관제와 함께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하며 안전·관리·운영 등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인천 ITS·도로교통공단 등 다수 기관과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교통데이터 생성 및 신호 최적화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LG·현대건설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티아이랩은 AI 기술과 교통공학을 융합해 도로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문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주력 제품은 도로교통정보수집 솔루션 '시티아이', 신호 최적화 솔루션 '시티시그널', 화재전조 증상 및 감지 솔루션 '시티세이프'다. 시티아이는 가시광·열화상 영상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교통량, 속도, 제적을 실시간 수집하며 LDM 레이어4 형식으로 표준화한다. 시티시그널은 수집된 교통데이터를 활용해 AI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교차로별 신호를 자동 최적화하고 관제시스템과 연동해 운영 효율을 높인다.

시티세이프는 가시광·열화상·가스 센서를 결합한 멀티모달 이상 감지 기술로 전기차 화재 전조를 조기 탐지한다.

### 교통·안전 융합 AI 플랫폼으로 도약·제품·서비스 확장 추진

시티아이랩은 현재 AI 기반 교통데이터·신호 최적화 솔루션의 전국적 확산 및 글로벌 진출을 핵심 목표로 교통·안전 융합 AI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2년 내 차세대 AI 엣지·박스(AI Edge-Box)와 통합 도시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품 및 서비스 확장을 추진한다.

우선 기존 시티아이와 시티시그널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교통량 예측·혼잡 분석·사고 감지 등 지능형 교통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시티세이프2.0'을 통해 가시광·열화상·가스·진동·음향 센서를 융합한 다중센서 기반 화재 예방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생성된 교통 및 안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AI 기반 도시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개발해 스마트시티·산단·주차시설 등 다양한 도메인으로 확장하고, 아울러 말레이시아·사우디 등 해외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실증 및 SaaS형 서비스 모델을 추진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고도화와 서비스의 확장을 이룬 후에는 솔루션의 전국적 확산과 글로벌 진출에 집중한다.

기업명	시티아이랩(CITYEYELAB)
대표자명	정종우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시티아이(CITY.EYE)·시티시그널(CITY.SIGNAL)·시티세이프(CITY.SAFE)
사업분야	· AI+모빌리티 · AI+공공·스마트시티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모델 개발·배포·모니터링), AI API-SDK 개발, AI 경량화·최적화, 엣지 AI·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로보틱스·자율주행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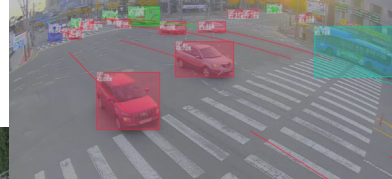
회사는 5년 내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플랫폼의 실증과 납품을 확대하며 교통량 분석·신호 운영·혼잡예측을 통합 제공하는 LDM 기반 모빌리티 데이터 허브로 발전시킬 전략이다.

또 AI 엣지·박스를 중심으로 엣지단 실시간 분석 생태계를 구축해 영상데이터의 로컬 처리·보안성·비용 효율성을 강화하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일체형 제품군으로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G·현대건설·도로공사·지자체 등 주요 파트너와의 협력 R&D 및 상용화 사업을 통해 TRL8 이상 수준의 기술 실증을 완료하고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말레이시아·사우디 등 해외 K-시티 뉴욕 및 스마트시티 수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우 시티아이랩 대표는 "시티아이, 시티시그널, 시티세이프 모두 AI 엣지·박스에서 저지연 추론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교통·안전 융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다"며 "플랫폼의 고도화와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속해 나아가 비전 AI 분야의 수출형 표준 모델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이브노틱스, 해양 AI 분야서 가장 유능한 '테크 파운드리'로 인정받을 것

회사명을 'AI-선박·AI-항해'에서 유래한 에이브노틱스는 해양 디지털화 및 디지털 혁신 기술을 시장에 제공하는 딥테크 기업이다.

### 코나와 챗씨로 해양사고! 및 선박 운영 안전·효율성↑

에이브노틱스는 해양 AI 및 IT분야에서 가장 유능한 '테크 파운드리(Tech Foundry)'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테크 파운드리로서 에이브노틱스는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제품 제조업체를 위한 기술을 개발한다. 이것이 더 안전한 항해와 친환경적인 해운을 위해 해양 항해를 혁신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에이브노틱스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협력함으로써 해양 분야의 오픈 혁신을 지원한다.

에이브노틱스는 AI 기반 해양 객체 탐지·분류·식별 및 표시 기술, 해양 디지털 정보 서비스 기술, 해양 애플리케이션의 연결 기술 3가지 기술 그룹을 제공한다.

에이브노틱스는 도로에서 네비게이션 교통안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항해

안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세대 해양 상항 인식 플랫폼 '코나(CON.AR)'와 챗씨(Ch@tSea)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코나는 소형선박을 주 대상으로 한 타깃 인식 및 추적 시스템이다.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융합해 자율운항을 지원한다. 대형선 대비 타깃을 추적하기 까다로운 소형선박을 다양한 센서 데이터로 극복했다. 장거리, 소형 물체 식별에 특화된 트레이닝된 코나의 비전 AI는 레이터가 지정하는 영역에 집중해 선박과 장애물을 탐지할 수 있다.

코나는 탐지한 항해안전정보를 다른 선박에게 공유할 수 있다. 공유되는 항해안전정보는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한 서비스가 챗씨다. 이 솔루션은 국제표준 기반 항해전용 개방형 글로벌 메시징 플랫폼으로 전세계 선박들이 안전한 데이터 교환망을 제공한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코나는 이미지만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비전시스템보다 27% 이상 향상된 탐지율과 104% 이상 증가한 탐지거리를 보인다. 야간, 안개 등의 상황에서 항해자에게 높은 타깃 인식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다.

챗씨 앱은 실제 항해에 나서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지만 그 서버는 전체를 고객으로 한다. 챗

기업명	에이브노틱스(AIVeNautics)
대표자명	박진형
설립연도	2023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코나(CON.AR)-챗씨(Ch@tSea)
사업분야	· AI+모빌리티: 자율주행·교통데이터 분석 등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로보틱스·자율주행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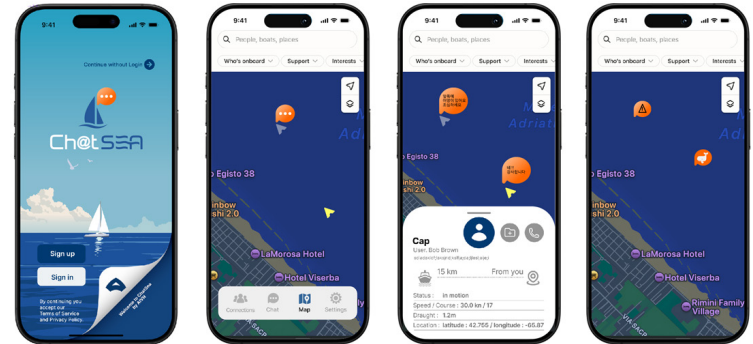
씨 서버는 코나와 코나를, 코나와 챗씨 앱간에 항해안전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도로 교통안전 서비스와 같이 육상에서 제공하는 항해안전정보의 전달 수단 역할을 한다.

### 국내 시장 테스트베드 마켓으로 선정 후 해외 단계적 진출

에이브노틱스는 2024년 유망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육성 지원 사업 대상 기업, 컴업 스타(COMEUP Stars) 2024 루키리그 100대 기업, 수자원공사 초기창업 패키지 창업기업에 연달아 선정되며 같은 해 서울 AI 허브에 입주했다.

에이브노틱스는 앞으로 중소형선박 자율항해 지원시스템 애드온(add-on) 상품화를 비롯해 생성형 AI 기반 항해의사결정 에이전트 출시,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 마켓으로 선정 후 해외 시장 단계적 진출, IMO-IALA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선도해 국제표준연계 확산, TRI·대학·해외 연구소와의 공동개발 및 실증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협력 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맥락 기반 인공지능(LLM) 융합, 자율항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에이전트 AI 기술 개발, 위치 기반 맞춤형 메시, 선박과 선박 및 선박과 육상 정보공유를 통한 항해지원 서비스 확장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온잇코리아, AI 기반 화물 운송 자동화로 신 물류 시대 주도



### 짐랄라, AI 기반 맞춤형 배차 지원으로 비용 절감 가능

온잇코리아는 2020년 설립 이래 첨단 IT 기술을 물류 산업에 접목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왔으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솔루션을 통해 기업 고객의 물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온잇코리아는 2020년 법인을 설립하고 2021년 B2C 이사·화물 서비스 '짐랄라'를 론칭했다.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펼치며 2023년 팀스(TIPS) R&D 기업에 선정됐다. 이후 2024년 기업 물류 IT 솔루션 '짐랄라 비즈'를 론칭했으며 2025년 누적 기업 고

객 200개사를 돌파했고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지속 성장 중이다.

짐랄라는 주소, 짐의 양, 이사 갈 장소의 구조를 입력하면 8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파트너의 견적을 최대 8개까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사 방법과 짐 입력이 세분화되어 이사일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을 낮췄으며 한번 입력한 짐을 데이터로 저장하여 반복되는 입력을 줄였다.

짐랄라는 소형이사부터 가정 이사, 기업 이사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고객의 소중한 물품을 운반한다. 짐랄라 서비스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고도화와 함께 기존 운송업자와의 화물 운송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짐랄라 비즈는 데이터 기반 화물 차량 및 기사 관리 기술을 고도화해 맞춤 AI 배차 서비스로 운송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용달, 고정, 소량 화

기업명	온잇코리아(Onitkorea)
대표자명	정승범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짐랄라(ZIMLALA) 짐랄라 비즈(ZIMLALA BIZ)
사업분야	· AI+모빌리티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물 등 화물 종류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한 차량을 배차한다. 급속 화물의 경우 다마스, 오토바이 등 배차를 통해 빠른 운송이 가능하도록 한다.

온잇코리아의 경로·기사 추천 알고리즘은 기업용 화물 운송 시장에서도 짐랄라 비즈 서비스로 활용된다. 2023년 10월 베타 버전을 출시한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운송업자와 화물 운송 파트너십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회사측은 "짐랄라 비즈 사용자 AI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경로와 배차 조건을 분석해 평균 2분 내 최적의 운송 수단을 배정할 수 있고 기업 맞춤형 예산 편성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의 운영을 최적화해 운임비를 10%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기술적 진입장벽 및 효율성·신뢰성 모두 갖춰

온잇코리아는 원격지 차량 관제 장치 시스템 및 방법, 화물운송비 견적 자동 산출 시스템 및 방법, 유사경로 내 효율적 운송 가능한 화물배차 시스템 및 방법 등 3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 중개 플랫폼이 아니라 AI 기반·특허 기반의 물류 최적화 기업으로서 기술적 진입장벽과 효율성, 신뢰성을

온잇코리아는 물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고객의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모두 갖춘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온잇코리아의 주 타겟은 국내 B2B 화물 운송 시장으로 중대형 화주 기업 및 물류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온잇코리아는 2026년을 목표로 동남아시아의 중 소형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B2B SaaS 형태로 진출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에서 화물 운송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물류기업 및 운송협회와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제품에 있어서도 서비스 UI/UX 개선, 적재율 계산 및 차량 추천 시스템, 다중 경로 배차 시스템, 기사 전문성 및 친절도 관리 시스템, 자동 정산 관리 시스템, 배차 금액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시스템, 운영팀 인력 및 인프라 확보 및 구축 등 기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소매, 상품 중개업, 가전·가구 제조사 등 신규 영역도 개척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갈 예정이다.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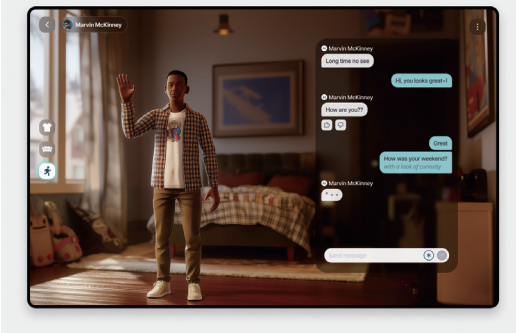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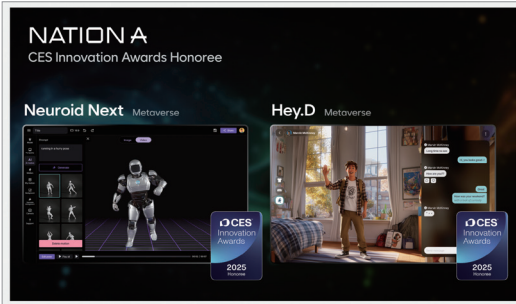
서울 AI 허브 2025-26

## AI + 미디어 콘텐츠

네이션에이(NationA)  
누리에에이아이(NURIE AI)  
마이공사(MYGONGSA)  
바이브존(Vibezone)  
브이다임(Vdigm)  
스튜디오프리윌루전(STUDIO FREEWILLUSION)  
스트럭툼(Structum)  
오노마에이아이(Onoma AI)  
워프스페이스(Warp Space Inc)  
이어가다(Eargada)  
일만백만(10kM.ai)  
테이아(Theia)  
튠닙(TUNiB)  
플라스크(PLASK)



## 네이션에이 “업무·학습·소통 방식에 혁명 일으키겠다”



### 네이션에이, CES서 인정받아...차세대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 구축

네이션에이는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 수상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네이션에이는 ‘CES 2026’에서 ‘최고 혁신상(Best of Innovation Award)’을 포함해 총 3개 부문 혁신상을 받

았다. 네이션에이는 CES 2026에서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부문 ‘최고혁신상’, 모바일 디바이스·액세서리&앱 부문 혁신상, XR&공간 컴퓨팅 부문 혁신상을 각각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뉴로이드(Neuroid)’는 누구나 쉽게 AI 기술로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돕는 기술 혁신성과 제품 비전을 높이 평가받았다. 뉴로이드는 3D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글자, 목소리, 비디오만 있으면 3차원 공간에 움직이는 3D로 몸 전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로이드를 이용하면 사이의 ‘강남스타일’ 노래의 말춤을 3D 콘텐츠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은 물론 개와 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움직임도 3D로 제작할 수 있다. 네이션에이는 이를 기반으로 AI-3D 콘텐츠 제작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차세대 콘텐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네이션에이의 또 하나 대표 제품인 ‘헤이디(Hey.D)’는 생성 AI 기반 3D 모션 모델과 대규

기업명	네이션에이(NationA)
대표자명	유수연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헤이디(Hey.D)-뉴로이드(Neuroid)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멀티모달 AI · AI 응용 분야 기술: 로보틱스·자율주행 AI

모 언어 모델(LLM)을 융합해 인간 중심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헤이디는 ‘3D 분야의 유튜브’를 비전으로 기획한 서비스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사용자 주도적인 3D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치 유튜브가 누구나 2D 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유를 할 수 있게 했듯이 네이션에이는 헤이디를 통해 누구나 3D 콘텐츠 제작과 공유를 하도록 하는 비전을 보여준다.

또 지금까지 사용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야만 했던 콘텐츠 전달 방식을 탈피해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직접 참여해 3D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하고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높은 몰입감과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 해외 매출 100억·글로벌 사용자 1억·기업 가치 100배 이상 성장 목표

네이션에이는 3D 데이터 제작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AI 기반으로 3D/4D 데이터를 제작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oftware as a Service, SaaS)로 제공하고 있다.

네이션에이는 인간의 움직임을 3D 데이터로 디지털화하고 이를 AI에 학습시키는 LAM(Large Action Model)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네이션에이는 이와 같은 솔루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며 한국어성별채팅회 협회장상, 중기부W-어워즈은행장상, 서울창업허브데모데이 최우수상, CES2024 혁신상 2개 부문, CES2025 혁신상 2개, CES2026 최고혁신상 등을 수상하며 국내 외에서 모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네이션에이는 앞으로 해외 매출 1000억 원 이상, 글로벌 사용자 1억 이상, 기업 가치 100배 이상 성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차세대 AI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및 글로벌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유수연 네이션에이 대표는 “3년 연속 CES 혁신상 수상으로 단발 성과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혁신 기술로 인정받게 됐다”며 “AI 기반 3D 기술을 통해 전세계인의 창작과 경험의 차원을 확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끊임없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 누리에에이아이, 직장서 생성AI 위한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 구축

누리에에이아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 업무 방식, 정보 처리 방식에 맞춰 작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개발한다.

### 데이터도 보호하며 AI 활용 가능한 암호화된 '볼트세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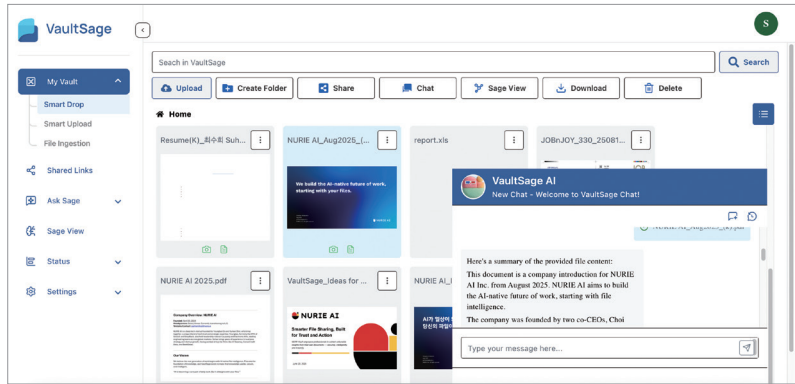
2024년 4월 설립된 누리에에이아이는 전문가들이 생성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이다.

첫 번째 제품 넷(NEPP)은 기업이 AI 도입시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 즉 민감한 파일 업로드로

인한 보안 위험, 환각으로 인한 낮은 신뢰성, 비용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주로 파일을 다루는 업무 방식을 인지하고 있는 누리 AI는 파일 기반 AI 사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기적인 비전은 기존의 파일 트리 구조를 넘어 지식을 체계화하는 '제2의 뇌'로 발전하는 것이다.

누리에에이아이가 최근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솔루션 '볼트세이지'는 AI 네이티브 드라이브(Native Drive)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암호화된 솔루션이다.

볼트세이지는 웨어포인트(SharePoint), 박스(Box), 드롭박스(Dropbox), 구글 드라이브



기업명	누리에에이아이(NURIE AI)
대표자명	도영태·최수희
설립연도	2024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볼트세이지(VaultSage)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비전-언어 모델(V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AI API·SDK 개발, 엣지 AI·온디바이스 AI

(Google Drive) 또는 로컬 서버 등 기존 파일 시스템에 연결해 내부 문서에 대한 대화형 AI 액세스를 제공하는 프라이빗 AI 솔루션이다. 볼트세이지는 파일이 이미 있는 곳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고급 권한 설정, 다중 인증 및 암호화된 공유 기능을 통해 볼트세이지를 사용하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 계약서, 스프레드시트, 이벤트 등 다양한 형식에서 파일 구조, 문서 계층 구조 및 내장된 관계를 이해한다.

한편 볼트세이지는 보안성을 갖춘 AI 에이전트 내장 파일 공유 솔루션 '스마트드롭(SmartDrop)', 업로드된 파일을 기반으로 질문에 즉시 답변하는 AI 서비스 '스마트앤써(SmartAnswer)', 콘텐츠·맥락·메타데이터 전반을 검색해 파일간 숨겨진 연결을 발견하고 내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AI가 찾아주는 '세이지뷰(SageView)', 자동으로 파일이 분류되고 파일이 저장될 폴더를 제안하는 '스마트업로드(SmartUpload)'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볼트세이지는 지난 2025년 5월 출시돼 8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아직 초기 단계의 제품이다. 하지만 국내를 비롯해 미국·대만·인도·캐나다에서 이미 2000명의 유저를 확보했

으며 특히 미국 고객 비중이 50%가 넘는다.

### "볼트세이지를 AI 네이티브 드라이브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 것"

누리에에이아이는 향후 볼트세이지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을 집중 타겟할 방침이다. 우선 B2C로 사업을 진행하며 수요를 검증하고 PMF를 정교화하며 브랜드 존재감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구축해 대규모 고객 확보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엔터프라이즈 PoC로 레퍼런스를 확보해가면서 고객사를 확보해가고자 한다. 더불어 웹사이트·온보딩·메시지를 현지화하며 SOC2 인증을 통해 신뢰를 강화한다.

누리에에이아이는 중기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 더욱 확장하고 다중 테넌트·고급 분석 기능을 추가하며 SaaS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미국 현지 세일즈 및 CS팀을 운영하고 SOC2·HIPAA 인증 등 주요 보안인증을 모두 완료해 본격적인 엔터프라이즈 진출을 가속화한다.

회사는 특히 장기적으로 볼트세이지를 AI 네이티브 드라이브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이 목표다.

## “상상 속 인테리어를 현실로” 마이공사, AI로 인테리어 패러다임 전환

마이공사는 AI와 3D 기술을 결합한 공간 스타일링 AI 서비스를 통해 상상 속 인테리어를 실제 공간 이미지에 매칭해 보는 기능을 지원한다.

### 데코라, 쉽고 간편하게 가구·마감재 배치...다양한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가능

마이공사는 사진 한 장으로 집, 사무실 등의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AI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마이공사가 제공하는 AI 서비스는 '데코라'로 상상만 하던 인테리어를 현실 인테리어에 적용해 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단 두 번의 클릭으로 실

제 공간 이미지에 원하는 가구와 마감재를 쉽고 빠르게 배치해볼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이 생성형 AI다.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기반 인페인팅(Inpainting) 모델을 자체적으로 파인튜닝해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자동으로 반영하거나 특정 가구를 제거·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공간 인식, 객체 제거, 자동 배경 생성 기술은 인테리어 제품 배치와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AI가 제거된 영역을 자연스럽게 채워 넣어 실제 공간과 유사한 결과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별도의 고사양 장치 없이 물입을 놓여주는 멀티뷰 AI 3D 공간 생성 기술인 '데코라 리얼



기업명	마이공사(MYGONGSA)
대표자명	양수영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Series C
주요제품	데코라(Decora)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비전-언어 모델(VLM)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X(Decora RealX), AI에 최적화된 추론 속도를 지원하는 엔비디아 텐서알티(TensorRT) 등으로 서비스의 빠른 처리와 높은 현실감 구현도 지원한다.

회사측은 사용 난이도가 큰 경쟁사 대비 간편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공간과 근접한 수준의 사실적 재현·기존 캐드(CAD) 및 AR 솔루션 대비 빠른 처리 속도·기업과 소비자 모두 적용 가능한 범용성 등에서 차별화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 공간 인식·객체 제거·3D 변환·디자이너 매칭·커머스까지...통합 플랫폼 구현

마이공사의 목표는 공간 인식·객체 제거·3D 변환·디자이너 매칭·커머스까지 이어지는 통합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다. AI 기반 지속적인 기술의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데이터 기반의 공간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내 AI 기반의 공간 구조 인식, 2D→3D 변환, 멀티뷰 3D 렌더링, CAD 자동 변환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 데코라 DB를 통해 축적되는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개인 맞춤형 추천과 AI 매칭시스템을 최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현재 개발된 데코라 솔루션을 시장에 내세워 브랜드 인지도를 확립한다. 2026년까지 MVP 확장과 B2B 시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내 선도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초기 매출 기반과 함께 브랜드 인지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이공사는 국내 선도 소파 제조기업과 협업을 통한 자사물 연동 출시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 점포 대상 AI 공간 스타일링 테스트베스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돌입해 B2B 영역에서 확보한 고객을 기반으로 B2C 서비스까지 확장하며 일반 소비자가 손쉽게 공간 스타일링과 커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출 구조를 구독료 중심에서 수수료 기반의 커머스 모델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글로벌시장에 본격 진입한다.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와 글로벌 매칭 시스템을 도입, 데코라 글로벌을 론칭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바이브존, AI·빅데이터·IoT·네트워크 기술 기반 엔터 산업에 신가치·경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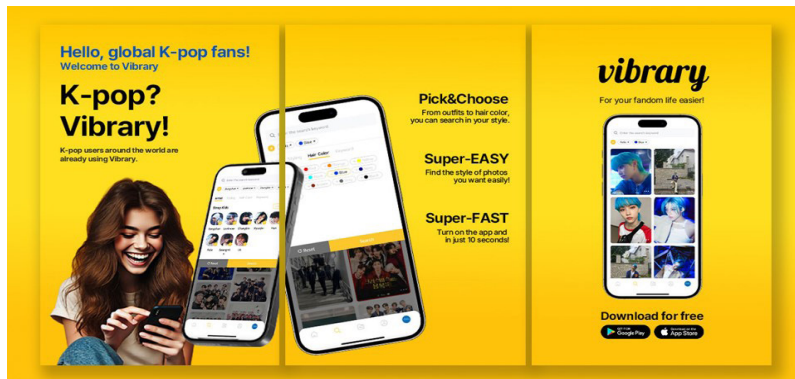
바이브존은 생성형 AI, 컴퓨터 비전, 콘텐츠 자동화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 글로벌 K팝 및 서브컬처 팬덤 타깃 비즈니스 전개

바이브존(Vibezone)은 생성형 AI(Generative AI) 및 컴퓨터비전(CV)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AI·가상인간·콘텐츠 자동화 등 AI 및 미디어·콘텐츠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바이브존은 특허 출원 9건(해외 3건) 및 특허 등록 4건(해외 1건), 그리고 특허 상표 7종을 확보

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K팝 및 서브컬처 팬덤을 타깃으로 사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브존은 현재 일본 자회사(Joint Ventrue) 설립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한편 바이브존은 프리(Pre)-A로 39억원 규모를 투자받아 R&D에 투자하고 있다. 바이브존은 K-컬처 팬덤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대형 IP(케이팝/드라마/스포츠)와의 공식 라이선스를 확대하고 스마트TV 연동 및 홈엔터테인먼트 UX를 표준화해 체류시간 및 ARPU를 증대하고 있으며 서브컬처 구독 플랫폼을 스케일업해 라이브 커뮤니케이션, 팬 게시판, 굿즈 연동을 통한, MAU 및 구독 전환율 중심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명	바이브존(Vibezone)
대표자명	박상범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바이브러리(Vibrary)·엑스굿즈(xGoods)·그라비아토(GraviAto)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 및 아키텍처·생성형 AI

또 NFC·렌티큘라·피규어·디지털 LP·콘텐츠 카드 등 IP 연계 굿즈 라인업을 확장하고 제작→유통→저작권 정산까지 일원화된 파이프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로드 및 수익화, 분석을 SaaS형 스튜디오로 고도화(팬 데이터 대시보드, 굿즈 자동 견적·제작, 로열티 정산)하고 수익배분율 개선으로 우수 창작자 유치할 예정이다.

### 팬이 원하는 아티스트 찾아주는 서비스 플랫폼 '바이브러리'

바이브존의 대표적인 제품에는 바이브러리(Vibrary), 엑스굿즈(xGoods), 그리고 그라비아토(GraviAto) 등이 있다. 우선 바이브러리는 팬들이 원하는 아티스트 이미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K팝 팬덤 콘텐츠에 메타 이미지를 입혀 추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바이브러리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적 이미지를 영상 콘텐츠로 변환할 수 있으며 NFC 굿즈 기반으로 스마트 TV 및 게스트 최적화로 '거실 점유'를 확보해 팬덤 접점을 확대할 수 있다. 또 K팝 전용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 이들 솔루션은 50만장 이상의 K팝 팬덤 콘텐츠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추천 시스템 및 검색 엔진을 제공한다.

엑스굿즈는 IP홀더 또는 창작자 협업 기반 NFC IoT 굿즈로 NFC 복제방지 기술 및 상품 판매후 콘텐츠 업로드와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직접 주문, 결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SaaS형 시스템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에 친화적 서비스다.

그라비아토는 아트 및 서브컬처 모델 콘텐츠 구독 서비스로 아날로그 중심 유통을 디지털화해 제공한다. 이와 함께 XR/AR/VR 제작 기술을 앞세워 생성형 AI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바이브존은 AI 이미지 분석으로 사용자 콘텐츠 자동 태그 생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TV, 스피커 등과 연동한 통합 홈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현재 바이브러리 모바일 앱 서비스 가입자는 200만명이며 삼성전자 스마트 TV내 바이브러리 앱 설치자는 600만명이다. 또 프린트 베이커리 물에서 유명 미술 작가 NFC 판화 6종이 판매 중(AI 도슨트)에 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선수, 배우, 아이돌, 작가 등이 엑스굿즈를 제작하거나 활용하고 있다. 양수영 마이공사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험을 바꾸는 것"이라며 "마이공사의 솔루션이 향후 인테리어와 건축 모두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브이다임, AI 아바타 기술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연다



### TIH, 감정을 표현하는 3D 아바타 구현...감성 소통 지원

브이다임은 개인형 실감 AI 아바타를 생성해 교육, 패션, 헬스케어, 메타버스 분야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아바타 튜터(교육), AI 아바타 스타일리스트(패션), AI 아바타

트레이너(헬스케어), AI 아바타 메타버스 게임 등의 솔루션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브이다임의 대표 솔루션 'TIH'는 대화(Talk)·상호작용(Interact)·인간화(Humanize)의 의미를 담은 AI NPC 서비스다. 이 솔루션은 3D 아바타의 생성부터 대본 및 자동 영상 제작 등 AI 버추얼 유튜버를 위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며 가장 큰 특징은 AI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3D 아바타의 모션으로 구현해 낸다는 점이다.

브이다임의 웹캠 기반 저비용 풀 모션 트래킹과 생성형 AI 아바타 기술이 이를 가능케 한다. 웹캠 기반 저비용 풀 모션 트래킹은 PC·모바일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동작, 표정, 손가락 움직임을 아바타로 복원한다. 텍스트나 대본의 감정을 파악해 아바타의 얼굴 표정과 제스처를 생성하고 텍스트를 모션으로 변환(TTM)하는 솔루션도 제공한다.

생성형 AI 아바타 기술은 가우시안 스플래팅(Gaussian Splatting)을 이용해 2D 이미지를 3D 아바타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3차원 복원한다. 또 에이전틱 AI를 활용한 AI NPC-AI 에이전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버추얼 스트리머와 팬덤간의 심도 있는 감성 소통을 지원한다.

회사측은 “브이다임은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3D 아바타로 표현하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쟁사 대비 1/100~1/1000 수준의 파격적인 저비용으로 제공하는 가격 우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명	브이다임(Vdigm)
대표자명	김영완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TIH(Talk·Interact·Humanize)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비전-언어 모델(V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엣지 AI·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로보틱스·자율주행 AI

### 엔비디아와 협력 AI 모션 플랫폼 새 지평 연다

브이다임은 엔비디아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NPC 모션 플랫폼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 북미 시장 20% 이상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3단계 전략을 내세운다.

1단계는 TIH의 풀 모션 트래킹(Full Motion Tracking) 서비스로 학습용 모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AI 모션 플랫폼(AI Motion Platform)을 구축하는 것이다. AI 모션 플랫폼을 구축해 로봇 훈련에 필요한 모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할 예정이다.

이후 2단계로 TIH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AI 모션(Humanoid Robot AI Motion) 훈련 플랫폼인 휴머노이드 로봇 AI 트윈 플랫폼(Humanoid Robot AI Twin Platform)을 런칭하며 글로벌 시장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회사는 엔비디아 엔업(N-UP) 프로그램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내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AI 트윈 플랫폼을 런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단계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TIH 서비스 기반 AI 트윈(AI Twin) 서비스를 탑재 또는 운

브이다임은 비주얼 AI 기술을 이용한 개인형 실감 AI 아바타를 만들어 메타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용하는 것이다. 2027년 AI NPC를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한 AI 트윈 플랫폼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완 브이다임 대표는 “TIH 서비스의 풀 모션 트래킹 기술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며 “AI NPC를 보조 MC나 팟캐스트(Podcast) 영상 자동 생성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수의 모델을 제시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NPC 모션 플랫폼으로 미래 시장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 스튜디오프리윌루전, AI·영상기술 융합 필름메이킹 패러다임 재정의

스튜디오프리윌루전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AI 영상 미디어 테크 기업이다.

### 생성형 AI 활용해 영상 제작 전과정 효율 ‘극대화’

스튜디오프리윌루전은 AI 기반 영상 제작 기술을 통해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혁신하고 있으며 AI와 영상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창작 방식을 선도하고 있다.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에서 대상과 관객상 2관왕을 수상했고 국내 최대 AI 영상 실증 사례를 보유하며 기술력과 실행력을 동시에 입증해 왔다.

스튜디오프리윌루전의 엑스펜자(Xpanza), 패스파인더(PathFinder), 테일러 더브(Taylor Dub), 비디오 투 폴레이(Video to Foley)는 AI 기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핵심 모듈이다.

엑스펜자는 비디오 아웃페인팅과 캔버스 익스펜션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비율로 영상을 확대할 수 있다. 패스핀더는 VFX 패스 익스트렉터 기술 기반의 AI 렌더링 프레임워크로 영상이나 이미지 속 장면 정보를 추론해 사실적인 이미지 합성을 지원한다.

타일러 더브는 AI 더블링 기술을 활용해 원본 한국어 발화를 타겟 언어로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서 원본 목소리와 유사하게 재현한다. 비디오 투 폴레이는 AI 사운드 이펙트 기술을 통해 영상 속 상호작용을 분석, 효과음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영상 제작의 모든 과정에 해당 모듈 적용시 기존 방식 대비 제작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또 빅테크 AI 모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단점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기술임을 강조했다.

해당 솔루션들은 AI 콘텐츠 전문 플랫폼인 ‘AI-키브(Kive)’에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다양한 규모의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튜디오프리윌루전, 북미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

스튜디오프리윌루전은 창업 이래 매년 5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국내 대기업과 공공서 등 다양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5년간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광고 대행사와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를 타겟으로 AI 콘텐츠 생태계·AI와 VFX를 융복합한 AFX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AI 기반 자체 IP를 발굴함과 동시에 AI 영상 제작 솔루션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통해 제작 시간과

기업명	스튜디오프리윌루전(STUDIO FREEWILLUSION)
대표자명	권한솔
설립연도	2023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 AI 엑스펜자(Xpanza) · 패스파인더(PathFinder) · 테일러 더브(Taylor Dub)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비전-언어 모델(V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멀티모달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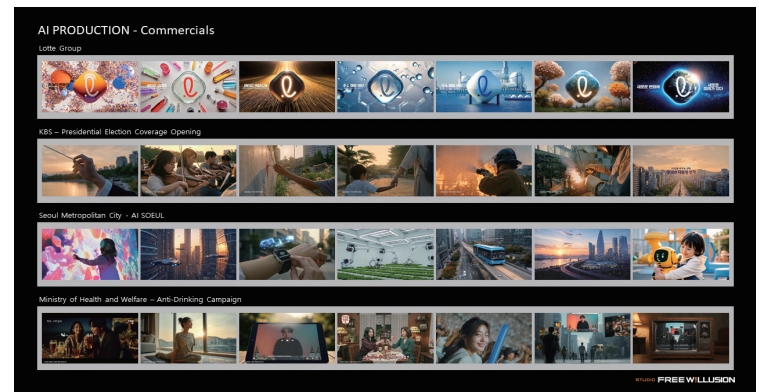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엑스펜자로 미디어아트, 미디어파사드 및 각종 OTT 플랫폼에 진출하고 AI-더블링으로 ODK 미디어의 OTT 플랫폼 및 각종 콘텐츠 AI 더빙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페스핀더로 VFX 업체와 PoC를 진행하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VFX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비디오 투 폴레이로 SFX 업체와 PoC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한솔 스튜디오프리윌루전 대표는 “북미 시장을 필두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확장

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성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AI 영상미디어 테크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회사는 자사 미국의 ODK 미디어, 루살카 필름 등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캐나다의 미라(MIL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엑스펜자 솔루션의 경우 CJ ENM과 CJ 4D플렉스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고 있고 타일러 더브의 경우 북미 OTT 플랫폼 ODK미디어와 MOU를 체결하고 PoC 진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자체 제작한 TV CF와 AI 필름을 통해서도 매출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 스트럭텀, AI 활용 신 패러다임 제시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

### 다양한 문서에서 정확한 레이아웃 추출 가능한 '시놉스튜디오'

스트럭텀은 에이전트가 활용할 도큐먼트AI 기술 등 스토리 기반 멀티에이전트 플랫폼 '시놉스튜디오(SynopStudio)'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은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그래프 기반의 시나리오 엔진은

이야기의 흐름을 노드와 엣지 단위로 구조화해 플레이어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동적으로 분기되는 스토리를 가능하게 한다.

둘째, 도큐먼트AI 기술을 바탕으로 외부의 비정형 정보

를 처리하고 이를 시나리오 맥락과 연계함으로써 에이전트가 실제 문서-데이터-콘텐츠와 연결된 지능적인 대화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별 대화 스타일과 AI 생성 이미지를 통합한 인터랙티브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경험의 몰입도를 높이고 외부 도구 연동을 통한 확장성은 심리상담·교육·창작 등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진출을 가능하게 한다.

### 기존 캐릭터 채팅 한계 극복 몰입감 있는 스토리 경험 제공

특히 시놉스튜디오는 기존 캐릭터 채팅이 가지는 서사적 한계를 극복해 몰입감 있는 스토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단순한 일회성 대화가 아니라 구조화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분기와 멀티엔딩이 가능한 내러티브 완결성을 보장한다. 또 도큐먼트AI를 통한 외부 정보 연계로 단순 오락을 넘어 교육·상담·업무 지원 등 실질적 효용성을 갖춘 대화형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다.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SDE 환경은 창작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콘텐츠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 콘텐츠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확장성과 다양한 도구 연동을 통해 대기업의 범용 서비스와 달

리 전문화된 세그먼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 2026년 영어·스페인어·일본어 중심 글로벌 시장 본격 진출

스트럭텀은 최근 몇 년간 도큐먼트 AI 솔루션(LayoutReadr) 및 스토리 콘텐츠 플랫폼(SynopStudio)을 개발했으며 조만간 이 두가지를 통합한 서비스 런칭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럭텀은 또 올해 국내 캐릭터 채팅 시장에서 시나리오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출시해 초기 사용자와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했으며 2026년엔

스트럭텀은 생성형 AI 및 가상인간, 콘텐츠 자동화 등 AI 기반의 미디어 솔루션과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다.

기업명	스트럭텀(Structum)
대표자명	백병인
설립연도	2023년
주요제품	시놉스튜디오(SynopStudio)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비전-언어 모델(V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이후 2027년부터는 교육, 상담, 의료와 같은 전문 도메인으로 확장해 멀티 도메인 챗봇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창작자를 위한 전용 시나리오 제작 환경을 제공해 창작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 모델을 강화해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나리오 그래프와 동적 프로토타입, 도구 연동 등 차별화된 기술을 통해 기존 캐릭터 챗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시나리오 표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계별 투자 유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빠른 시장 선점과 글로벌 확장을 실현하는 동시에 교육

기획 확대, 심리 지원,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스트럭텀은 향후 현재의 스토리 기반 캐릭터 채팅을 넘어 멀티모달 인터랙티브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텍스트·음성·이미지·영상이 결합된 실감형 스토리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큐먼트AI 기술과 결합해 외부 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석·반영할 수 있는 지식 연계형 에이전트를 개발해 교육·상담·업무 등 다양한 전문 도메인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나아가 크리에이터 도구(SDE)를 고도화해 협업 기능, 버전 관리, 자동 QA 등을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창작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IP 기반의 인터랙티브 웹툰·웹소설·게임 등으로 확장하여 차세대 스토리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고, 장기적으로는 B2B 기업 솔루션과 결합해 맞춤형 시뮬레이션·교육 서비스로 진화할 계획이다.



## 오노마에이아이, AI 기술 최전선 개척 고품질 창의적 콘텐츠 혁신

###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현실로”...AI로 웹툰·일러스트 제작 한 번에!

오노마에이아이는 AI 기술을 통해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적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사용자에게 가치, 만족,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노마에이아이는 올인원 웹툰 제작 솔루션인 투툰(Too Toon)과 이미지 생성 플랫폼인 ‘일러스트리우스(Illustrious)’ 2가지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키워드 입력만으로 줄거리, 시놉시스, 캐릭터 시트, 시나리오, 콘티, 완성 일러스트까지 제작할 수 있다. 특히 패블레이터(Fabulator)·아티팩스(Artifax)·아니마(Anima)·엠포리움(Emporium) 등 AI 기술을 적용한 기능으로 웹툰 제작의 자동화를 구현해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투툰의 핵심 이미지 생성 기술이자 독립적 플랫폼인 일러스트리우스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고해상도의 애니메이션 스타일 이미지를 빠르게 생성해준다. LoRA 온라인 학습, 멀티모달 입력, 프롬프트 최적화 기능을 모두 지원한다.

회사측은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기반의 고도화된 AI 모델을 통해 사용자의 텍스트 프롬프트를 고해상도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변환해준다”며 “특히 캐릭터 신체 부위, 복잡한

구도, 멀티 캐릭터, 스타일 재현 부분에서 기존 모델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AI SaaS 기업으로 도약할 것”...현지 공략 ‘가속화’

오노마에이아이는 향후 5년간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AI SaaS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신제품과 서비스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전략으로는 웹툰·애니메이션 제작 SaaS 고도화, 캐릭터 IP 채팅(Character IP Chatting)을 통한 팬덤 인터랙션 플랫폼 확장, 교육 및 아카데미(Education & Academy)를 통한 창작자 양성, AI 인프라와 SaaS(AI Infra & SaaS) 기반 B2B API 및 구독 모델 구축 등을 내세운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생태계를 선도해가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우선 국내 웹툰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투툰 도입을 확대하고 일러스트리우스를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친화적 브랜드로 성장시킬 예정이다.

이어 일본과 미국 등 핵심 시장에서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2026년까지 국내 5개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연간 5000명의 창작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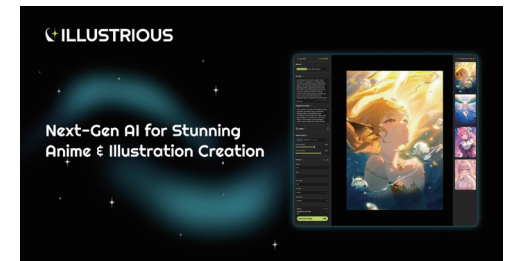
또 2027년까지 50개 이상의 캐릭터 IP를 확보하고 2028년까지 500개 이상의 SaaS 고객을

기업명	오노마에이아이(Onoma AI)
대표자명	송민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투툰(TooToon)·일러스트리우스(Illustrious)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멀티모달 AI

오노마에이아이는 AI 기술을 통해 창의력을 발굴하고 증폭시켜 예술가와 창작자들이 미적 탁월함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를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아울러 투툰과 일러스트리우스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자동화·스토리보드 제작·게임 아트웍까지 확장 가능한 신제품 개발도 진행한다. 특히 투툰의 애니메이션 고도화를 통해 풀컬러 애니메이션 장면 생성 기능을 가능케 해 웹툰뿐 아니라 영상 및 광고 제작 시장까지 진입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크리에이터와 스튜디오를 위한 캐릭터 IP 채팅(Character IP Chatting) 플랫폼을 출시하고 국내외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 연간 수천 명의 창작자를 양성하며 기업 고객을 위한 SaaS형 API와 구독 모델도 구축할 예정이다. 송민 오노마에이아이 대표는 “웹툰 산업은 현재 한국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어 초기 시장 확장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펼쳐 전 세계 창작자 생태계를 연결하는 AI 크리에이티브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워프스페이스, AI와 상상력의 경계를 허문다

### 20~30대 서브컬처 콘텐츠 선호 유저 타깃

워프스페이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기업으로 AI 기술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에 워프스페이스는 자연어처리(NLP)를 비롯해 음성인식·합성(STT·TTS), 추천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상표 등록 1건, 국내 상표 출원 1건, 미국 상표 출원 1건 등의 특허 관련 인증을 획득한 상태, 워프스페이스는 20~30대의 서브컬처 콘텐츠를 좋아하는 유저를 타깃해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으며 현재 해외 유저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미국, 일본, 대만을 중심으로 해외 유저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케이브덕, 단순한 도구 넘어 대화의 친구가 되다

워프스페이스의 비즈니스 중심에는 AI 컴퍼니언 서비스 '케이브덕(CAVEDUCK)'이 있다. 케이브덕은 사용자가 직접 AI 캐릭터를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고급 언어 모델과 이미지 생성 기술을 결합해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워프스페이스는 "케이브덕은 기존의 AI 채팅 서비스와 차별화된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며 사용자 맞춤형 캐릭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감정 교류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워프스페이스는 케이브덕에 단순한 문장 생성

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와 캐릭터간의 몰입감 있는 상호작용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했다. 먼저 '캐릭터 페르소나 기반 대화 엔진'으로 이는 크리에이터가 설정한 캐릭터의 성격, 세계관, 말투 등이 반영돼 동일한 질문에도 캐릭터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답변과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

워프스페이스는 AI 캐릭터 채팅 플랫폼 '케이브덕'을 운영하고 있는 AI 스타트업으로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대화 상태 추적 및 장기 기억 시스템은 채팅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에도 대화 흐름과 사용자 맥락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이전에 공유된 정보나 감정을 기억해 마치 실제 인격체와 대화하는 듯한 연속성을 제공한다.

워프스페이스의 AI 컴퍼니언 서비스는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 크리에이터가 직접 캐릭터와 세계관을 설계하고 유저가 몰입형 스토리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시장 내 차별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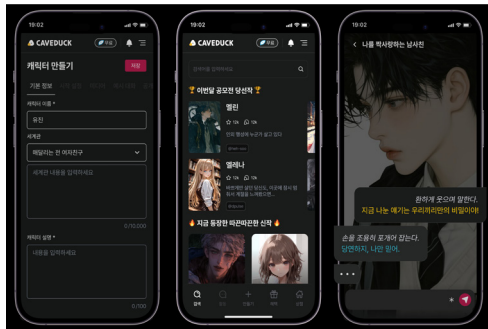
이에 커스텀 변수 기능을 통해 캐릭터의 성격, 관계, 이벤트 진행 상황이 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어 '호감도' 변수가 쌓이

기업명	워프스페이스(Warp Space Inc)
대표자명	김영빈
설립연도	2023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케이브덕(CAVEDUCK)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음성인식·합성(STT·TTS), 추천 시스템

면 이후 스토리 전개가 달라지는 식으로 일반적인 AI 챗봇 대비 훨씬 깊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 글로벌 AI 콘텐츠 창작 생태계 구축 목표

워프스페이스는 향후 글로벌 AI 콘텐츠 창작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3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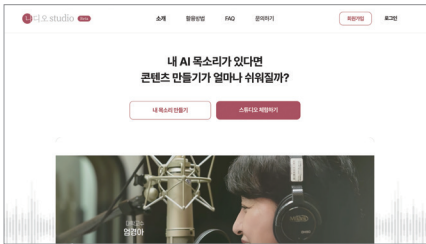


먼저 '기술 고도화'다. 이에 자체 언어 모델 개발과 더불어 제미니(Gemini) 2.5 프로(Pro), 클로드 소네트(Claude Sonnet) 시리즈 등 최신 LLM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최적화해 사용자에게 최고 수준의 대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창작자 중심 순환 시스템 강화'다. 현재의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이다. 현재 지원 중인 영어, 일본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전세계 사용자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케이브덕의 콘텐츠를 즐기고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어가다, AI 기반 오디오 플랫폼으로 콘텐츠 제작 혁신

이어가다는 AI 보이스 폰트 기반 오디오 콘텐츠 서비스 '나디오 스튜디오'로 오디오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나디오 스튜디오, AI 기술로 콘텐츠 제작 효율성 강화

'나디오 스튜디오'는 이어가다의 주력 콘텐츠 플랫폼 중 하나로 원하는 문장을 입력시 사용자의 음성을 합성한 AI 보이스 폰트(voice font)로 제작해주는 서비스다.

이어가다의 핵심 기술인 '제로샷(Text-to-Speech, TTS)' 합성 기술과 AI 멀티에이전트 기반 콘텐츠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빠르고 손쉽게 음성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AI 멀티에이전트 기술은 트렌드 분석, 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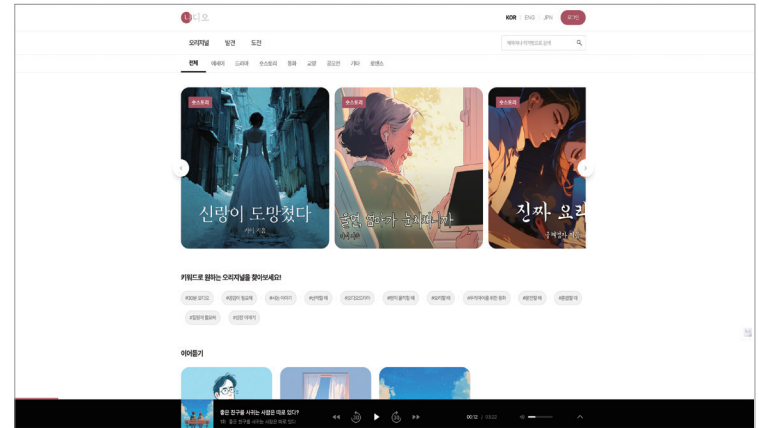
작성, 음성 변환, 영상 생성 등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자동화해 기존 대규모 인력이 필요했던 제작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바꿔준다.

이어가다측은 "기존 대규모 인력이 필요했던 콘텐츠 제작 과정을 AI 기술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콘텐츠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높은 제작 속도와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TTS 기술을 활용한 빠른 커스터마이징과 오리지널 IP의 자동화 생산·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술과 콘텐츠 IP를 동시에 보유, 장기적으로 복합적 경쟁 우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숏폼 자동화·다국어 지원 등 서비스 확장...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현재 이어가다는 AI 오디오 기능을 확장해 음성 콘텐츠를 자동으로 숏폼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 SaaS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크리에이터와 기업 모두 즉시 활용가능한 원스톱(One Stop) 콘텐츠 제작 톨로 발전,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이어가다는 오디오북 및 숏폼 유통사와 협력해 한국 IP의 해외 수출을 확대, IP 기반 매출 비중을 늘려 자체 제작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배급

기업명	이어가다(Eargada)
대표자명	박현아·최자인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나디오(Nadio)-나디오 스튜디오(Nadio Studio)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응용 분야 기술: 음성인식·합성(STT/TTS)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어가다는 이미 북미 시장에 진출해 스포티파이(Spotify), 오버드라이브(Overdrive) 등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시장의 경우 현지 플랫폼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시장진출 및 법인 설립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회사는 다국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제로샷 TTS를 확대하고 글로벌 IP 유통 플랫폼에 맞춤형으로 공급해 해외 시장 확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모빌리티 또는 관광 산업도 공략한다. 해당 분야에 최적화된 실시간 콘텐츠 공급을 목표로 차량 인포테인먼트와 웨어러블 기기에 콘텐츠 자동화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현아 이어가다 대표는 "기가지니, 조선일보 등 여러 기업에서 이미 자사 서비스를 활용해 음성 콘텐츠를 제작 중"이라며 "모빌리티 분야도 현재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PoC를 준비하는 단계로 차량 인포테인먼트에 실시간 오디오 및 숏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일만백만, 문서 대신 영상으로 배우고 양상으로 이해하는 시대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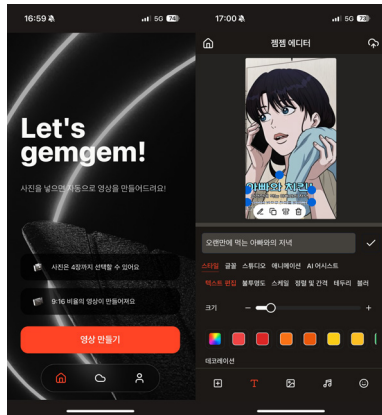
### 젼젼비디오, 영상 무한 생성부터 편집-배포까지 자동 생성 지원

일만백만은 AI 기반 기업용 영상 제작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으로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하는 영상 생성, 실시간 편집, 즉각적인 배포까지 기업 영상 제작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다.

일만백만의 주력 제품중 하나인 '젼젼비디오'는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 제작 솔루션이다. 사용자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AI 기술을 통해 원하는 영상으로 만들어준다. 기존 영상 제작을 위해 오랜 시간을 소요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상황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 일만백만은 AI 기술을 통해 이러한 영상 제작의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다. 픽스플로우(PixFlow), 픽스3D(Pix3D), 픽스캠(PixCam) 기술이 핵심이다. 픽스플로우는 생성된 키프레임(Keyframe)을 클립(Clip)으로 바꿔주고 데이터 피드백루프(Data FeedbackLoop)를 적용해 최대한 사용자의 의도를 담은 감성 영상의 생성을 돕는다.

픽스3D는 텍스트·이미지·비디오 등 사용자의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픽스캠은 영상 속 대상 인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추적해 직캠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며 마스크 기반 다양한 이펙트 효과를 넣어 영상을 제작, 또는 숏츠를 자동 생성하거나 플랫폼을 업로드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일만백만은 "스크립팅, 키프레이밍, 생성, 편집 등 4단계 자동 프로세스를 통해 복잡한 중간 과정 없이 완전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며 "타사 플랫폼이 개인 활용에만 집중해 B2B의 복잡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반면 젼

일만백만은 AI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메타 태깅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에 퍼져 있는 모든 영상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명	일만백만(10kM.ai)
대표자명	김유석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젼젼비디오(gemgem.video)-젼젼프로(gemgem.pro)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비전-언어 모델(VLM), 멀티모달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음성인식-합성(STT/TTS)

젼비디오는 브랜드별 맞춤 학습을 통한 특성 반영 영상 기술, 불륨 확장을 통한 마케팅 요구사항 충족 등 기업 브랜드 맞춤형 영상 제작을 위한 여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B2B 넘어 B2C로...매출 5배 성장 목표

현재 일만백만은 기존 B2B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B2C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젼젼비디오를 통해 개인 사용자 시장을 적극 개척하며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유지해 향후 5년 내 매출 5배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회사는 기존 고객 리셀링과 신규 산업 진출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2027년부터 B2C에서 B2B와 동등한 수준의 매출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영상 제작이 국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B2C 시장에 우선 집중하고 기존 B2B 레퍼런스도 지속 확장하며 국내 입지를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026년 동남아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2028년 북미 대형 계약 체결, 2029년 유럽 시장 확장을 통해 해외 매출 비중을 4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유럽 현지 기업과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해 B2B, B2B2C, AI SaaS로의 단계별 확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K-콘텐츠 열풍을 활용해 아시아 시장에 B2C를 확산시키고 북미와 유럽시장은 소규모 비즈니스와 개인 크리에이터를 타깃으로 조금씩 입지를 넓혀갈 예정이다.

김유석 일만백만 대표는 "텍스트의 시대는 저물고 모든 것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우리는 AI를 기반으로 높은 품질과 낮은 비용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고 향후 세상의 모든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5년 내 전체 기업 영상의 50%는 시로 제작될 것"이라며 "2030년 608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5년간 국내와 해외에서의 입지를 조금씩 강화해 나아가 글로벌 AI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 테이아 “디파트로 브랜드 운영 효율 혁신”

### 디자인·마케팅 최적화 브랜드 퍼포먼스 OS ‘디파트’

테이아는 신경망 모델을 활용해 ▲평가 대상 이미지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 ▲디자인 작업 플랫폼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 ▲디자인 작업 플랫폼에서의 디자인 작업 요청을 지원하는 방법 및 장치 등에 관련한 특허 미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성과 기반 성장을 추구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커머스 브랜드사를 주요 고객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 미국 기업 계약을 완료하며 2026년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테이아의 대표 솔루션 ‘디파트(De:part)’는 AI와 성과데이터를 활용해 브랜드의 SNS 콘텐츠 성과를 분석하고 디자인과 마케팅을 최적화하는 브랜드 퍼포먼스 OS다. 이는 브랜드 전략, 디자인 실행, 콘텐츠 성과를 통합 관리하는 SaaS형 운영체제다. 브랜드 퍼포먼스 중심의 통합형 OS 구조는 기획자, 마케터,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브랜드 운영의 분업화, 전문화를 통해 효율성과 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또 AI 분석을 통해 SNS 콘텐츠의 참여율, 전환율, 브랜드 지표를 실시간 측정 및 개선해 일반 마케팅 대비 평균 220~480% 이상 높은 퍼포먼스 성과를 달성한다. 브랜드의 성과데이터가

서울시 산하 서울 AI 허브 기업인 테이아는 201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국내 브랜드사의 브랜드 운영 효율을 높이는 SNS 브랜드 솔루션 ‘디파트’를 핵심 제품이자 주요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다.

디파트 OS에 지속 축적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담당자 변경이나 외주 파트너 교체와 무관하게 브랜드 자산이 체계적으로 누적 및 관리되는 구조를 형성, 이를 통해 기업은 성과 이력과 데이터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락인(LOCK-IN) 효과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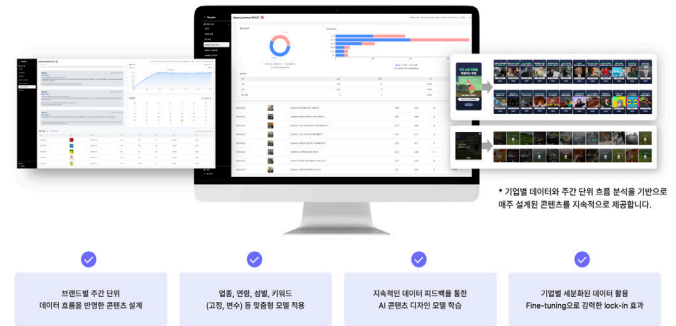
디파트는 기업은 감(感)에 의존하던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며 전략 수립부터 콘텐츠 디자인 실행, 성과 분석까지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 ROI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형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파트는 또 퍼포먼스 브랜드 운영을 위한 CaaS(Creative-as-a-Service) 플랫폼으로 AI 이미지 분석과 디자인 운영 시스템을 접목해 콘텐츠 제작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디파트는 감(感)에 의존하던 브랜드 운영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전략 수립부터 콘텐츠 디자인 실행, 성과 분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퍼포먼스 운영 사이클을 구축한

기업명	테이아(Theia)
대표자명	김서진
설립연도	2019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디파트(De:part)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개발·운영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 기획-제작-성과분석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Data Driven OS



다. 이를 통해 브랜드 ROI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채널 성장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또 퍼포먼스 브랜드를 위한 CaaS(Creative-as-a-Service) 플랫폼으로서 AI 이미지 분석과 디자인 운영 시스템을 결합해 콘텐츠 제작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운영 난이도가 높은 기업 및 브랜드 SNS 채널에서 일관된 성과 개선과 확장 가능한 채널 성장을 이끌며 빠르게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브랜드 운영 데이터 축적 모든 브랜드 활동이 표준화되는 생태계 구축**  
테이아는 국내 브랜드사의 브랜드 운영 효

율을 극대화해 디파트를 브랜드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OS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테이아는 디자이너가 단순 제작자를 넘어 브랜드 전략과 성과를 함께 설계하는 AI 엔지니어 역할로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며 브랜드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디파트 내에서 모든 브랜드 활동이 표준화되는 생태계 구축을 계획한다.

테이아는 또 현재 한국어 중심의 서비스에서 영어, 일본어 등 다국어 버전으로 언어 확장을 추진할 예정이며 글로벌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함께 사용하는 브랜드 OS로 진화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 튜립, ‘기술·윤리·감성’ 모두 갖춘 AI로 세상에 따뜻한 변화 조성

### SNS형 구조 AI 페르소나 콘텐츠 플랫폼 ‘디어메이트’

튜립은 AI 기술로 새로운 연결과 혁신을 만들어 가는 스타트업으로 AI와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차세대 SNS ‘디어메이트(DearMate)’,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의 필수 안전장치 ‘AI 윤리 가드레일’ 솔루션을 통해 더 스마트하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한다.

디어메이트는 단순한 챗봇 앱이 아닌 SNS형 구조의 AI 페르소나 콘텐츠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기존 챗봇 서비스들이 대부분 1:1 대화에 집중하는 반면 디어메이트는 AI가 유저와 함께 타임라인에 글을 쓰고 댓글을 주고받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또 100개 이상의 챗봇 페르소나가 캐릭터마다 개별 감정, 말투, 관심사,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유저들은 실제 친구처럼 선택해 대화할 수 있다. 튜립의 가드레일 기술은 자체 구축한 100개 이상의 위험 카테고리 기반 텍스트 분류 시스템과 범주형 위험도 점수화 모델(Risk Score Estimator)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BERT, KoElectra 기반 사전학습 모델과 FastText·정규식 기반 검출기를 조합해 정밀도 90% 이상의 검출 성능을 구현했다.

또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 OCR 및 멀티모달 확장을 위한 사전 실험을 완료했으며 기업마다 상이한 정책 기준에 맞게 위험성 점수, 블랙리스트 DB, 맥락 기반 필터 기준을 커스터마이징할

기업명	튜립(TUNiB)
대표자명	박규병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디어메이트(DearMate)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 디어메이트, AI 기반 감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글로벌 표준으로 성장시킨다

튜립은 2025년부터 ‘유저메이트 만들기’ 기능을 통해 유저가 직접 AI 챗봇을 생성하고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커뮤니티 기반의 UGC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페르소나 챗봇을 ‘SNS 캐릭터’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튜립은 설명했다.

또 다국어 자동번역, 페르소나 자동설계, 감정기억 고도화 등의 기술도 병행 개발 중이며 유료화 기능(프리미엄 챗봇/전용 아이템 등)도 도입 예정이다.

B2B 분야에선 챗봇을 위한 도메인별 지식 주입(Knowledge Injection), RAG 연동, CRM 연동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며 이를 SaaS 형태로 제공하는 방향도 준비 중이다.

튜립은 이와 함께 가드레일 솔루션을 통합 API 플랫폼화해 다양한 AI 서비스에 플러그인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할 계획이며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 내 텍스트(OCR), 음성(STT), 영상 자막 등 멀티모달 위험 검출 기능을 추가하고 기업의 도메인 특화 위험 표현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학습 자동화 기능도 개발 중이다.

나아가 GPT/클로드(Claude) 등 외부 API와

도 호환되는 사전·사후 필터 체인 구조를 구현해 안전한 AI 서비스를 위한 글로벌 표준 가드레일 솔루션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튜립은 향후 5년간 디어메이트를 AI 기반 감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글로벌 표준으로 성장시킬 방침이다

튜립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형 AI를 개발한다.

또 2026~2027년에는 유료 서비스 전환(프리미엄 챗봇, 감정 AI, 브랜드 챗봇 커스터마이징 등)을 통해 수익모델을 본격화하며 2028년까지는 누적 다운로드 1000만건, MAU 100만, B2B 고객사 100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2026년까지 Angel, St. Patrick, Safety Check 등의 가드레일 제품군을 API화 및 SaaS화해 B2B 고객에게 손쉽게 통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까지 도메인 특화 버전(금융, 교육, 의료 등)을 출시하고 2028년까지 가드레일 API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해 연 매출 50억원, 글로벌 API 호출 월 1000만회 이상을 달성할 예정이다.



## 플라스크, AI 기반 저비용·고품질 애니메이션 제작 툴셋 제공

플라스크는 사전 시각화 툴을 SaaS 형태로 개발해 웹 기반으로 실시간 협업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생성형 AI·가상인간·콘텐츠 자동화 기반 비즈니스

플라스크(PLASK)는 생성형 AI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총 22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생성형 AI 및 가상인간·콘텐츠 자동화 등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플라스크는 현재 게임 개발을 희망하는 인디 개발자 및 중·고·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원 및 창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북미·유럽 시장에서 인디 게임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및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 플랫폼 사용자, 글로벌 게임 퍼블리셔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크는 GDC(미국), IBC(유럽) 등 글로벌 전시회를 참가해 데모 체험존과 핸즈온 워크숍 운영을 통해 자사 솔루션을 널리 알리고 있으며 현지 리셀러 채널(유럽·북미) 및 교육 커리큘럼 도입을 통해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플라스크는 단기(1~2년)적으로 베타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크리에이터 보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전시회 참가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3~4년)적으로는 북미 및 유럽 리셀러 채널을 구축하고 교육기관 커리큘럼 내 공식적인 도입을 추진하며 분기별 온라인 해커톤을 운영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기(5년)적으로 글로벌 게임 제작 툴 시장 점유율 확대하는 것은 물론 ARR 기준 연평균 80% 이상 고성장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 웹 기반 AI 게임 제작·운영 플랫폼 '가마블'

플라스크의 대표 제품인 '가마블(Gamable)'은 웹 기반 AI 게임 제작·운영 플랫폼이다. 가마블은 라우저 IDE에서 게임을 제작 및 배포가 가능하며 실시간 협업·멀티플레이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가마블은 AI 어시스턴트를 기반으로 한다. 이 기능은 게임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기획 및 코드, 3D 리소스 생성, 그리고 디버깅을 자동화해 비전문가도 손쉽게 게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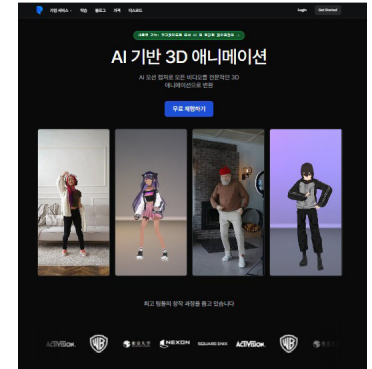
기업명	플라스크(PLASK)
대표자명	이준호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가마블(Gamable)
사업분야	· AI+미디어·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 및 아키텍처· 생성형 AI

또 ECS(Entity Component System) 기반 데이터 중심 구조를 채택해 복잡한 시스템도 모듈화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지보수와 확장성이 크게 향상된다. 그래픽 렌더링 측면에서는 BabylonJS와 웹 GPU 최적화 기술을 활용해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고성능 3D 렌더링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이러한 기술적 결합은 게임 제작의 장벽을 대폭 낮추고 크리에이터 친화적인 혁신 플랫폼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무설치 및 즉시 개발 환경을 제공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복잡한 세팅 없이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누구나 바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다.

이준호 플라스크 대표는 "가마블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즉시 게임을 만들고 친구와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며 "플라스크는 AI와 웹 기술을 통해 게임 제작의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이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스크는 앞으로 크리에이터 보상 프로그램을 신설 및 UGC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분기별 글로벌 온라인 해커톤 및 세미나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육 커리큘럼을 정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유럽 및 북미 지역에



리셀러 채널을 확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콘텐츠·SEO·세일즈팀 확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것이 플라스크의 계획이다.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5-26

## AI + 보안

넷록스(Netlox)  
퍼스널에이아이(Personal AI)  
피아스페이스(PIASPACE)



## 넷록스, 어떤 클라우드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한다

넷록스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심각한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 룩시LB, 강력한 로드 밸런싱 등 기반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강화

넷록스의 사명은 기존 네트워킹, 보안 및 가시성 인프라 환경을 어떤 클라우드로도 원활하고 안전하게 확장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분산된 네트워킹 및 보안 요소를 관리, 모니터링 및 최적화하는 것은 다양한 기업의 가장 큰 과제다. 넷록스는 eBPF(Enhanced Berkeley Packet Filter: 패킷 분석 등 커널 기능의 안전 및 효율적 확장을 위해 커널 소스 코드 변경 없이 OS 커널 공간 내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술)와 같은 기술을 사용해 성능이나 보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고품질의 경험과 이동성을 제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스택을 구축하고 있다.

넷록스는 eBPF 기술을 활용해 차별화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로드밸런서 ‘룩시LB(LoxiLB)’ 소프트웨어를 깃허브에 공개했다. 또 eBPF를 활용해 네트워킹, 보안, 트래픽 가시화 등 다양한

기능도 함께 개발하는 등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룩시LB는 원활한 통신, 동적 확장, 그리고 강력한 로드 밸런싱을 통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강화할 수 있다.

넷록스 플랫폼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러스터 전체 연결을 보장하며 고급 네트워크 정책을 구현해 귀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공개된 코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객 발굴과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넷록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상용 버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원이 필수로 기술 구독 관련 매출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록스 플랫폼은 특히 eBPF를 사용해 네트워킹, 스토리지 및 보안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든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와 통합 및 매우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MLOps 환경을 제공한다. 또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한 지능적이고 실시간 스트리밍 가시성을 제공한다.

룩시LB는 국내 주요 기업의 사업장 내 5G 서비스 클라우드 구성이나 IT 기업의 CNDR(클라우드 네이티브 다이어미터 라우팅 에이전트)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

기업명	넷록스(Netlox)
대표자명	공석환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룩시LB(LoxiLB)
사업분야	· AI+보안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옛지 AI·온디바이스 AI

퓨팅 재단(CNCF)의 샌드박스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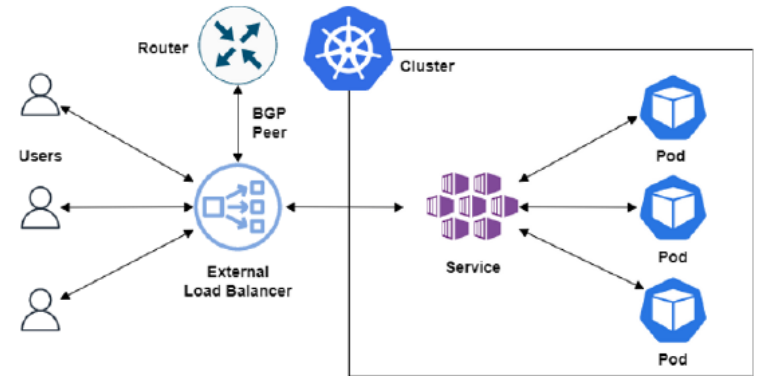
### “인큐베이팅으로 글로벌 표준 네이티브 기술로 자리잡겠다”

넷록스는 향후 CNCF의 지원으로 자사 기술을 검증하고 업계 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샌드박스를 넘어 인큐베이팅(사업 숙성지원)을 통해 글로벌 표준 네이티브 기술로 자리잡겠다는 포부다.

또 넷록스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인 사용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 중인 기업 PoC(개념증명) 종료 후 채널 확보를 통한 고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룩시LB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서비스 인프라 정보(로깅, 트레이싱, 메트릭)를 수집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서비스로 계속해 개발되고 있다. 또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운영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CNCF(Cloud Native Computing Foundation)의 샌드박스에 등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룩시LB를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솔루션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AWS, NHN, 네이버 등)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 퍼스널에이아이, '마이디'로 개인화 AI 제시 헬스데이터 주권 산도

### '마이디' 통해 데이터 안전하게 활용·수익 창출하는 개인화 경험 제공

퍼스널에이아이는 2025년 8월 기존 '에스앤피랩'에서 기업명을 변경했으며 온디바이스 기반 마이데이터 거래 플랫폼 서비스 '마이디(my:D)'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9년 12월 설립했으며 현재까지 28억3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퍼스널에이아이는 단순한 데이터 관리 기업이 아닌 **사용자의 데이터를 스스로 판단하고 활용 가치를 창출하는 '퍼스널 에이전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정보를 관리 및 통제할 주도권이 기업이나 플랫폼이 아닌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은 한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개인의 의사에 따라 제 3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퍼스널에이아이 '마이디(my:D)' 플랫폼은 개인과 기업을 위한 온디바이스 기반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마이디 앱을 통해 금융·건강·보험·쇼핑·검색기록 등 일상에서 생성되

는 데이터를 연결하고 기업의 데이터 거래 요청 시 사용자가 참여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마이디는 사용자가 일상 데이터를 안전하게 리워드와 함께 제공하여 데이터를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업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확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데이터는 서버나 클라우드가 아닌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반으로 사용자 디바이스에만 저장되며 거래시 기업의 온프레미스 서버로 암호화 상태로 실시간 전송된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 접근 이력과 동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위변조를 차단함으로써 탈중앙화된 데이터 통제를 구현한다.

화이트라벨 서비스를 통해 기업 앱에 마이데이터 솔루션 SDK를 탑재해 사용자의 행동·선호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맞춤형 콘텐츠·제품 추천 등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않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면서도 고객을 선별해 타겟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마이디는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온디바이스 기반 마이데이터 저장 및 분석 기술을 사용한다. LDP(Local Differential Privacy)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통계 정보로 변환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도 높은 신뢰도의 통계 데이

기업명	퍼스널에이아이(Personal AI)
대표자명	이재영
설립연도	2019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마이디(my:D)·마이디 커넥트(my:D CONNECT)
사업분야	· AI+보안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추천 시스템 · AI 인프라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AI, AI 보안-위협탐지



터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은 마이디 커넥트를 통해 사용자의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구매 및 분석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등록할 수 있다.

### 화려한 수상·사업 경력 기반 해외 진출 노린다

퍼스널에이아이는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경진대회 우수상, 마이데이터 액팅해커톤 최우수상, 시큐리티어워드 코리아스타트업 대상, 신SW 상품대상수상, 관광 벤처 우수상 및 관광 글로벌 장려상 및 경기도 마이데이

터 플랫폼 확장 구축, 이종산업간 마이데이터 전송,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 연구 및 가이드 라인 등 화려한 수상 경력과 사업 진행 경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퍼스널에이아이는 현재 미국 및 일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사업적으로는 마이데이터 기반 AI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향후 근로자 혹은 일반인 대상으로 웨어러블을 이용한 헬스케어 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복지·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피아스페이스, 모든 산업 현장·도시서 AI 기술로 안전 지키는 표준될 것

### 멀티모달 AI 활용 CCTV 솔루션 제공...복잡한 상황 인식·실시간 분석 구현

피아스페이스는 비전-언어모델(Vision-Language Model, VLM) 기반의 멀티모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의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전문 기업이다.

대표 솔루션은 'MACS(Multi-modal AI for CCTV Solution)'로 단순 모니터링 방식을 넘어 사용자가 입력한 사전에 프롬프트와 유사한 조건을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어 고도의 상황 대응 능력을 제공한다.

MACS는 이미 설치된 CCTV 시스템 내 AI 서버만 추가 설치해 차세대 멀티모달 인공지능형

CCTV로 전환할 수 있는 SW 중심의 CCTV 영상 분석 고도화 솔루션이다.

비디오/텍스트 추출(retrieval) 모델과 물체탐지 모델을 통합한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탐지된 객체(사람, 자동차 등)를 크롭(crop)한 후 비디오/텍스트 추출 모델의 2nd 인풋 스트림으로 피드해 객체의 행동과 상황을 추가 감지한다.

피아스페이스는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지능형 CCTV는 단일 모달리티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 특정 물체를 탐지하거나 기본적인 움직임 감지할 수는 있지만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상 상황을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MACS는 이를 커버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명	피아스페이스(PIASPACE)
대표자명	유현수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MACS
사업분야	· AI+보안, AI+공공-스마트시티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비전-언어 모델(VLM), 멀티모달 AI

### 멀티 레이어 제품 전략 기반 차별적 성장동력 구현

2021년에 설립된 피아스페이스는 기술적 차별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물체탐지 기반 CCTV 기술이 해결하지 못했던 복잡한 상황 인식과 실시간 분석을 구현하는 차세대 AI 기술로 영상 분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피아스페이스는 국내 다양한 영역에서 난도 높은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주요 구청 관제실의 화재, 쓰러짐, 폭력 상황, 재난 상황 탐지를 비롯해 고속화도로 터널 내 이상 상황 탐지, 국내 선도 이커머스 사업자의 대형 물류센터 내 이상 상황 탐지, 대형 항만 내 오탐 없는 침입, 밀수, 월담 등 규모가 큰 개별 수요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화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성과를 발판 삼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피아스페이스는 단일 구축형 모델에 한정되지 않고 소형 장치형·구독형·클라우드형으로 제품군을 확장해 대형 고객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수 고객으로 수의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MACS-X는 복잡한 관제 환경과 대규모 CCTV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조직에 최적화

된 모델로 지자체, 공사·공단, 대형 기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축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MACS-엣지는 파출소, 주민센터, 중소형 공공기관 등 소규모 현장 단위 고객에게 적합한 경량형 솔루션으로 개별 디바이스 단위로 판매되며 구독형 요금제를 통해 초기 도입 부담을 최소화한다.

피아스페이스는 첨단 AI 영상 분석 기술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며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MACS-SaaS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모델로 중소 B2B 기업이나 생활 보안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며 설치·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시간 이상 상황 탐지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피아스페이스는 “이와 같은 멀티 레이어 제품 전략을 통해 국내 대형 고객 확보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량 확산형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이는 곧 안전·보안 AI 솔루션의 대중화와 글로벌 표준화로 이어질 것이고 차별적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5-26

## AI + 제조

넥스톰(Nextorm)  
디엑스알(DXR)  
레졸루션(Rexolution)  
매크로액트(Macroact)  
모빅랩(MOVIC Lab)  
스웨번즈(Swevenz)  
아티젠스페이스(ArtygenSpace)  
에어로로보틱스이노베이션(Aero Robotics Innovations, ARI)  
에이뉴트(AiNEWT)  
에이아이구루(AI Guru)  
에이아이스타(AI Star)  
에임퓨처(AiM Future)  
임팩티브AI(Impactive AI)  
카이어(Kaier)  
틸다(Tilda)  
팀에브리웨어(Team-EveryWhere)  
파이미디어랩(Paimedialab)  
평행공간(Parallel Space)

## 넥스툼, AI 기반 디지털 혁신으로 디지털 전환·지능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다양한 신사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 지속 발굴할 것  
넥스툼은 변화하는 기술 생태계에서 선도자가 되기 위해 기존 기술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Rich Data, Easy Analysis'라는 슬로건 아래 넥스툼은 고객의 삶에 쉽고 유익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디지털 의료, 지능형 빌딩,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신사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넥스툼은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능화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 인도네시아 아시아 지역을 타깃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넥스툼은 이를 통해 2023년 18억원을 올리고 2024년에는 매출 120% 상승한 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5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외 3단계 체계적 전략으로 사업 승부수

넥스툼은 국내외의 사업 전략을 각각 3단계를 수립해 놓고 있다.  
먼저 국내의 경우 1단계는 2026년까지 스마트팩토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중소 제조기업 대상 PoC 프로젝트 수행, 기존 MES 미도입 기업 타깃으로 SaaS MES 도입 유도 및 무료 체험 프로그램 제공, 주요 IT·MES 기업과 협력해 B2B 채널 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2단계는 2028년까지 산업군별 맞춤형 솔루션 제공(자동차 부품, 반도체, 기계 제조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확장(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참여), 파트너사(유통망) 확대 및 VAR(Value Added Reseller) 모델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3단계로 2030까지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모델을 활용한 대기업 제조사 공략, 기존 ERP/MES 솔루션과의 연동 API 확장, AI 분석 기능 강화를 통한 프리미엄 고객 대상 SaaS 구독 모델 업셀링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기업명	넥스툼(Nextorm)
대표자명	김성중
설립연도	2019년
주요제품	xl-스토미(xl-STORMY)
사업분야	· AI+제조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넥스툼은 전문지식이 없거나 데이터가 부족하더라도 최적의 데이터조함과 스마트한 분석으로 최고의 AI 기반 제조현장 지능화를 실천하는 기업이다.



사결정할 수 있다.  
특히 xl-STORMY는 SaaS 기반의 구독형 구조를 채택해 설비 투자 없이도 저비용으로 빠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지 중소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 니즈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넥스툼은 xl-STORMY 외에 가상계측·가상센서 기반 지능화 및 공장 가동률 저하 요인 분석 솔루션 '이퀼스(eQuicks)', 설비 예방 보전 적시 관리·최적화 및 불필요한 설비 유지보수 최적화 솔루션 'MES&WMS', 수질정화 로봇 관제 시스템 '에코 트윈(ECO-TWIN)'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해외의 경우 1단계(~2027년) 스마트팩토리 도입률이 높은 일본 및 동남아 제조업체 공략·일본어 및 영어 지원 버전 개발 후 파일럿 테스트 진행·글로벌 제조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하노버 메세, CES 등), 2단계(~2029년) AWS 및 애저 글로벌 SaaS 마켓플레이스 등록·유럽 CE 인증 및 미국 NIST 보안 인증 등 획득·글로벌 신뢰성 확보·글로벌 제조 기업과 협업체 AI 기반 제조 혁신 솔루션으로 자리잡기, 3단계(~2030년) 현지 법인 설립 및 글로벌 B2B 파트너십 구축·SaaS 요금제 다국적 기업 맞춤형으로 최적화·AI 에이전트 기반 제조업 자동화 솔루션으로 자리매김 등으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넥스툼의 주력 솔루션은 LLM 기반의 AI 데이터 비서 서비스 'xl-STORMY'다. xl-STORMY는 엑셀과 같은 익숙한 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경량형 MES 시스템으로 중소 제조기업 실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AI 분석을 수행해 공장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AI 에이전트가 대시보드를 통해 분석 결과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경영자는 PC나 모바일에서 손쉽게 공장 상황을 확인하고 의

- LLM/sLM 기반의 제조 AI Agent
- 채택 방식의 쉬운 시스템 사용
- 공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 공장 내 다양한 문제의 원인 분석·해결
- 생산성, 품질, 가동률, 비용 등의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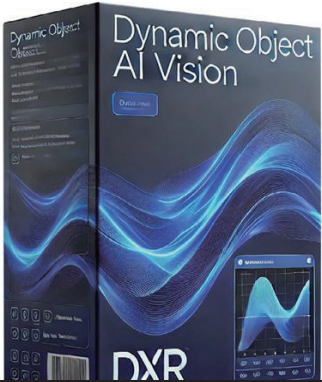


**AI 공장관리, AI 공장장 XlStormy**

넥스툼은 AI를 이용한 가상생산 장치 및 방법, AI를 이용한 가상계측 장치 및 방법, 메모리 데이터 그리드(Memory Data Grid)를 이용한 무손실 고속데이터 처리 관련, 대용량 고속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조 관련 등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배티



## 디엑스알, 'AI·비전·로보틱스' 컨트롤 기술로 미래 만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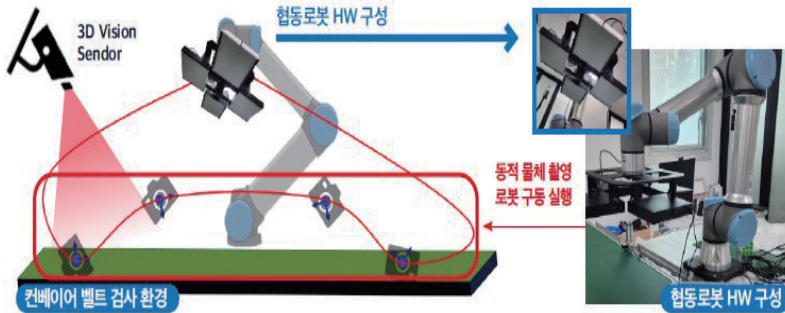
디엑스알은 다품종 비정형 공정의 자동화를 위해 AI, 비전 로봇 컨트롤 기술을 융합한 공정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AI 비전검사 자동화 솔루션 기반 품질검사-자동화 기술 선도

디엑스알(DXR)은 2022년 6월 설립된 AI 비전 검사 자동화 솔루션 전문 스타트업으로 주로 제조·3D프린터·생산관리 분야에서 AI 기반 품질검사 및 산업 자동화 기술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디엑스알은 품질검사, 산업 자동화, 비전검사 등 AI 비전검사 자동화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을 양위하고 있으며 가상 데이터 기반 '페이크 샷러닝(Fake Shot Learning)' 방식 및 협동 로봇 제어 등 첨단 AI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셋 구축 시간을 단축시키고 셋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디엑스알은 퍼스트 성장 프로그램, TIPS(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정부·민간 지원사업에 선정돼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



기업명	디엑스알(DXR)
대표자명	김은호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로브(RoV)
사업분야	· AI+제조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 예측 분석 모델링

### RoV, 비정형 제품 검사 자동화 가능

디엑스알의 주력 제품은 제조 공정 자동화 솔루션인 'RoV'다. 이 솔루션에는 3D 비전 물체 인식, 로봇 제어 및 경로생성, AI 비전(Vision) 비전검사 등이 기술이 적용돼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RoV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실시간 이동하는 물체 촬영부터 검사까지 진행되는 인라인 방식으로 다품종 비정형 제품을 예대 기준 검사 CT(Cycle Time)내 검사 자동화가 가능하다. 또 기존 양산 제품 맞춤형 비전검사 설비 및 제작의 한계 극복을 위해 3D 비전 기술 기반 제품 종류, 속도, 퍼스(Pose) 추정 기술을 적용해 다품종 제품의 분류가 가능하다.

기존의 고정식 AI 비전검사 시스템의 경우 굴곡·형태 비정형 제품 대상 각각도 촬영시 별도의 설비가 필요했던 반면 RoV는 일정한 카메라 초점거리 유지가 가능한 협동로봇 기반 비정형 제품의 검사 영역 스캐닝 기술을 통해 협동로봇에 카메라·조명을 설치, 실시간 검사 영역 스캐닝 기술을 통한 비정형 제품의 검사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협동로봇 구동 사이클(Cycle) 시간 내 수행 가능한 실시간 AI 비전검사 기술, 기존 제품 불량 부분의 직관적 확인이 어려

웠던 2D UI 모니터링 한계를 극복한 3D 투영 시각화(Visualization) 기술로 직관적 불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2028년 350억 매출 목표...IPO도 준비

디엑스알은 2025년 하반기 RoV 신규 솔루션 도입 계약 및 아이템 확장과 다양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025년 4분기에 프리(Pre) A 및 2026년 하반기 시리즈(Series) A 투자를 유치해 염두해 두고 있다.

이와 함께 R&D 지원사업과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솔루션 매출에 있어 2025년에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엑스알은 기술에 있어서도 2026년까지 보유 핵심 기술 고도화하고 2026년 상반기에 고도화 기술의 제품·상품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디엑스알은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2028년 35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PO도 준비할 예정이다.

디엑스알은 제품에 있어서도 향후 AI 피킹(Picking)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솔루션은 AI 비전 인식(2D, 3D)을 통해 주변 환경과 물체를 인식해 자동으로 타깃 물체를 피킹할 수 있다.

## AI와 함께하는 제조업 혁신 '레졸루션'이 걸어간다

레졸루션은 제조업에서 여전히 사람의 눈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는 검사 공정을 AI 비전 기술로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 PCB 어셈블리 검사 공정 자동화 및 가성불량 개선

레졸루션은 비전 AI 기반 PCB-A 검사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여전히 작업자의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PCB 어셈블리(Assembly) 검사 공정의 자동화 및 가성불량 개선을 통해 산업 내 존재하는 높은 퇴사율, 인력 적시 수급 한계, 부정확한 검사 결과 등의 문제점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혁 레졸루션 대표는 "AI가 PCB 어셈블리를 스스로 검사한다. 실제 납품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았고 그 점이 높게 평가된 것 같다"고 전했다.

### 연평균 2배 이상 매출 성장...2029년 연 매출 200억 이상 목표

레졸루션은 이처럼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REX2(3D 인라인 검사 장비) 상용화를 통해 대규모 EMS 고객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후 2D·3D 하이브리드 검사와 자동화 라인 통합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레졸루션은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 매출 기반을 확보한 후 베트남·중국 등 아시아 주요 PCB 강국을 시작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현지 인증(CL, KC, ISO 등)을 확보해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을 계획이다.

레졸루션은 올해 17억원 매출을 시작으로 연평균 2배 이상의 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목표

기업명	레졸루션(Resolution)
대표자명	김혁
설립연도	2024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랙스1(REX1)
사업분야	· AI+제조
기술분야	· AI 응용· 컴퓨터비전(CV)

를 세워 놓고 있다. 이를 통해 2029년엔 연 매출 200억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레졸루션은 데이터가 거의 없는 극초기 단계에서는 수십 장의 이미지만으로 학습이 가능한 '퓨샷러닝(Few-shot Learning)' 기술 및 MLOps 환경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검사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검사 신뢰성 99%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 REX1, 고해상도 PCB 이미지 단시간 분석·원클릭 검사 가능

레졸루션의 핵심 기술은 AI 기반 비전 검사 기술 'REX1'으로 슈퍼 리솔루션(Super Resolution)과 마이크로 디텍션(Micro Detection)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고해상도 PCB 이미지를 단시간에 분석하고 기존 규칙 입력이나 수작업 학습 없이 원클릭 검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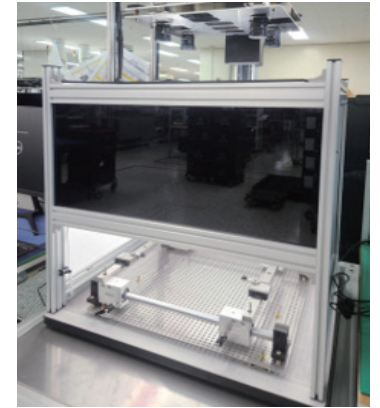
또 퓨샷러닝 기반의 신속한 모델 튜닝을 지원해 고객사별 결함 기준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MLOps 환경을 도입해 모델 버전 관리 및 데이터 클렌징 자동화를 실현했다. 이러한 기술력은 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작업자 의존도를 크게 줄이는 차별적 경쟁력이 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과 원격 업그레이드 기능을 제공해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확장성을 보장한다. 중견 EMS 기업 및 중소형 SMT 업체를 중심으로 도입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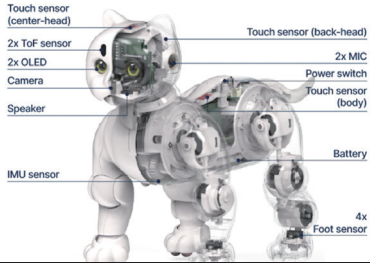
레졸루션은 REX1을 기반으로 2026년 REX2(3D 인라인 검사 장비)를 출시해 대형 EMS 라인을 타깃으로 할 계획이다. REX2는 자동 로더/언로더, 로봇암 연동 등을 통해 검사 자동화를 실현하고 대량 생산 라인에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의 속도와 정밀도를 제공한다.

장기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검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SaaS형 서비스 모델까지 확대,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범용 비전 검사 솔루션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매크로액트, AI 기반 로봇 시스템으로 산업 혁신



매크로액트는 로봇 시스템에 AI, ML, DL의 힘을 활용하는 통합 솔루션 개발을 전문으로 기업이다.

### 'AI+ML+DL'로 로봇 시스템 지능성·자율성·효율성 향상

AI를 활용하는 로봇 솔루션은 조직, 산업 또는 가정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한다. 매크로액트는 자사 솔루션이 AI, 머신러닝(ML), 딥러닝(DL) 기술을 통합해 로봇 시스템의 지능성, 자율성, 효율성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를 기반으로 매크로액트는 스마트 제조, 어류 및 가축 관리, 스마트 홈 리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복잡한 과제를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해결한다.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기술 발전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이 AI 혁신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매크로액트의 핵심 솔루션과 제품은 각각 '마이

다이나믹스(Maidynamics)'와 '마이캣(Maicat)'으로 마이다이나믹스는 제조 현장의 시뮬레이터와 강화학습을 통한 동적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며 마이캣은 ROS와 컴퓨터 비전을 적용한 4족 보행 로봇이다.

마이다이나믹스는 로봇 등 설비의 제원을 바탕으로 강화학습 및 제조 공정에 효율적인 로봇 궤적 및 동선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지보전 및 생산량 예측, 동적 디지털 트윈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어 기능 등을 제공한다.

특히 마이다이나믹스는 글로벌 제조 데이터 관리 기업과 협업 및 스마트팩토리의 허들이 되는 다양한 로봇 및 설비의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며 자체 시뮬레이터를 통해 오프라인(제조 현장 보안) 소프트웨어도 제공한다. 마이다이나믹스는 현재 독일의 글로벌 기업과 PoC 진행 후 소프트웨어 패키지 협업 중에 있다.

마이캣은 ROS2, SLAM, Kinematics, OpenCV 등 로봇의 주요 기능 탑재하고 있으며 센서를 활용한 자율 제어 구현이 가능하고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이용한 대화 및 교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Github를 통해 로봇 제어 개발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마이캣은 소형 완제품 4족 보행 로봇으로 나란장터에 등록된 유일한 제품이며 중·고·등 교과목(정보 및 공학 등)에 최적화된 실습 교구다.

마이캣은 국내 고등학교에 납품이 시작됐으며 정보, 기술(로봇 및 공학세계) 과목과 관련해 좋

기업명	매크로액트(Macroact)
대표자명	강의혁
설립연도	2019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마이다이나믹스(Maidynamics)·마이캣(Maicat)
사업분야	· AI+제조 · AI+교육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예측 분석 모델링, 로보틱스·자율주행 AI

은 교구로 인정받아 더욱 체계적인 튜토리얼 제작 중에 있다.

### 제조 분야 강화학습과 생성형 AI 융합으로 기술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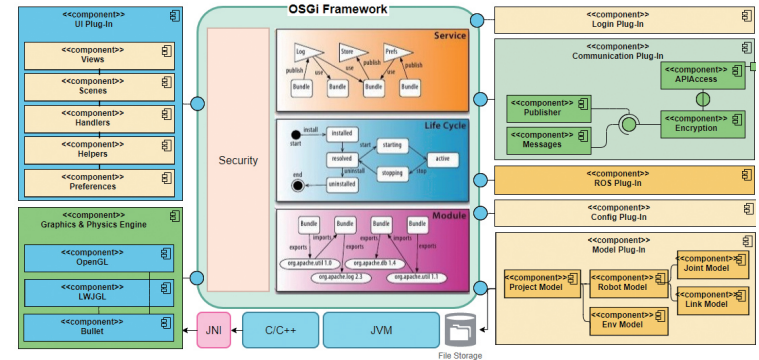
매크로액트는 2024년 마이캣에 대해 조달청과 129억원 규모의 제3차 단계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스마트홈 제품 및 솔루션의 B2G를 확장하고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취득 및 글로벌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까지 노리겠다는 목표다.

매크로액트는 또 자사 솔루션으로 국내 스마트팩토리 PoC 및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제조 분야의 강화학습과 생성형 AI 융합으로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도 솔루션과 제품에 있어서도 먼저 마이다이나믹스의 경 설비의 가상화 과정을 간단하게 처리할 생성형 AI 개발 및 다양한 제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강화학습 모델 고도화, 기존 제조 공정을 넘어 새로운 공장 설계 과정에 도입 가능한 솔루션으로 확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캣은 소형 자율 로봇의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대형 신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강의혁 대표는 "서울 SI 허브에 AI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지속적으로 국내의 기업 및 석학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해 줘 감사하다"며 "어려운 과정을 겪는 스타트업에게 주신 기회를 기반으로 매크로액트도 많은 기회를 베푸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 모빅랩, AI 기술 바탕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서비스 선도

### 왓치벳, 설비 고장 리스크 사전 예측...고정·이동형 모두 제공 현장 적용 용이

모빅랩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각종 산업용 신호(전류, 전압, 진동, 온도, 습도 등)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과 고성능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모빅랩은 산업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신호처리 기술력과 산업용 AI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모빅랩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설비 이상 감지의 AI 솔루션이 주요 서비스다.

이에 모빅랩은 지능형 설비 고장 진단(예지보전) AI 솔루션으로 설비에서 수집되는 초음파, 진동, 전류, 전압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비의 이상 작동과 고장 수명을 예측한다. 이 솔루션은 초음파를 활용해 가장 이른 시점의 고장 징후를 감지할 수 있고 회전체 외 다양한 설비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 지능형 문서의 누락 및 위반 사항 진단 AI 솔루션은 계약서 등 문서에서 OCR 엔진을 통해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장의 의미에 따라 이상을(누락 사항 감지, 위반 사항 감지 등) 탐지한다. 이 솔루션은 휴먼 에러를 줄여 고객에게 정확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급 인력의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

모빅랩의 핵심 제품은 '왓치벳'이다. 이 제품은 AI 기반 이상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음향신호를 수집하는 AI 엣지(Edge) 디바이스를 활용해 설비의 소음을 초음파 대역대까지 측정하고 딥러닝 기반 신호 패턴 분석으로 설비의 상태 및 고장 위험도를 예측한다.

특히 초음파 음향 특성과 설비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설비 이상을 조기에 진단이 핵심 기술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초음파 데이터 경량화 기술, 시계열 데이터 이상 탐지 알고리즘 등을 적용해 설비 상태의 정밀 분석과 이상 징후의 조기 진단을 돕는다.

회사측은 "초음파 신호 활용으로 기존의 진동·전류 기반 진단보다 훨씬 빠르게 이상 상태를 탐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접촉식 방식을 지원해 접촉식 설치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며 "제품을 고정형인 왓치벳과 이동형인 왓치벳 키트로 제공하고 있어 현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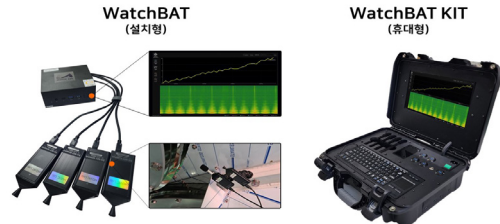
### 모빅랩, 글로벌 산업 AI 솔루션 기업 목표로 시장 진출 가속화

모빅랩은 현재 국내 PoC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특히 유

기업명	모빅랩(MOVIC Lab)
대표자명	이원근
설립연도	2017년
주요제품	왓치벳(WatchBAT), 왓치벳 키트(WatchBAT KIT)
사업분야	· AI+제조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엣지 AI-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예측 분석 모델링

럽, 아시아, 북미권을 중심으로 해외 파트너 및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본격적인 해외 매출 확대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시장 홍보를 진행하며 현지 PoC를 진행하고 주요 제조국에 현지 지사를 설립 후 현지에 맞춤형 SaaS 개발을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유럽 시장은 독일을 중심으로 현지 PoC를 우선 추진하고 북미 시장은 현지 파트너 및 벤더와 협력해 대형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시장은 최근 일본의 현지 기업들과 MOU 체결 후 테스트 협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이원근 모빅랩 대표는 "이미 각국 전시회 참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북미와 유럽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기술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산업 AI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웨벤즈, AI 기반 인터포저 설계·해석 솔루션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 인터포저Si, AI 기반 최적화로 대규모 인터포저 설계 혁신 지원

스웨벤즈의 인터포저Si는 인터포저 신호선 구조 및 배치를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이다. 기존 3D EM 해석 방식이 갖는 대규모 채널 분석에서의 느린 속도에 대한 한계를 혼합형 수치해석 파이프라인을 적용해 빠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스웨벤즈는 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또 라인폭·간격·리턴 경로 등 설계 제약을 직접 파라미터화해 탐색 및 최적화를 자동화하며 UCle 및 HBM 특화 시나리오 템플릿을 제공해 초기 설정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인터포저 설계의 핵심 기술은 인터포저 전송선로 해석 프로세스, 해석 파라미터 DB, 아이 다이어그램 기반 최적화, 시각화·리포트 자동화다. 전송선로 해석 프로세스는 3D 풀웨이브 EM 결과와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 모델 축약으로 해석 시간을 단축시키고 해석 파라미터 DB는 라인·간격·레이어·스택업 조합별 채널 해석 결과를 DB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 다이어그램 기반 최적화 기능은 아이 폭과 높이를 활용해 최적 배치를 추천하는 알고리즘 개발을 지원하며 시각화 및 리포트 자동화 기능은 주파수 특성, 아이 패턴, 권고 스택업, 배선 규칙을 자동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스웨벤즈는 앞으로 1차 개발 완료된 인터포저Si의 해석 성능 ALC UX 최적화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신호전달 특성 해석 DB 구축으로 설계부터 아이 다이어그램 분석, 리포트까지 구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레이아웃 자동화 수요에 대응해 인터포저 자동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품화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스웨벤즈는 인터포저Si 외에도 소비자 검색의도 기반 AI 마케팅 인텔리전스 서비스 플랫폼 '컨슈머인서치'를 운영하고 있다. 컨슈머인서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데이터 생성 자동화로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플랫폼 서비스다. 데이터 수집, 정제, 의미 기반 검색 통계량 및 트렌드 특성 파악 등을 자동화했다.

컨슈머인서치는 5가지 핵심 기능으로 브랜드·제품 마케팅 전략 방향을 도출한다. 브랜드 지수(BRAND INDEX)의 경우 경쟁 브랜드와의 검색량 비교 및 분석을 통해 각 브랜드의 비중과 구매 과정에서의 검색량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 역할이다.

급증하는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 수요 변화 및 향후 시장 전망을 예측(HOT TREND)하고 고객

기업명 스웨벤즈(Swevenz)  
대표자명 이우진  
설립연도 2022년  
주요제품 인터포저Si(InterposerSi)  
사업분야 AI+제조  
기술분야 AI 응용 분야 기술: 예측 분석 모델링  
AI 인프라·보안: AI 반도체·GPU 가속 기술

구매 여정 단계별 주요 비교 속성을 분석해 소비자 니즈를 분석(INSIGHT)한다. 이외에도 주요 속성, 여정 단계별 경쟁 브랜드와 검색량 비교를 통해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COMPETITION)한다. 과거 마케팅 활동의 성과와 시장 이슈를 분석해 향후 마케팅 전략에 반영(TRACKING)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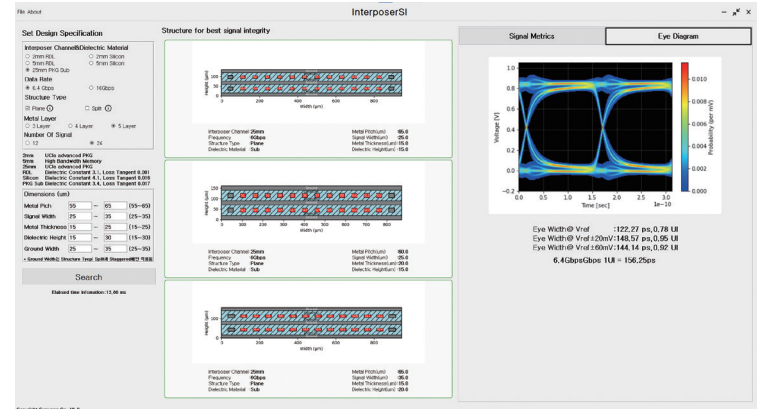
### 스웨벤즈, 설계·해석 자동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 본격 추진

현재 스웨벤즈는 국내 OSAT 협업을 통해 UCle 인터포저 다변량 설계 신호 전달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1차 개발을 완료한 인터포저Si의 해석 성능과 UX를 최적화하고, 신호 전달 특성 DB를 구축해 설계 단계에서 아이 다이어그램 분석과 리포트 생성이 가능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향후 배선 수가 많은 인터포저의 자동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오토-라우터(Auto-Router)를 개발하고 이를 인터포저Si와 통합할 예정이다.

DEF/LEF, 터치스톤(Touchstone)/CSV, 파이썬(Python) API 등 EDA 연계를 통해 기존 툴체인과 무정지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아티젠스페이스, AI·AR 결합 콘텐츠로 독서 학습 신 지평 연다



**북스토리, AI 분석 기술로 사용자 독서 몰입감↑**  
아티젠스페이스는 증강현실(AR) 및 AI 기술 전문 스타트업으로 'CES 2025' AI 부문 혁신상에 선정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교육, 커머스, 산업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 매체 및 기업들의 호평 속에 AR 및 AI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

아티젠스페이스의 핵심 솔루션인 독서 플랫폼 '북스토리'는 어린이의 문해력 향상과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개발된 디지털 독서 서비스다. 그림책의 글자를 분석해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목소리로 낭독할 뿐 아니라 이야기 흐름에 맞춘 시각적 효과와 배경음악, 퀴즈를 더함으로써 사용자가 독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아티젠스페이스의 핵심 기술인 '아티(Arti)'다. AI 기반의 AR 인텔리전스 기술로 첨단 OCR과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 속 텍스트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관련 시각 및 청각 효과도 더해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몰입형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현재 경기도서관에 납품해 독서 격차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는 중이다. 회사측은 향후 다른 지자체와 전국 도서관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다국어 문서 인식 및 텍스트 교정을 하는 '클리어(CLEAR)', 프롭트 기반 객체 감지 및 멀티 객체 처리 등을 지원하는 '멀지(MERGE)', 언어간 매핑 및 다차원 분석을 통한 추천 '넥시스(NEXIS) RAG', 메타데이터 강화 및 개인화 추천 등을 지원하는 '캣츠(CATS)' 기술들이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의 결합으로 북스토리는 사용자 맞춤형 독서 경험을 완성하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 공공 교육시장 본격 공략...현지 맞춤형 콘텐츠로 글로벌 진출 추진

현재 아티젠스페이스는 공공 교육시설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필수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납품 확대에 나서고 있다.

기업명	아티젠스페이스(ArtygenSpace)
대표자명	서영선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북스토리(Bookstory)
사업분야	· AI+제조, AI+교육 · AI+미디어 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개발-운영 기술: AI API-SDK 개발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우선 경기도서관 어린이존에 태블릿 형태로 플랫폼을 설치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와 도서관으로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한다. 아티젠스페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일본 등 교육열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언어와 교육과정에 맞춘 콘텐츠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향후 글로벌 출판사와의 협력을 통해 플랫폼 내 도서 콘텐츠를 확대하고 가정용 서비스로도 영역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플랫폼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아티젠스페이스는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해 북스토리2.0 버전의 스토리메이트(StoryMate)도 개발 중이다. 유아동을 타겟으로 한 기존 플랫폼과 달리 성인까지 아우르는 지능형 독서 및 학습 플랫폼으로의 확장 버전으로 사용자의 학습 목적과 패턴에 맞춰 함께 성장하는 퍼스널 AI 캐릭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와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독서 습관과 정보 습득 환경을 제안하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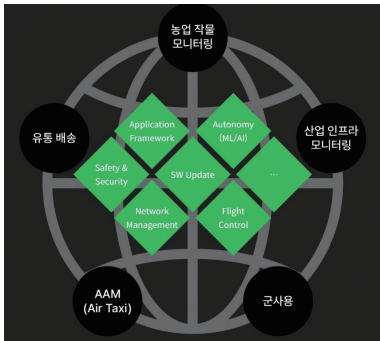
아티젠스페이스는 R&D 중심의 선도적 스타트업으로 증강현실(AR)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한다.



서영선 아티젠스페이스 대표는 "AI 기반 개인 맞춤형 독서 분석과 학습 데이터 리포트 기능을 고도화해 단순한 읽기 보조 도구가 아닌 학습 필수 플랫폼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5년 내 글로벌 교육시장에서 '머스트해브(Must-have)' 교육 애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 ARI, 안전한 자율비행 기술 혁신으로 삶에 편리성 제공

에어로로보틱스이노베이션은 3차원 시맨틱 맵 기반의 비주얼 내비게이션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술 혁신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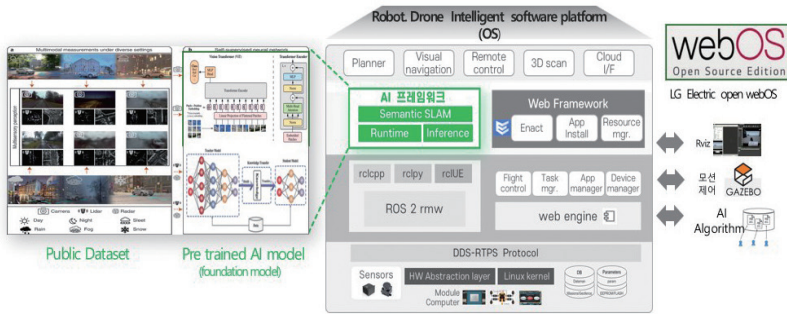


### 온디바이스-피지컬 AI 등 통합 AI 프레임워크로 자율 검사·AI 로봇 시장 선도

에어로로보틱스이노베이션(ARI)은 드론과 로봇이 동적인 환경에서도 복잡한 임무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피지컬(Physical) AI 기술을 통합한 'AI 프레임워크(framework)'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군용, 산업용 자율 검사 및 AI 로봇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

독자적인 '3D 시맨틱 비주얼 내비게이션 AI 시스템(NeoCortex)'을 통해 드론과 로봇에 인간 수준의 공간 인지 및 자율 행동 능력을 부여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ARI는 자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GPU 가속 컴퓨팅을 활용해 드론·로봇의 실시간 위치를 정밀하



기업명	에어로로보틱스이노베이션(Aero Robotics Innovations, ARI)
대표자명	강배근
설립연도	2023년
주요제품	엔요 AI 드론(Enyo AI Drone)
사업분야	· AI+제조, AI+모빌리티, · AI+공공·스마트시티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비전-언어 모델(VLM) · AI 개발-운영 기술: 옛지 AI-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로보틱스-자율주행 AI

게 추정하고 3D 지도를 생성하는 '고성능 비주얼 슬램(SLAM)',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의 한계를 넘어 RGB 카메라-덱스 센서 등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융합해 3D 공간의 의미론적(Semantic) 문맥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AI 모델 '멀티 모달 에피센트ViT(Multi-modal EfficientViT)', 비주얼 슬램으로 생성된 3D 지도에 에피센트ViT가 분석한 시맨틱 정보를 결합해 드론·로봇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 지'를 의미적으로 이해하는 지도를 실시간으로 구축하는 '3D 시맨틱 맵핑', 3D 시맨틱 맵을 기반으로 복잡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경로를 계획하고 강화학습 기반의 행동 제어 정책을 통해 돌발 상황에 대처하며 자율 임무를 수행하는 '비주얼 내비게이션' 등의 기술 요소들을 통합한 '모듈식 AI 프레임워크'를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듈식 AI 통합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드론 및 로봇 플랫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고도화된 3D 시맨틱 공간 인지는 단순 장애물 회피를 넘어 산업설비 및 구조물 점검 작업등의 잠재적 위험 평가 등 공간의 의미론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복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한다.

### 파트너들과 협력 '로봇·드론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장 목표

ARI는 비주얼 내비게이션 AI 시스템이 탑재된 고성능 AI 드론 '엔요 AI(Enyo AI)' 시제품을 개발중에 있으며 2026년 9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또 엔요 AI 드론 출시 이후 제품 판매 및 웹 OS AI SaaS 서비스 매출을 본격화해 글로벌 매출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드론 및 로봇 제조사에 자사의 AI 프레임워크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라이선스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 국내 A사 드론, B사 로봇에 탑재 협의 중이다.

더불어 AI 드론을 활용한 인프라 3D 스캔,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 서비스, 즉 자율 검사 서비스(SaaS)를 클라우드 기반 구독 모델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RI는 장기적으로 LG전자 등 파트너사와 협력해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쉽게 통합하고 응용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로봇·드론 인텔리전트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강배근 에어로로보틱스이노베이션 대표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잃지 않고서 힘든 여정이지만 글로벌을 향해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해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에이뉴트, 세상 모든 데이터 가치 높이는 데 앞장

에이뉴트는 다양한 분야의 AI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으로 분야별 목적과 기술적 특성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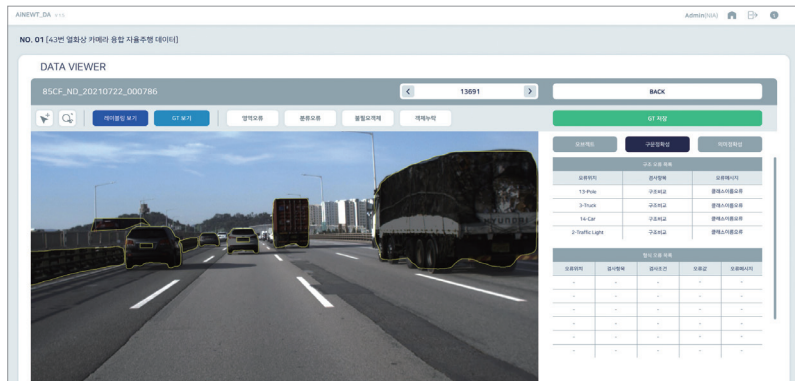
### 데이터-AI 연결 위한 데이터 밸류체인 기술 제공

에이뉴트는 데이터 검수부터 고속 검색까지 기업의 인공지능(AI) 모델 활용을 돕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데이터 전처리(모두, MODU), 데이터 생성·검증(다, DA), 멀티 에이전트 운영기술(하다, HADA), 응용 AI

솔루션(제니스(ZENIS)·미소(MISO)) 등 모든 주기 AI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보안, 공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AI 밸류체인 플랫폼(모두·다·하다 기반 기술)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하며 차별성을 확보했다.

모두(MODU)·다(DA)·하다(HADA)는 DA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모든 처리와 인공지능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플랫폼 솔루션이며 모두·다·하다를 조합해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이뉴트는 데이터와 AI를 연결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정제·가공·품질검증·서비스 구축의 모든 주기를 통합 제어할 수 있는 데이터 밸류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람 중심으로 작성된 문서·영상·이미지·동영상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



기업명	에이뉴트(AiNEWT)
대표자명	박상현·조민택
설립연도	2021년
주요제품	모두(MODU)·다(DA)·하다(HADA)/제니스(ZENIS)·미소(MISO)/교감AI
사업분야	· AI+제조, AI+교육 · AI+미디어 콘텐츠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모델 개발·배포·모니터링),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음성인식·합성(STT/TTS)

도록 하는 라벨링, 온톨로지 구축, 메타데이터 구축, 임베딩 등의 자동 전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또 기존 데이터 변환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컨텍스트 보존 비식별화(PPRL) 기술, 데이터간의 연관성과 논리적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그래프, 시맨틱 라벨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밸류체인 기술들을 고객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 단위로 분류하고 이들을 조합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시마다 에이전트 단위로 기술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에이전트 풀을 강화하고 있다.

에이뉴트는 AX 전환을 위해 기존 사람 중심의 내부 데이터(문서, 로그 기록 등) 기반 AI 서비스 구축을 원하는 기업·기관, 사람 중심의 데이터를 이미 AI와 공유할 수 있게 데이터 변환 및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AI 서비스 개발이 어려운 기업·기관, 기존 구축된 AI 서비스의 성능 향상과 새로운 기능 추가가 필요하지만 내부 개발이 어려운 기업·기관, LLM 중심의 멀

티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개발을 원하는 기업·기관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 에이뉴트 “한국의 팔란티어 되겠다”... ‘1=111 개발’ 계획 기반 사업 수행

에이뉴트는 데이터 품질검증 기반 AI 기업으로 창업했지만 한국의 ‘팔란티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팔란티어와 같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AI를 연결하는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기에 ‘1=111 개발’이라는 자체 수행 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111 개발 계획은 하나의 과제당 한 종류 이상의 데이터 모든 처리, 1개 이상의 AI 모델 개발, 1개 이상의 미니 솔루션 개발을 의미하며 사업의 범위와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과제에 적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1=111을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 개발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에이뉴트는 현재 브라질 파라나주 교육부와 진행 중인 ‘AaaS for PE’ 프로젝트에 참여해 AI 기반 학생 맞춤형 문제 생성 및 평가 AI 솔루션 PoC 진행 중이며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파라과이, 베트남, 태국 기업들과 협업 논의 진행 중이다.

## 에이아이구루, 제조업 미래 AI 기술로 혁신한다

**AI 기반 산업 특화 솔루션으로 제조 운영 효율↑**  
에이아이구루는 스마트팩토리 지능화를 위한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로 기업이 직면한 상황과 문제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 제공한다. 이때 머신러닝 및 딥러닝, 데이터 분석 및 처리, 공장 최적화 기술 등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구루 인사이트, 구루 인스펙트, 구루 오퍼레이트, 구루 스피ن 등의 솔루션을 개발·제공하고 있다.

에이아이구루는 제조업의 디지털 변환을 선도하며 AI를 통해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루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의 최종 수율을 예측해 초기 또는 추가 투입량을 계산하고 적시 생산의 달성과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정 이물 추적 AI 개발도 가능해 이물 분석 데이터를 입력시 AI 모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사한 이물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다. 구루 인스펙트는 제조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와 결함 검출을 자동화해 보다 쉽게 불량 제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며 구루 오퍼레이트는 에너지 관리·안전 관리 등의 기능을 통해 설비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루 스피ンは 데이터 기반 AI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사측은 “제조기업에서 AI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겪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해 제조기업에서 직면한 문제에 따라 필요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해 제공하며 실질적인 효과와 투자 수익률을 달성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 “국내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 하겠다”

에이아이구루는 많은 제조기업이 AI에 대한 이해 부족, 인프라 부족 등으로 AI 솔루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에이아이구루가 지닌 차별점은 제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보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한 경험으로 제조업 현장과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고객의 도메인과 문제에 기반한 맞춤형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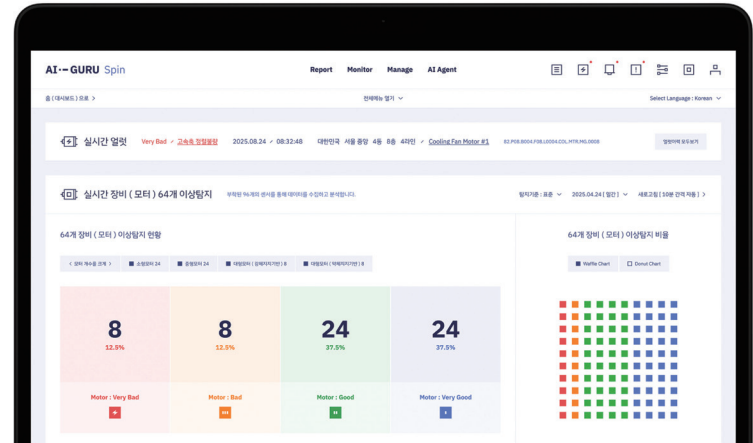
에이아이구루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에이아이구루는 제품 출시 이후 투자 유치 및 R&D 인력 추가 확보·레퍼런스 기반 솔루션 추가 확보·수익 모델 다각화를 목표로 해왔다. 그간 보유 솔루션들의 레퍼런스 사례를 지속 발굴 해왔으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도 창출해내고 있다.

수익 모델의 다각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 중이다. 회사는 구루 오피스, 구루 디자인을 추가

기업명	에이아이구루(AI Guru)
대표자명	박재영
설립연도	2023년
주요제품	구루 인사이트(Guru Insight)·구루 인스펙트(Guru Inspect)·구루 오퍼레이트(Guru Operate)·구루 스피ن(Guru Spin)
사업분야	· AI+제조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모델 개발·배포·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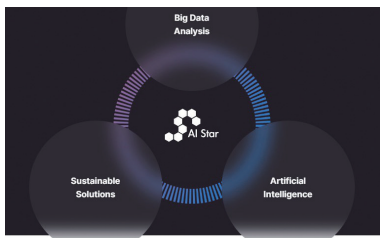
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루 오피스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해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루 디자인 솔루션은 설계 프로세스에서 AI를 활용해 주어진 설계 목표와 제약 조건에 따라 여러 설계 옵션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디자인을 제안한다. 박재영 에이아이구루 대표는 “AI 기술을 통해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

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솔루션을 지속 개발해 나가고 있다”며 “해의 시장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스마트팩토리 지능화를 선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일본과 베트남을 타깃으로 글로벌 시장을 우선 공략할 계획이다. 또 향후 5년 간 다양한 제조 산업으로 고객군을 확장하고 AI 적용을 위한 기획 및 컨설팅부터 인프라까지 구축해 AI 솔루션에 이르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에이아이스타, AI로 신소재·신약 발견 지속가능한 혁신 선도



### AI 기반 효율적 신소재·신약 개발 추구... '스위프트 매트릭스·딥 디스커버리'가 핵심

에이아이스타는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중시해 신소재와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신소재 및 신약 개발을 추구한다. 에이아이스타는 혁신적인 자체 AI 기술을 활용해 연구 실험실 환경에서 소재 발견 과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후보 물질을 발굴하며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에이아이스타의 장기적 전략 중심에는 '스위프트 매트릭스(Swift Matrix)·딥 디스커버리(Deep Discovery)' 솔루션이 있다. 스위프트 매트릭스는 웹 기반 SaaS 플랫폼 형태로 제공되는 신소재 탐색 솔루션이다. 사용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소재 빅데이터와 AI 예측 엔진에 접근해 원하는 소재(특히 2차전지 소재)의 물성예측 리포트와 신규 후보 소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딥 디스커버리 역시 통합 웹서비스로 제공되며 단백질 서열을 입력하면 AI가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고 이에 적합한 신약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AI 신약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위프트 매트릭스와 딥 디스커버리 모두 API 연동 및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기업 연구환경에 쉽게 통합할 수 있다.

### 우주 소재까지 포함 광범위한 신소재 개발 영역으로 확장 추진

에이아이스타는 설립 초기 바이오 분야 AI 전문 기업인 바이오에이아이에서 출발해 현재는 AI 기반 신소재·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향후 스위프트 매트릭스 플랫폼을 배터리 소재를 넘어 반도체 공정 소재, 수소연료전지 촉매, 탄소 저감 신소재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재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데이터셋을 확충해 소재 발견부터 물성예측, 합성 경로 최적화, 실험 조건 추천까지 소재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딥 디스커버리 플랫폼 또한 기존 신약 개발 지원기능을 넘어 단백질 치료제, 펩타이드 신약, 프로텍(PROTAC) 등 최신 바이오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AI 예측 모델로 개발하고 생성형 AI 기반의 디노보 디자인과 임상 성공률 예측까지 아우르는 신약 개발 전주기 지원 솔루션으로

기업명	에이아이스타(AI Star)
대표자명	장우정
설립연도	2023년
주요제품	스위프트 매트릭스(Swift Matrix)·딥 디스커버리(Deep Discovery)
사업분야	· AI+제조 · AI+환경 에너지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AI API-SDK 개발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추천 시스템, 예측 분석 모델링

고도화할 것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웹 플랫폼 외에도 API-온프레미스 설치형 서비스로 확대해 대기업의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고 다국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더 나아가 에이아이스타는 KAIST를 비롯한 국내외 대학, 출연연, 글로벌 기업과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세대 우주산업에서 요구되는 신소재 개발과 우주 제조 응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회사는 과거 바이오에이아이 시절부터 축적해 온 AI 기반 데이터 처리·예측 역량을 토대

에이아이스타는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해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로 배터리·반도체·수소연료전지 촉매뿐 아니라 우주 소재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신소재 개발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배터리와 바이오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유망산업의 핵심인 신소재 전반을 아우르는 AI 혁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해결책】 AI 기반 신소재 개발 플랫폼 Swift Matrix**

소재과학의 구글 맵 Swift Matrix : 기존 R&D 방식에서 개발 기간 단축 · 비용 절감 · 정확도 향상  
최적화부터 상용화까지 이차전지 AI 모델 적용 물성 예측 AI 모델 신뢰도 검증 완료

Swift Matrix 신소재 AI 플랫폼

인공지능 기반 신소재 물성 효과 추론으로 배터리 등 신소재 개발 기간/비용 절감 높은 정확도의 솔루션

신소재 개발 연구원

물성 소재 탐색 내역상/일/일도

Swift Matrix 신소재 AI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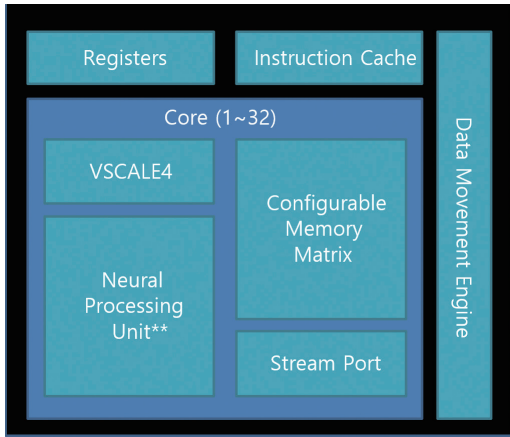
소재 물성 분석 리포트

실험 횟수 80% ↓  
기간 70% ↓  
비용 60% ↓

©2025 AI Star Inc. All Rights Reserved



## 에임퓨처, 엣지 AI 애플리케이션에 최고 품질 기술·서비스 제공 최대 고객 가치 달성



**AI 처리에 특화된 NPU 아키텍처 기술 ‘뉴로모자이크 프로세서’**  
에임퓨처는 AI 연산을 위한 NPU(신경망 처리장치) 하드웨어를 IP(설계 자산) 형태로 공급하는 기업이다.

에임퓨처가 제공하는 주요 솔루션은 NPU 가속기 하드웨어 ‘뉴로모자이크(NeuroMosAIC) 프로세서’와 이를 구동 시키는 소프트웨어 ‘뉴로모자이크 스튜디오(NeuroMosAIC Studio)’다.

이 솔루션들은 컴퓨터 비전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준다.

신경망처리장치로 불리는 NPU는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학습, 추론을 담당하며 AI 처리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로 CPU나 GPU보다 전력을 덜 소모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뉴로모자이크 하드웨어 프로세서는 NMP-300, NMP-500, NMP-700 시리즈 등이 있다.

에임퓨처가 보유한 뉴로모자이크 프로세서 기술은 AI 처리에 특화된 NPU 아키텍처 기술을 의미한다. 뉴로모자이크는 요구성능이 서로 다른 다양한 시장 또는 애플리케이션(IoT, 스마트홈, 스마트 공장, 로봇틱스,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및 자율주행 등)에 효율적으로 적용가능한 확장성과 다양한 인공지능을 동시에 처리하게 해주는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유연성을 갖춘 NPU 기술이다. 또 고객사의 칩 면적에 대한 최적의 PPA(Power, Performance, Area)를 선택하게 해주는 구성성을 제공함으로써 팹리스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주는 특징을 제공한다.

에임퓨처의 AI SoC 칩과 보드를 기반으로 한 제품은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저전력이면서도 고성능을 보장한다. 기존 GPU를 사용한 시스템 대비 전력 소모가 낮아 팬이 필요 없게 되고 이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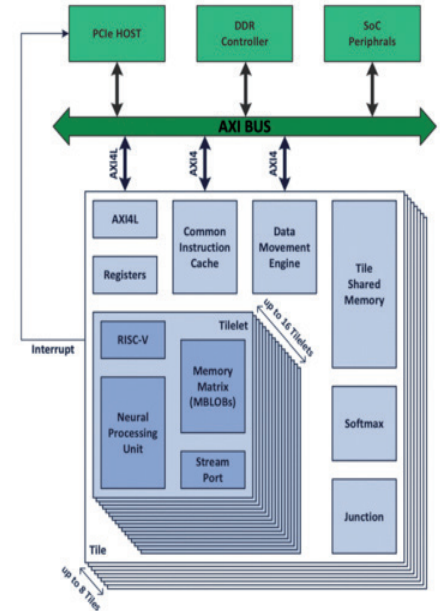
기업명	에임퓨처(AiM Future)
대표자명	김창수-광재화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뉴로모자이크 프로세서(NeuroMosAIC Processor) GAIA 프로세서 IP:(GAIA Processor IP)
사업분야	· AI+제조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AI API-SDK 개발, 엣지 AI-온디바이스 AI, 컴퓨터비전(CV) · AI 인프라-보안: AI 반도체-GPU 가속 기술

에임퓨처는 NPU 가속기 IP, 엣지 AI SoC 및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IoT, 가전제품, 자동차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AI 솔루션 제공업체다.

소음, 마모 등의 이슈가 없다. 또 범용성 제고로 인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어 고객사의 요구에 있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애플리케이션도 지원하게 해준다.

### 솔루션 다각화로 매출 성장 속도 향상 방침

에임퓨처는 현재까지 쿠오핀, 피앤피, 엣지에이아이 등 다수의 NPU IP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GAIA IP 개발에 있어 기존 1세대 제품의 성능을 개선한 파생제품 2종 개발(v1.1, v1.2) 및 2세대 아키텍처 개발 및 검증중에 있다. 또 GAIA IP를 지원하는 시나브로 SDK의 릴리즈를 통해 트랜스포머를 지원하고 INT8, INT16, FP16 및 4비트 데이터 포맷도 지원할 예정이다.



## 임팩티브AI, 기업 성과 창출 위한 고도화된 예측기술 솔루션 제공

### ‘딥플로우’로 제조 효율화·비용 절감 실현...기업 만족도 높여

임팩티브AI가 AI 기반 수요예측 솔루션 ‘딥플로우(Deepflow)’를 SaaS 형태의 기업별 데이터에 최적화된 맞춤형 모델로 공급함으로써 빠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임팩티브AI의 미션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으로 세상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목할 만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딥플로우는 예측 AI 기술로 기업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 및 예측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성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SCM, 영업, 마케팅, 구매팀 등은 제품 재고 관리와 판매량 예측시 기업 환경과 제품·구매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예측값을 손쉽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판매, 프로모션 의사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다.

구매 담당자는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정 시점에 구매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AI 기반 의사결정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딥플로우의 핵심 기술은 시계열 예측 AI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이 예측 대상 데이터와 다양한 외부 변수 데이터 간 상관관계와 시계열 패턴을 분석해 향후 패턴을 예측한다.

임팩티브AI는 5000여개 이상의 경제 데이터, 산업 도메인 데이터, 상품 데이터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를 알고리즘의 학습에 활용하고 있으며 시계열 예측 특화 데이터/피처 엔지니어링 기술, 모델 최적화 기술을 통해 고도화된 예측 AI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

내부 시스템에 224개의 시계열 예측 모델을 시스템화해 고객의 데이터 특성과 패턴에 맞는 맞춤형 모델링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해당 모델 모두 오토ML(AutoML) 기반으로 자동화돼 있어 단기간 내 기업 맞춤형 모델링이 가능하다.

### 국내 기업 대상 초기 모델 도입 공략...AI 도입 허들 낮춰 적용 사례 확대

임팩티브AI는 매년 3배 성장률 목표로 AI 기반 제품 수요예측과 원자재 가격 예측 서비스에 집중해왔다. 그간 해당 솔루션을 통해 국내 다수 기관에서 20건 이상을 수상하며 수요예측 AI 분야의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포스코, 롯데 등 주요 대기업과 협업을 진행 중이다.

기업명	임팩티브AI(Imaptive AI)
대표자명	정두희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딥플로우(Deepflow)
사업분야	· AI+제조 · AI+리테일·커머스 · AI+농업·푸드테크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예측·분석·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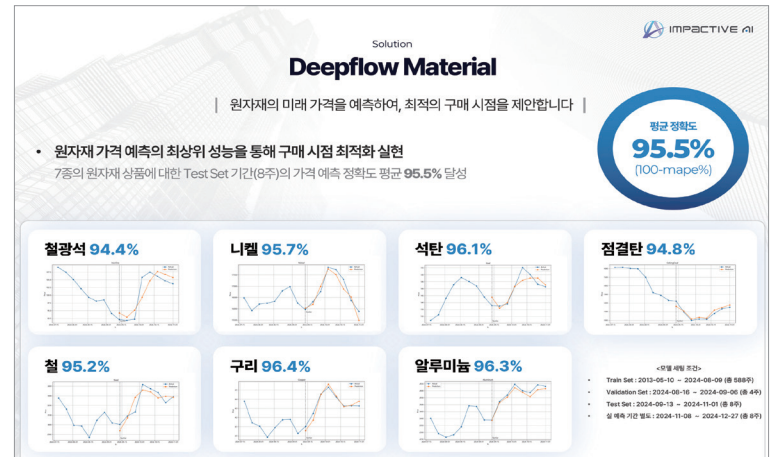
향후 5년은 자사의 예측 AI 솔루션을 개별 기업에서 최대한 도입할 수 있도록 간편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량 데이터와 주요 변수데이터를 초기 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후 전문 AI 엔지니어들이 모델을 고도화해 정확도 높은 예측값을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두희 임팩티브AI 대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수요예측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이지만 해당 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솔루션의 도입 허들을 낮춰 예측 AI 도입 케이스를 빠르게 확장하

고 개별 기업별로 모델 고도화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팩티브AI의 고도화된 AI모델링 역량이 기업들의 AI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AI R&D뿐 아니라 LLM 기반 예측 분석 리포트 생성 기능 등을 활용해 기존 엑셀 기반 수요 예측 업무를 딥플로우 시스템 안으로 끌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임팩티브AI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말에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제조업 간간인 독일 시장을 필두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카이어, 클릭 한 번으로 AI 모델 자동 학습·배포·운영

###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도입 비용 10배·도입 시간 10배↓ 및 정확도 2배↑

카이어는 클릭 한 번으로 최고 성능의 AI 모델을 15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학습 완료하는 '원클릭 AI 오토메이션(Automation)'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카이어는 AI 비전문가도 최적의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MLOps 플랫폼을 제공한다.

원클릭 AI 오토메이션은 AI 전문가 투입 없이도 메인 현장 전문가가 클릭 한 번으로 현장에 필요한 최적 AI 모델을 자동으로 설계, 학습, 배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AI 도입 비용 10배 절감 및 AI 도입 시간 10배 단축, 그리고 AI 모델 정확도 2배 향상시킬 수 있다.

원클릭 AI 오토메이션은 이미지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최적의 AI 모델을 클릭 한 번으로 자동 생성하며 주어진 데이터셋에 최적인 AI 모델 구조와 학습 하이퍼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이에 텍스트 분석(사내 LLM 인프라, 사내 정보 검색 및 Q&A), 머신 비전(결함 검출, CCTV 분석, 의료영상 분석 등), 정형 데이터 분석(사무자동화, 프로세스 결함 원인 분석, 공정 최적화, 자동 제어 등), 시계열 데이터 분석 장비 이상 탐

지, 수요예측, 화재 확산 및 기후 예측 등) 등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솔루션은 하나의 GPU(그래픽처리장치)에서 구동할 수 있어 하드웨어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며 솔루션을 고객사 내부에 위치한 컴퓨터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사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도 없다.

또 쉽게 구동할 수 있어 AI 프로젝트 수행에 AI 전문가를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 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응용 분야 전문가가 AI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어 동시에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저비용·고효율로 AI 모델을 여러 분야에 동시 적용할 수 있어 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

### 고객사 100개사 확보 및 연 매출 100억·영업이익 30% 달성 목표

카이어는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LG 수퍼스타팀 및 코오롱비엔티 AI 얼라이언스에 선정되기도 했다.

카이어의 솔루션은 스마트팩토리, 인프라스트럭처 운영 등의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용 사례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삼성, LG, 농심, 한국콜마 등 국내 주요 제조기업은 카이어의 솔루션을 제조 결함 검출, 공정 불량 원인 분

기업명	카이어(Kaier)
대표자명	이교혁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원클릭 AI 오토메이션(One-click AI Automation)
사업분야	· AI+제조 · AI+공공·스마트시티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모델 개발·배포·모니터링),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AI API-SDK 개발, 엣지 AI-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컴퓨터비전(CV), 예측·분석 모델링추천 시스템, 예측·분석 모델링

석, 공정 최적화, 프로세스 최적화 등에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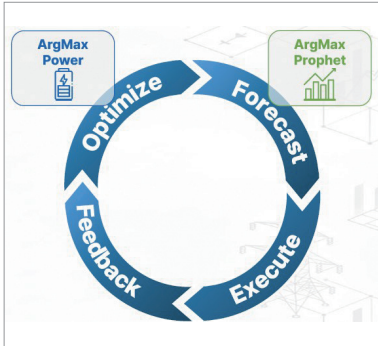
카이어는 향후 고객사 100개사 확보 및 연 매출 100억원 달성, 그리고 영업이익 3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지 데이터, 정형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를 원클릭으로 AI 모델을 생성하는 기술에 더해 온프레미스(on-premise) LLM+RAG 시스템을 원클릭으로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5년 내 기술영업 전문팀을 구성해

현재 검증 완료된 원클릭 AI 오토메이션 MLOps 솔루션을 시장에 빠르게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이교혁 카이어 대표는 “별도의 가공 없이 본인 지닌 학습데이터를 클릭 한 번으로 AI 모델에 학습,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과 실제에 기업들이 만족한다”며 “카이어는 전문가가 필요치 않은 심플한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원클릭 AI 오토메이션을 산업계 전반에 정착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있다”고 강조했다.



## 틸다, AI 기반 최적화 솔루션으로 비즈니스 효율성 극대화



### 아그맥스, 데이터·알고리즘 기반 최적 비즈니스 시스템 제시

틸다는 제조,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최적화 AI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틸다의 핵심 솔루션은 '아그맥스(ArgMax)로 사람의 경험,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들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대체해 최적의 비즈니스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 구매, 제조, 운송 등 사업 전반의 비용과 자원 사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 틸다는 이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에너지 및 제조·물류 기업들을 타깃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제조 설비의 경우 아그맥스는 활용해 자재 투입 속도, 장비 세기 등을 조절해 생산량은 높이고 불량률과 에너지 소비량은 줄일 수 있다. 태양광 설치 계획 및 설비 제어는 태양을 탐색하는 AI 모델을 연동해 최소한의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ESS)만으로 전기세를 절감하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컨테이너 적재와 트럭 배차를 최적화해 운송 비용과 원자재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틸다는 "기존 비즈니스 최적화 솔루션은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디지털 트윈 모니터링 등을 활용했으나 이는 최적화가 아닌 단순 개선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아그맥스는 기존 딥러닝이나 강화학습 방식이 아닌 군집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 솔루션을 제안한

기업명	틸다(Tilda)
대표자명	정지량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아그맥스(ArgMax)
사업분야	· AI+제조, AI+금융 · AI+환경·에너지 · AI+농업·푸드테크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추천 시스템, 예측 분석 모델링

틸다는 기업의 수익 성장, 비용 절감, 리스크 완화를 돕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비즈니스 운영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

다"고 설명했다.

아그맥스는 '아그맥스 파워(ArgMax Power)'와 '아그맥스 프라핏(ArgMax Prophet)' 두 종류로 제공된다.

아그맥스 파워는 AI가 전력가격·기상·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태양광·ESS·DR의 운영을 실시간 최적화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RE100·ESG 대응까지 지원한다.

아그맥스 프라핏은 뉴스·정책·거시지표를 분석해 시장과 상품 가격을 실시간 예측하는 AI 리서치 엔진으로 객관적이고 일관된 데이터 기반 예측으로 휴먼 분석가(Human analyst)의 2차 의견(2nd opinion) 역할을 제공한다.

**안정적 수익 채널 구축 및 글로벌 확장 가속**  
틸다는 중장기적으로 아그맥스 파워와 아그맥스 프라핏의 안정적인 수익 채널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두 핵심 솔루션의 반복적 수익 모델(Recurring Profit Model)을 정착시켜 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2단계에서는 파워와 프라핏 각각의 기능 확장도 도메인 확장을 통해 파워는 발전소·배터리·DR 최적화에서 스마트그리드·마이크로그리드·도시 단위 에너지 운영으로, 프라핏은 상품(commodity)·금융시장 예측에서 산업 수요·탄소·기후 리스크 예측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3단계에서는 이 두 축을 통합해 '에너지·경제 통합 예측 및 최적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아시아·중동·유럽으로 영향력을 넓히며 글로벌 산업 AI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정지량 틸다 대표는 "틸다는 향후 5년간 이러한 기능·영역 확장을 기반으로 지역별 및 산업별 글로벌 확장을 추진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팀에브리웨어, 생산 관리 특화 SaaS 기업으로 자리매김

### 제조업 현장 관리 돕는 AI 기반 SaaS 솔루션 'ORCA'

팀에브리웨어는 인공지능(AI)의 힘을 활용해 작업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 제조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이다. 이미 방대한 생산 및 제조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 정밀한 분석과 예측을 수행하고 있고 혁신적인 솔루션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을 통해 제조 공정을 최적화한다.

제조 현장은 여전히 문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발주서·작업지시서·생산계획표가 수기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팀에브리웨어 'ORCA' 솔루션은 이러한 문서를 AI 비전(Vision) 기반 OCR 기술로 자동 인식해 생산계획을 즉시 생성하고 현장 작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작업 지시를 전달한다.

단순한 텍스트 추출을 넘어 도면의 표·주석·맥락까지 이해하는 지능형 문서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복잡한 제조 문서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서 정리와 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발주 오류·자재 손실 등 휴먼 에러를 예방해 생산 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 5년 내 연 매출 500억원 규모 달성 목표

팀에브리웨어는 현재 문서 기반 생산 관리 자동화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ORCA를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의 온톨로지 AI를 개발할 계획

팀에브리웨어는 데이터 분석·화상회의·AI 기반 ERP 등 고객의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중심(Data-driven)의 사결정을 돕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다.

이 기능은 현장 작업자가 음성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제조 현장 환경에서도 즉각적인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국어 음성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안전 지침이나 작업 매뉴얼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온톨로지 AI는 현장의 데이터와 문맥을 이해해 단순한 음성 명령이 아닌 맥락 기반 질의응답을 제공함으로써 작업자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생산 관리 SaaS를 넘어 지능형 음성 기반 협업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팀에브리웨어는 이러한 기술력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ORCA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고 생산 관리 특

기업명	팀에브리웨어(Team-EveryWhere)
대표자명	이다한·최원기
설립연도	2018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ORCA
사업분야	· AI+제조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화 SaaS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5년 내 국내 3000개 이상의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AI 비전 기반 문서 인식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음성 인터페이스 기반 온톨로지 AI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국어 지원 및 맥락 기반 응답 기능을 강화해 외국인 근로자와의 협업 효율을 극대화하며 현장 데이터 통합·분석 플랫폼으로 확장해 생산 관리뿐 아니라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영역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ERP·MES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기능을 강화해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제조업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수 근무 사업장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5년 내 해외 매출 비중 30%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5년 내 연 매출 500억원 규모를 달성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 파이미디어랩, 위치 감지 특화 카메라 솔루션으로 작업장 안전성 향상

### CAI 세이프, AI 기반 실시간 위험감지로 스마트 안전관리 혁신

파이미디어랩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카메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AI 기술을 탐구하고 활용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파이미디어랩은 AI와 미디어를 연구하고 사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AI를 활용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파이미디어랩의 핵심 제품은 작업환경 내 객체 위치 감지에 특화된 카메라 'CAI 세이프(Safe)'로 객체탐지 및 위치분석 솔루션으로 작업환경 및 작업자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자동 감지해 알려준다. 다중 카메라 분석, 빠른 객체 위치 파악, 현장 상황별 최적 학습데이터 생성을 통한 전용 엔진 지원, 안전 모니터링, 위험 상황 실시간 보고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딥러닝 기술로 오탐지율도 최소화한다. 오탐지 데이터를 관리자 계정에 풀더로 자동 분류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알고리즘이 재학습을 자동 진행한다. CAI 세이프는 온디바이스 카메라 세트

로 별도 서버 구축없이 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공기질, 온습도 측정 역시 가능하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과 제품이 CAI 로케이션(CAI Location)과 CAI MK3다. CAI 로케이션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알고리즘을 이용해 센서 없이 객체의 위치를 절대 좌표로 10cm 이내 추적할 수 있다. 위치추위에 특화된 카메라 솔루션으로 안전한 작업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CAI MK3는 카메라 제어 모듈에 AI칩셋을 탑재해 서버나 네트워크 필요없이 자체 AI 연산을 지원한다.

회사측은 "우리 기술은 복수의 카메라에서 사람을 분석하고, 좌표를 병합하는 과정을 통해 복잡한 구조에서 사람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 공장 내부처럼 구조물에 의해 사각지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10cm 이내의 오차로 실시간 좌표를 추출할 수 있다"며 "특히 CAI MK3는 내부 보안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물류 센터에 적합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 국내외 물류 시장 파트너 확대 '집중'

파이미디어랩은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조선소 제조야드, 차량 제조 및 물류 현장 등을 사업 타깃으로 하고 있다. 또 2024년부터 스마트팩토리 작업 현장에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을 타깃해

기업명	파이미디어랩(Paimedialab)
대표자명	여병상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CAI 세이프(CAI Safe)
사업분야	· AI+제조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비전-언어 모델(VLM) · AI 개발-운영 기술: 오픈 AI-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 AI 인프라-보안: AI 보안-위협탐지

협력 기회를 지속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판매처 확보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회사는 국내외 물류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마케팅과 총판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시장 입지를 적극 확보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은 우선 미국과 멕시코 지역의 현대자동차그룹을 포함한 물류 시장을 공략해 입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회사는 안전관제, 전기차 화재특화기능, 지반 침하감지 등 온디바이스 제품의 다양화와 로봇제어 모듈 개발 및 판로 개척도 추진

할 방침이다.

특히 파이미디어랩은 기업이 제공하는 CCTV 영상을 기반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오탐지가 없는 실용적인 운영 소프트웨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병상 파이미디어랩 대표는 "국내외 조선소·차량제조 등 스마트팩토리 구축화를 진행하는 여러 곳으로부터 자사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이미 입증받고 있다"며 "향후 마케팅, 파트너십 체결 등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평행공간, 정확한 3D 변환으로 현실을 디지털로 전환

### 현실 공간을 3D로 복원...건설·제조공장 등 디지털 트윈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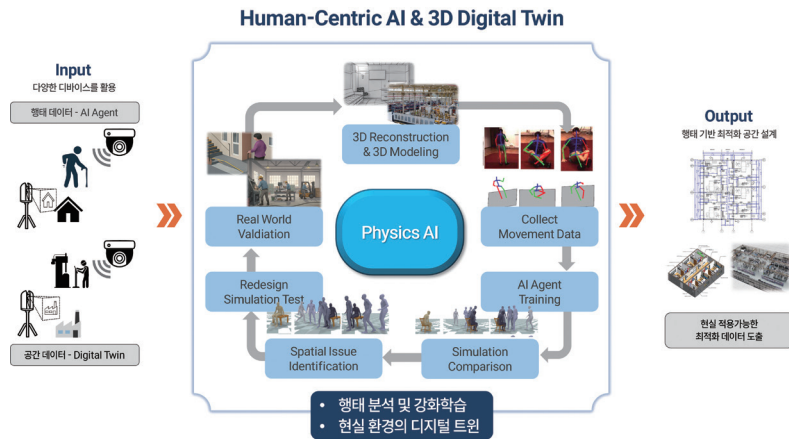
평행공간은 '기하학적 기초 모델 알고리즘 (Geometric Foundation Model Algorithm)' 과 '공간(Spatial) AI'를 활용한 현실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3D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해 디지털 트윈을 통해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디테크 스타트업이다. 대표적인 솔루션에는 'P-엔진(P-Engine)·P-하우스(P-House)·P-대쉬(P-Dash)'이 있다.

P-엔진은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물체나 환경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3D 복원 자동화 솔루션으로 라이더(LiDAR) 등을 이용

해 얻은 스캔 데이터를 3D 메시로 자동 변환할 수 있다.

P-하우스는 현실 스캔 기반 하자점검 및 AS 솔루션으로 주로 신축 주택의 입주전 사전 점검 진행 및 하자 기록시 사용 가능하다. P-대쉬는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IoT 데이터 뷰어 제작 서비스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환경 데이터를 3D로 시각화하고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원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웹 기반 모니터링 뷰어를 제작할 수 있다.

이 솔루션들은 정확하고 자동화된 스캔 투 메시 변환과 3D 재건(Reconstruction) 자체 기술 보유해 디지털 트윈의 기술 병목지점인 현실 모



기업명	평행공간(Parallel Space)
대표자명	이지은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P-엔진(P-Engine)·P-하우스(P-House)·P-대쉬(P-Dash)
사업분야	· AI+제조, AI+공공·스마트시티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 AI 인프라·보안: AI 반도체·GPU 가속 기술

평행공간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실사를 기반으로 가상 현실에 구현하는 '온라인 부동산 투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를 해결한다. 특히 오토데스크 리캡 프로 (Autodesk ReCap Pro) 등 사용 난이도가 높은 고가의 외산 SW를 대체 가능하며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작업 시간을 단축해 총 비용 절감 및 납기 단축에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메시 디테일을 보존하면서 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메시 압축 자체 기술을 보유해 파일 용량을 낮추고 연산 속도를 상승시킨다. 더불어 AI 기반으로 오브젝트 (Object)를 자동으로 세분화하고 계층적으로 분류하는 기술을 보유해 BIM 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전주기 디지털 트윈 향해 기술 고도화 추진**  
평행공간은 피직스 AI(Physics AI)로 강화된 AI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주기 디지털 트윈을 통한 휴먼 센트릭 엔바이론먼트(Human Centric

Environment)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현실의 인간 행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후 AI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행태 기반 최적화 공간 설계 데이터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 행태를 기반으로 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설계와 작업자 행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제조 공간 안전 제고를 첫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향후 5년간 전주기 디지털 트윈을 위한 API 기반 표준화 SaaS 모델 출시를 사업 목표로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기하학 기반 AI 모델(Geometric Foundation Model)과 오토데스크 (Autodesk), 엔비디아 등 플랫폼을 위한 플러그-인을 개발 중이며, 향후 멀티 모달 데이터 투 3D(Multi-Modal Data to 3D) 솔루션과 나비스(NavVis), 헥사곤 플러그-인(Hexagon Plug-in) 등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또 평행공간은 북미, 유럽, 일본, 동남아 등 주요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독일·일본·미국·베트남 등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오토데스크·엔비디아 옴니버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위한 플러그 인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5-26

## AI + 헬스케어

더블유닷에이아이(W.AI)  
델토이드(DELTOID)  
디어젠(Deargen)  
랜식(Lansik)  
리틀캣(The Little Cat)  
리티브(LITIV)  
모닛(MONIT)  
비드래프트(VIDRAFT)  
쓰리알이노베이션(3R Innovation)  
에이비스(AIVIS)  
웨스트문(Westmoon)  
인절미(Injewelme)  
큐빅(CUBIG)  
클레버러스(CLEVERUS)  
펫피오톡(Petpeotalk)  
프리베노틱스(Prevenotics)

## 더블유닷에이아이, AI로 유방 보형물 안전 모니터링 패러다임 전환

### 더블유 엑스퍼트, 유방 보형물 진단 특화...독보적 AI 성능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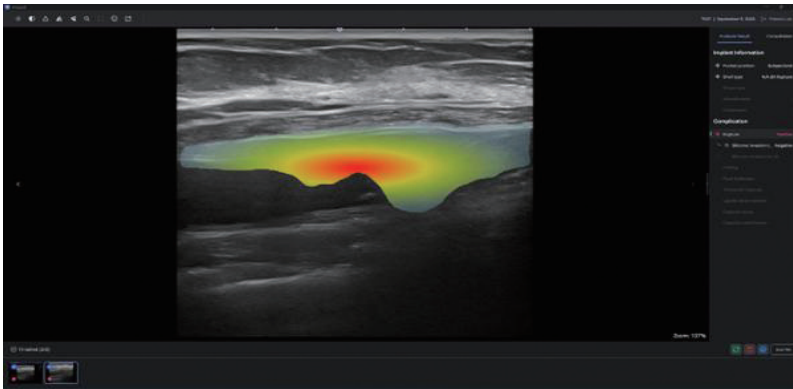
더블유닷에이아이는 2023년 2월 설립된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으로 여성암 1위 유방암검진 시장과 전세계 여성성형 수술 1위인 가슴 성형 수술 시장이 교차하는 유방보형물 검진이라는 시장을 개척하고자 초음파 및 엑스레이(X-ray) 이미지를 이용한 유방보형물 관련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스타트업이다.

유방 초음파 이미지 기반 AI 솔루션 '더블유 엑스퍼트(Expert)'를 한국에서 다기관 임상시험을 마무리하고 95% 정확도로 통과해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현재는 유방암 검진의 스크리닝 테스트(Screening test)로 가장 널리 쓰이는 '유방

촬영술(Mammogram, X-ray)'을 이용한 보형물 파열 진단 AI 솔루션을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이 제품도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인공유방보형물 구별 및 진단 AI 솔루션이 탑재된 더블유 엑스퍼트는 전세계 주요 보형물 초음파 이미지 데이터셋(Dataset)을 학습데이터로 사용됐으며 전세계에서 제조된 다양한 보형물 구별하는 알고리즘들과 파열과 구형 구축 같은 재수술이 필요한 중대한 부작용 탐지 알고리즘들을 탑재했다.

자사 솔루션이 다른 의료용 진단 AI 솔루션과 차별되는 점으로 진단관련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작용 유무에 따라 진료 우선 순위를 결정해 알려주는 응급분류(Triage) 기능,



기업명	더블유닷에이아이(W.AI)
대표자명	김재홍
설립연도	2023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더블유 엑스퍼트(W Expert)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의료영상-디지털헬스-정밀진단 등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AI 경량화-최적화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적절한 치료방법을 제시하고 분석결과에 대해 보형물진단 전문의와의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결과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더블유 엑스퍼트는 단순히 진단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사와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가치' 기반의 기술로써 이는 더블유닷에이아이의 핵심 가치다.

### 글로벌 의료 AI 생태계 허브로 자리매김

더블유닷에이아이는 현재 더블유 엑스퍼트 상용화 버전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우선 국내 시장에 진출한 뒤 글로벌시장까지 공략해 나아가 글로벌 의료 AI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회사는 우선 더블유 엑스퍼트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 유방 촬영술인 맘모그램 등 다양한 영상 모달리티로 제품을 확장해 나갈 전략이다. 초음파-맘모그램 등 멀티모달 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AI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SaaS 기반 클라우드형 분석 플랫폼을 출시해 개인 사용자도 모바일 앱을 통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블유닷에이아이는 기술을 넘어 실제 임상에서 의료진을 지원하는 AI 기반 협업 플랫폼으로서 의료 분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더블유 향후 의료진 협업 기능을 강화해 환자 데이터 공유 및 국제 학술 연구에도 활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현재 더블유 엑스퍼트는 국내 식약처 인허가 및 임상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당 과정을 완료하면 국내 의뢰금 및 종합병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FDA, CE 등 글로벌 인허가를 병행해 북미, 유럽, 호주,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 동시 진출할 전략이다.

글로벌시장까지 진출하게 되면 초음파 기반 AI 분야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진 뒤 GE, 홀로직(Hologic), 캐논(Canon) 등 글로벌 장비사 및 보험사와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홍 더블유닷에이아이 대표는 "5년 내 국내 20%, 해외 15%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수천 억원대의 글로벌 시장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델토이드,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개척 앞장

### 닥터바로, 환자 맞춤형 치료 여정까지 설계한다

델토이드는 AI와 빅데이터로 정밀의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회사는 4년간 여러 대학병원과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의료기술 R&D 역량을 쌓았다. 2024년에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고 관성측정장치(IMU) 센서 기반 보행 분석 의료기기를 신고했다.

델토이드는 웰니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회사는 보행 분석으로 근골격계·신경계 질환을 진단하고 재활 치료와 만성질환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힘써 다양한 IoT 장비와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임상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델토이드는 웰케어산업협회, 인공지능협회, 메타버스얼라이언스, 메타버스 닥터얼라이언스 회원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과제에 참여하며 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기반 AI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환자유래데이터(PGHD), 재활 치료 관련 운동데이터(센서·재활용 비디오 데

이터), 복약데이터(Medication Data)를 수집하고 있다.

델토이드의 핵심 제품인 '닥터바로(Dr.Baro)'는 환자와 병원을 연결하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슈퍼앱으로 병원 안내부터 건강 데이터 관리까지 환자의 모든 여정을 더 빠르고 똑똑하게 돕는다.

닥터바로는 병원 내 위치 기반 내비게이션과 EMR·EHR 연동으로 의료진이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적 환자 관리도 지원한다. 또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닥터바로는 단순한 안내 솔루션을 넘어 환자 맞춤형 치료 여정을 설계할 수 있는 고도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보행분석계(Rehabit)뿐 아니라 인바디, 바이탈링 등 다양한 헬스케어 기기와 연동 가능해 확장성이 뛰어나며 환자 편의성과 병원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통합형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더불어 운동, 수면, 복약 등 여러 건강 데이터를 통합해 에이전틱 AI로 분석함으로써 개인 최적화된 AI 주치의의 구현하는 헬스케어 슈퍼앱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닥터바로는 조선대학교병원 외래 환자 안내 서비스에 적용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상담 효율을 높였다. 병원 내비게이션 기능은 환자 경험 개선에 기여했다.

기업명	델토이드(DELTOID)
대표자명	김요섭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닥터바로(Dr.Baro)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비전-언어 모델 (V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AI API-SDK 개발

### AI 기반 의료기기 글로벌 표준화 추진 국제 경쟁력 확보

현재 델토이드의 주요 고객사로는 조선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등 대학병원이다. 앞으로 증상 상담 기능을 포함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약국·건강검진 등 외부 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델토이드는 향후 5년간 비즈니스 전략으로 먼저 AI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표준화를 추진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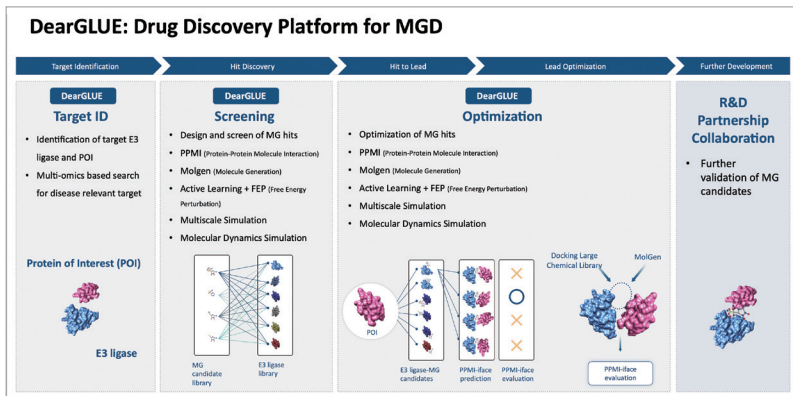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B2B 중심에서 B2C 시장으로 확대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과 연계한 신제품 라인업을 확충하고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에이전틱 AI를 접목해 환자 맞춤형 여정 관리와 자율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효율성과 환자 경험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 디어젠, AI로 화합물 결합 예측 신약 개발 돕는다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세계 최초 예측**  
 디어젠은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2016년 12월 설립됐다. 누적 27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디어젠의 핵심 제품은 ‘디어DTI(Dear Drug-Target Interaction)’와 ‘디어글루(DearGLUE)’ 플랫폼이다.  
 디어DTI는 단백질과 화합물간의 결합을 예측하는 AI 기술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최적화한다. 이는 질병을 유도하는 타겟 단백질과 약물 후보 물질 간 상호작용을 분석해 신약 개발 초기단계에서 유망한 후보를 선별한다.  
 디어글루는 ‘분자 접착제’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약물 개발이 어려웠던 타겟을 대상으로 신약

을 발굴하는 플랫폼이다. 분자 접착제는 단백질 간 상호작용을 촉진해 분해할 단백질을 유도하는 새로운 신약 개발 방식을 제공한다.  
 디어젠의 이 솔루션들은 단백질과 화합물간 상호작용 예측, 분자 접착제 설계, 신약 후보 물질 최적화까지 AI 기술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후보 물질을 빠르게 도출하고 검증하며 개발이 어려운 타겟에 대한 신약 개발도 가능하다.  
 신약 개발의 모든 과정을 가속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타겟팅이 어려운 분자에 대해 분자 접착제로 타겟을 분해하는 물질을 AI로 발굴할 수 있다.  
 디어젠을 코로나19 팬데믹 선포 전 AI 트랜스포

기업명 디어젠(Deargen)  
 대표자명 강길수  
 설립연도 2016년  
 투자단계 Series B  
 주요제품 · 디어(Dear)DTI · 디어글루(DearGLUE)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 AI 개발 운영 기술: MLOps, 예측 분석 모델링

디어젠은 단백질의 3D 구조(Structure) 정보 유무와 상관없이 시퀀스(Sequence) 정보만으로도 신약후보물질을 예측할 수 있는 자체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머 기술로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세계 최초로 예측했다. 시장 수요가 높은 화장품도 AI 기술을 활용해 피부에 효능이 있는 물질을 발굴해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디어젠은 항후 시를 활용한 분자 접착제 혁신 신약 개발 플랫폼을 고도화해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치료제가 없는 질환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위한 AI 툴 개발에 집중하며 코스메틱 신소재 발굴 등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 헬스케어 분야로 신사업을 추진중이며 AI 툴을 개발해 병원 진료에 있어서 의료진에게 획기적인 도움을 주고자 개발중에 있다.

**세렌젠 DEL 기술에 디어DTI 기술 접목...최적 화합물 선정 제공**  
 한편 디어젠은 지난 2023년 독일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DNA-Encoded Library, 이하 DEL) 기업 세렌젠과 공동 서비스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다.  
 세렌젠은 독일 DEL 전문기업으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유효 물질을 빠르게 접근·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기존 DEL 합성 한계를 극복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접근 방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DEL은 유기 분자에 유전자(DNA) 바코드를 결합한 화합물 라이브러리다.  
 양사는 파트너십을 통해 세렌젠 DEL 기술에 디어DTI 기술을 접목, DEL에서 스크리닝된 화합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화합물을 선정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디어DTI는 질병을 유도하는 타겟 물질과 약물 후보 물질 상호작용을 예측해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DEL로 스크리닝된 수많은 물질 가운데 어떤 물질을 가장 먼저 합성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DEL 기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함으로써 합성 화합물을 고르고 실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  
 이 밖에도 양사는 기존 DEL 서비스에 디어젠 AI 기술을 적용, 히트 디스커버리(Hit discovery:유효 물질 탐색)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랜식, 데이터 기반 대사질환 관리 플랫폼 글로벌 표준화 ‘총력’

데이터 통합 관리 AI 건강관리 플랫폼 ‘글루코핏’ AI 혈당관리 솔루션 개발 기업 랜식은 지난 2022년 AI 혈당관리 솔루션 ‘글루코핏’을 출시했다.

글루코핏은 연속혈당측정기(CGM)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혈당 패턴을 분석하고 식습관·운동·수면 등 생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AI 건강관리 플랫폼이다.

글루코핏은 AI 혈당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의 식사, 활동, 스트레스 패턴을 학습해 식후 혈당 반응을 사전에 예측하고 맞춤형 행동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 데이터 통합 엔진(Data Integration Engine)이 센서·앱·커머스·병원 데이터 등 다양한 출처

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개인별 대사 리듬을 시각화하며 개인 맞춤 피드백 시스템은 혈당 상승 원인을 분석해 ‘식전 방어템’, ‘식후 운동 타이밍’ 등 구체적 솔루션을 제안하고 습관 형성 루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헬스데이터 API 기술을 통해 보험사, 병원, 식품사 등 외부 기관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동·활용할 수 있도록 해 B2B2C 모델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글루코핏은 단순한 혈당 측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 행동 변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와 명확히 차별화된다. AI 혈당 예측 및 피드백 엔진을 통해 개인의 식습관·활동패턴·수면 데이터를 학습하고 혈당 반응을

기업명	랜식(Lansik)
대표자명	양혁용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글루코핏(Glucokit)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대규모언어모델(LLM)

사전예측해 ‘나에게 맞는’ 식사 순서·운동 타이밍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경쟁 서비스가 단순 기록형 앱에 머무는 반면 글루코핏은 CGM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즉각적인 코칭과 습관 형성 루틴을 제공한다.

의사·간호사가 참여하는 콘텐츠 기반 코칭 시스템을 갖춰 사용자가 데이터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커머스와 데이터의 통합 구조를 통해 건강식품·건강기능식품·저당식품을 과학적으로 추천하고 혈당 개선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다.

B2B2C 제휴 모델을 통해 보험사, 병원, 검진센터, 식품기업 등과 데이터를 연동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랜식은 앞으로 CGM 없이 혈당을 예측하는 AI 혈당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 거대언어모델을 통한 AI 의사의 방대한 피드백 제공 등으로 차별성 및 경쟁력을 갖춘 방침이다.

글루코핏은 삼성전자, SK브로드밴드, DB생명 등의 기업복지 제휴 프로그램 운영됐고 있다. 글루코핏을 사용하신 분들중 70%는 혈당 건강 개선에 성공하고 평균 식후 혈당 상승폭 20mg/dL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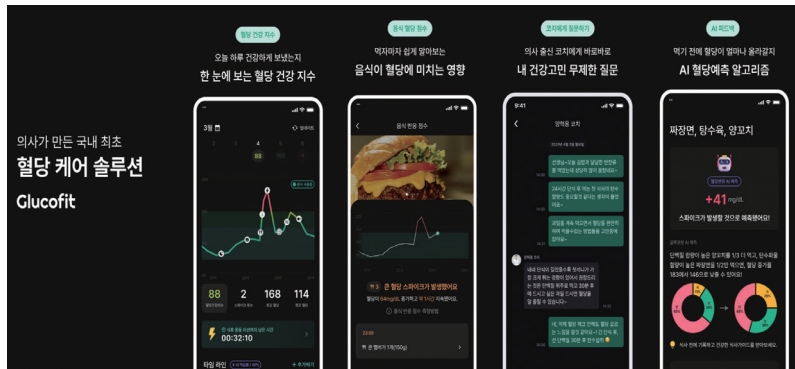
“랜식은 ‘글루코핏’을 앞세워 10억명의 질병을 예방하는 글로벌 혈당 관리 솔루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데이터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비전 실현

랜식은 향후 글루코핏을 데이터 기반 대사질환 관리 플랫폼의 글로벌 표준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글루코핏을 국내 1위 혈당관리 앱으로 자리매김시키고 사용자 200만 명 달성해 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식품·보험·제약사 대상 B2B 매출을 증대시키고 혈당 중심 건강식품·기능성 제품 20종 라인업 구축 및 커머스 매출을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업검진·병원과의 제휴 확대를 통한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일본·북미·유럽 진출 및 현지화된 건강수명(Longevity) 프로그램을 출시해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비전을 실현하며 AI 헬스케어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 리틀캣, 말 못하는 반려동물과 헬스케어 데이터로 소통한다

### 인펫, 체성분 분석부터 맞춤 사료 추천까지...건강 상태 따른 맞춤형 관리 구현

리틀캣은 반려동물 생체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헬스케어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반려동물이 말하지 못하는 건강상태를 데이터를 통해 소통하는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리틀캣은 AI, IoT 기술을 접목한 반려동물 전용 헬스케어 디바이스 개발 및 판매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다.

고 있다. 반려묘 체성분 측정기를 비롯한 반려동물용 헬스케어 디바이스 및 APP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 충족하기 위해 지금도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리틀캣은 고양이 전용 체성분 측정기 INPET CV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펫'이 바로 그것이다. 인펫은 고양이의 체성분과 건강 데이터를 시로 분석해 종합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반려묘 전용 헬스케어 솔루션이다.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해 건강 상태, 양육 관리 등 앱을 통해 음성 브리핑을 지원하며 고양이의 비만도에 따라 식욕조절 LED 불빛을 활용해 식사 시간 조성 및 종료를 인식시킨다.

또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및 수집을 통해 고양이의 성장 일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사료 DB를 바탕으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료도 추천한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8가지 체성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 모델 분석을 통해 제공하는 맞춤형 헬스케어 리포트다. 전국판이 있는 센서 플래트를 통해 고양이의 체성분을 포함한 생체 데이터를 빠르게 측정하고 이를 시로 분석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가능케 한다. 측정 데이터는 스마트폰의 앱과 연동돼 반려묘의 건강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측은 기존 반려동물 IoT와 달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듀얼 주파수 BIA 센싱 기술로 수초 내 측정해 CT 대비 92%의 정확도를 제공하며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발 위치의 불규칙성, 환경 변수 등을 보정했다는 것. 리틀캣은 인펫의 OTA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평균 매출 20% 성장·해외 매출 비중 50% 이상 달성 목표

리틀캣은 동물복지에 위한 시장을 이미 구축한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해외의 경우 동물복지 수준이 높아 이미 프리미엄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고 아시아 역시 펫테크 시장이

기업명	리틀캣(The Little Cat)
대표자명	김대용
설립연도	2018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인펫(INPET)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AI 경량화·최적화 · AI 응용 분야 기술: 예측 분석 모델링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 회사는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파트너십을 지속 확장하면 해외 매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평균 매출 20% 성장과 해외 매출 비중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펫테크 선두기업으로 도약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고양이 체성분 측정을 고도화해 강아지용 신규 제품 개발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체성분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와 구독형 플랫폼을 구축해 미국·유럽·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지 시장 요구에 맞춘 인증과 펴웨어 OTA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국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식재산권을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리틀캣의 주력 제품인 인펫 CV2는 현지 전시회와 글로벌 파트너사를 중심으로 활용 사례를 확대해가며 상용화를 위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태국 페톨로지(Petology)와 LOI를 체결했으며 유럽·프랑스·폴란드 기업들과도 NDA·MOU를 체결해 현지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 리티브, 비전 중심 기술로 글로벌 No.1 스포츠 AX 플랫폼으로 성장

**코트렌즈, 정확한 식별 데이터 기반 AI 분석 지원**  
리티브는 스마트폰, 액션 캠 등의 카메라 기능을 기반으로 스포츠 활동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다.

스포츠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은 선수나 경기의 미묘한 부분을 잡아내 경기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티브는 별도 센서 없이 영상만으로 스포츠 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플랫폼 서비스 바스탯은 AI를 통해 스포츠 데이터를 기록, 분석 및 공유할 수 있다.

리티브의 '코트렌즈'는 비전 중심 선수 추적 및 3D 모션 캡처(Vision-only Player Tracking & 3D Motion Capture)를 바탕으로 한 하이엔드 분석 플랫폼이다. 별도의 센서나 수신기 시스템 없이 일반 비전 카메라 영상만으로 선수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정확한 3D 스켈레톤 모션 추적을 지원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핵심은 '융합 연관 기술(Fused Association)'이다. 이 기술은 비전 카메라만으로 선수 추적시 발생할 수 있는 고질적인 겹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선수들이 카메라 시야에서 서로 겹쳐 보일 때 이전 프레임에서 작전판 위에 추적되던 선수 위치와 현재 프레임에서 작전판 위에 새로 감지된 선수 위치를 비교해 동일 인물을 식별함으로써 선수의 재인식 정확도를 높여준다.

특히 선수의 정확한 식별 데이터를 AI로 분석한

리티브는 '스포츠 데이터의 민주화'를 가치로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고가 장비와 전문인력에 의존하던 기존 경기력 분석 환경을 혁신하고 있다.

자료는 선수에 대한 생체정보, 공간 데이터, 속도 데이터를 포함해 선수와 코치가 과학적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이점을 제공한다.

회사측은 "기존 스포츠 분석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은 혁신적으로 낮춘다"며 "우리 제품은 수집된 경기 영상, 기록지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연동하고 하이라이트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티브는 코트렌즈 외에도 대중 시장을 겨냥한 '바스탯(BASTAT)'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바스탯은 AI를 활용한 간편 촬영, 하이라이트 생성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QR코드 스캔 등 간편한 방식을 활용해 자신의 경기 영상과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다. 기존 체육관의 CCTV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별도의 전문적인 센서나 웨어러블 장비 없이 저렴하고 빠르게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명	리티브(LITIV)
대표자명	김지훈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코트렌즈(CourtLenz)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 AI+교육 · AI+미디어 콘텐츠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 투트랙 전략으로 미국 시장 진출 꾀한다

리티브는 비전 중 기술로 글로벌 스포츠 AX 플랫폼의 선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 시장을 위한 하이엔드 솔루션 코트렌즈 분석 플랫폼과 대중 시장을 겨냥한 솔루션 바스탯 등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여가겠다는 전략이다.

주 타깃 시장은 농구의 본고장인 미국이다. 회사는 '2026 CES' 전시회에 참가하고 YMCA, LA 피트니스(LA Fitness), 라이프타임(Life Time) 등 미국 대형 체육관 체인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나면 더욱 적극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선다. 파트너십 확장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바스탯의 체육관 네트워크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코트렌즈의 B2B 계약을 증대시키려는 계획이다.

북미 시장 진입이 안정권에 들어선 이후에는 유럽 및 아시아 시장 진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는 두 플랫폼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스포츠 코칭 O2O 등 신규 영역으로 기술 응용을 확대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 고령자 삶의 질↑·요양 현장 효율성 혁신이 ‘모닛’의 사명

### ‘맥스 프로’로 고령자 대상 간병 부담↓·의료 및 인권적 문제 개선

모닛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독자적인 AI 기반 기저귀 오염도 측정 기술을 통해 유아부터 고령 환자까지 오염된 기저귀를 제 때 교체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모닛은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과 존엄성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다.



모닛은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만든다. 모닛은 유아부터 노인을 위한 기저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베이비케어 제품은 유아용 기저귀 케어 시스템, 모닛 스마트 수유등, 힌트 등 있다. 특히 모닛은 고령자 대상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의료 및 인권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맥스 프로(MECS PRO)’ 기저귀 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맥스 프로는 요양시설에서 고령자 케어의 효율성과 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AIoT 기반 스마트 기저귀 케어 시스템으로 센서를 통해 기저귀 오염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해 요양 인력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고 요양 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감염 예방 및 시설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 스마트 배설관리 시스템 구현 위한 독자 기술 보유

모닛은 비접촉 정전용량 기반 센서 기술과 BLE 통신, AI 기반 배설 패턴 분석 알고리즘 등 스마트 배설관리 시스템(MECS)을 구현하기 위한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센서는 기저귀 외부에 부착돼 오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데이터는 비콘, BLE를 통해 모바일 앱과 웹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된다.

또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은 배설 패턴을 학습해 배뇨 시점, 횟수, 오염 범위 등을 분석하며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포트를 제공해 요로감염 등 질환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기능도 고도화 중이다.

더불어 AI 기반 이벤트 인식 및 분류 기술 및 배설 패턴 분석 알고리즘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명	모닛(MONIT)
대표자명	박도형
설립연도	2017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맥스 프로(MECS PRO)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응용 분야 기술: 추천 시스템

향후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모델 및 개인화 헬스케어 서비스로 확장할 예정이다. 모닛은 향후 전용 기저귀 제품을 출시해 센서와의 최적화된 호환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반복 매출 구조를 확보할 예정이며 낙상 감지, 침대 이탈 알림, 바이탈 모니터링 등 확장 모듈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케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내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시장 확대와 공공 조달 진입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강화해 PoC를 정식 구매 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더불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분

석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 요양시설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자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박도형 모닛 대표는 “모닛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도 AI와 IoT 기술을 바탕으로 요양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고령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 개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전 세계 요양시설과 가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통합 케어 플랫폼을 만들어갈 것”고 강조했다.



MECS Diaper



MECS Smart Care System



## 비드래프트, '트루 AGI' 달성 위해 누구나 활용 가능 플랫폼·서비스 구현

### “사회·산업·사람 삶에 긍정적 변화 만들 것”

AI와 AGI는 이제 더이상 연구실의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실제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드래프트는 A2AP 플랫폼을 통해 개발된 AI 모델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하고 국내 AI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비드래프트는 정보통신업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업으로 '트루(True) AGI' 달성을 목표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쓰는 도구인 만큼 비드래프트는 이를 통해 사회와 산업,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향후 협력과 혁신을 이어가며 한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AGI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그 중심에는 비드래프트의 AGI 공통 플랫폼 '젯XA(jetXA)', AI 서비스 자동 생성 AI 플랫폼 '마우스(MOUSE)', 피지컬 AI 로봇 플랫폼 '젯XA-로보틱스(jetXA-Robotics)'가 있다.

젯XA는 범용 인공지능(AGI)의 7대 지능 모듈을 통합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창조·언어 지능을 구현·공개했으며 현재 기타 지능 모듈도 개발 중이다. SOMA(Self-Orchestrating Modular Architect), SLAI(Self-Learning Augmented Intelligence) 등의 핵심 기술을 통해 AGI 1단계(Post-AGI) 도달을 입증했다. 회사는 2026년까지 트루 AGI(AGI 2단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우스는 누구나 데이터 준비, 학습, 배포 과정을 자동화해 AI 서비스를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허깅페이스에 약 1000종 이상의 모델과 서비스를 공개하며 다수의 인기 순위 2위 기록했고 월간 활성 사용자(MAU) 150만명, 누적 방문자 2000만명 이상을 확보했다.

젯XA-로보틱스는 젯XA 기반의 AGI 지능을 실제 로봇에 적용한 플랫폼으로 다중 자율 보행, 음성 대화형 기능을 탑재해 시각·체화 지능을 구현했다. 이 플랫폼은 AGI 기반 로봇 ODM 공급 모델을 통해 다양한 산업 현장(제조, 물류, 서비스 등)에 적용 가능하다.

이 외 비드래프트는 의료 특화 LLM(27B 파라미터)으로 세계 2위 성과 달성했고 허깅페이스(Hugging Face), 리플리케이트(Replicate), 모델스콥(Modelscope) 등 글로벌 플랫폼에 서비스를 확산중에 있다. 현재 비드래프트의 제품과 서비스는 금융, RPA, 엔터테인먼트, 로봇, 미디어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업명	비드래프트(VIDRAFT)
대표자명	김민식
설립연도	2024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젯XA(jetXA)·마우스(MOUSE)·젯XA 로보틱스(jetXA Robotics)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 AI+교육, AI+금융 · AI+리테일·커머스 · AI+미디어·콘텐츠 · AI+환경·에너지 · AI+보안 · AI+농업·푸드테크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대규모언어모델(LLM), 비전-언어 모델(V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AI API-SDK 개발, AI 경량화 최적화, 엣지 AI-온디바이스 AI, 자연어처리(NLP), 컴퓨터비전(CV), 음성인식·합성(STT/TTS), 추천 시스템, 예측·분석 모델링, 로보틱스·자율주행 AI · AI 인프라·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AI, AI 보안·위협탐지

### 기업 핵심 서비스 가치, 범용 AGI SaaS 솔루션으로 구축

비드래프트는 기존 AGI 기반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축적한 기술을 토대로 신제품 개발과 서비스 확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AGI 전용 파운데이션 LLM'을 개발해 트랜스포머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非)트랜스포머 및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적용해 무한 컨텍스트 처리·실시간 추론·효율적 메모리 구조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트루 AGI로 가는 핵심 기술적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AGI B2B 플랫폼/마켓플레이스'를 런칭해 콘텐츠(웹툰, 웹소설, 영화 시나리오), 업무용 문서(PPT, 특허, 보고서), 전문가 지식 서비스(의료·법률 등), 피지컬 로봇 지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2AP(구조적 정렬과 적응형 압력) 연구성과를 신제품과 서비스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 기술을 활용해 서로 다른 아키텍처의 모델들을 병합·진화시킬 수 있는 상용화 플랫폼을 개발, 기업 고객이 보유한 다



양한 AI 모델 자산을 최적화·재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미 네이버 웹소설과 아마존 KDP에서 AGI 생성 콘텐츠가 유료 작가로 등재·수익화를 달성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영상, 게임, 메타버스 창작)에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언론사를 무인화한 24시간 자동가동 플랫폼을 예시로 궁극적으로 모든 기업의 핵심 서비스 가치를 무인·자동화하는 범용 AGI SaaS 솔루션을 구축해 전 산업군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 쓰리알이노베이션, AI로 청소년 주의력·정신건강 돌본다

### 닥터 사이먼, 디지털 페노타이핑 기술 적용 다양한 성장 환경서 객관적 데이터 측정

쓰리알이노베이션의 기반 솔루션은 '닥터 사이먼(Dr.Simon)'으로 일반 스마트 기기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의력 및 정신건강 모니터링한다.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교육장면에서 쓰는 포커스팡(Focuspang), 가정에서 쓰는 모먼트(Moment) 및 의료 및 상담장면용 서비스를 만든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의 핵심 기술은 '디지털 피노타이핑(Digital-Phenotyping)'이다. AI 기반 디지털 감정-건강 표현 기술로 사용자가 스마트폰 등 일상 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동을 분석해 데이터화한다. 터치, 키보딩, 눈의 움직임 등으로 주의집중, ADHD, 우울, 중독 등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닥터 사이먼은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디지털 로그 데이터만으로 집중력, 학습습관,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케어 솔루션을 제시한다.

포커스팡은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강사를 위한 오프라인 수업 운영 서비스다. 선생님과 학생간 수업 화면을 공유해 학생 관리를 돕는다. 퀴즈 프로그램 등으로 학습 흥미도를 높인다.

특히 닥터 사이먼은 디지털 페노타이핑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기기의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일상에서 청소년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속 모니터링과 예측 및 예후 평가가

쓰리알이노베이션은 센서에 기반한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전문기업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켜내고자 한다.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포함될 수 있는 질문지에 비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 2024년 4월에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진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다.

### 가정용 닥터 사이먼 '모먼트'로 교육·헬스케어 융합 시장 개척

쓰리알이노베이션은 향후 가정용 닥터 사이먼 '모먼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은 아이의 소중한 순간을 발견해 주는 서비스 모먼트를 통해 "우리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모의 가장 큰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모먼트는 아이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과정을 자동으로 포착·분석해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 집중과 흔들림, 긍정과 부정의 순간까지 부모에게 알려준다.

또 보호자가 직접 지켜볼 수 없는 순간에도 모먼트는 아이의 하루를 화면캡처와 이해하기 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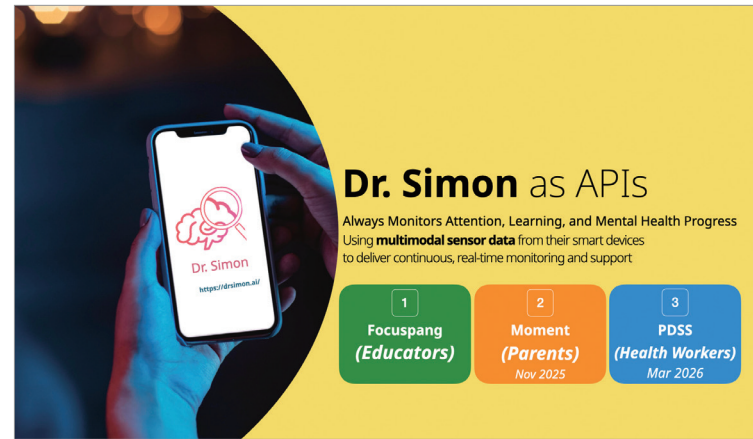
기업명	쓰리알이노베이션(3R Innovation)
대표자명	이창건·조광수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교육용 닥터 사이먼 '포커스팡'(Dr. Simon for Educators 'Focuspang')·가정용 닥터 사이먼 '모먼트'(Dr. Simon for Families 'Moment')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 AI+교육
기술분야	· AI 모델 아키텍처: 생성형 AI,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 엣지-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예측 분석 모델링

운 따뜻한 언어로 보여준다. 부모는 이를 통해 아이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다. 모먼트는 단순한 사용 모니터링을 넘어 아이의 관심사, 집중력 변화, 학습 습관, 정서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집중력 훈련, ADHD 조기징후 발견, 부모 교육 콘텐츠 등 맞춤형 지원기능을 통해 아이의 성장 여정을 함께한다.

이와 함께 쓰리알이노베이션은 서울에서 30만 학생으로 검증된 자사 서비스를 미국,

영국, 베트남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더불어 의료기기 제품에서 출발해 의료기기 인증을 확보하며 헬스케어 매출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며 어린이 및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핵심 기술 영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쓰리알이노베이션은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가며 글로벌 카테고리 리더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Dr. Simon as APIs**  
Always Monitors Attention, Learning, and Mental Health Progress Using **multimodal sensor data** from their smart devices to deliver continuous, real-time monitoring and support

- 1 Focuspang (Educators)**
- 2 Moment (Parents) Nov 2025**
- 3 PDSS (Health Workers) Mar 2026**

## 에이비스, AI 병리 진단 기술로 신약 개발 혁신

### 퀀티 IHC, AI 정량 분석으로 진단 정확도↑... HER2 저발현 정밀 측정 가능

에이비스는 AI를 통해 방대한 병리 빅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해 의료진의 진단을 돕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에이비스의 주력 제품인 AI 기반 바이오마커 정량 분석 솔루션 '퀀티 IHC(Qanti IHC)'는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 필수적인 4대 바이오마커(HER2, ER, PR, Ki-67)의 발현율을 AI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다.

에이비스는 AI 기술 기반으로 병리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해 암 진단과 치료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병리 솔루션 기업이다.

병리학자가 육안으로 판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이고 일관된 정량 분석값을 제공해 진단의 정확도를 높여준다. HER2 저발현·초저발현 수준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기회 제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이루는 핵심 기술이 '병리 이미지 특화 독자 AI 엔진'이다. 최신 AI 아키텍처를 병리 분석에 맞게 독자적으로 고도화해 이미지 내 200

만개 이상의 고밀도 세포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한다. 특히 자체 설계한 AI 모델을 통해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미세한 염색 강도의 차이까지 안정적으로 정량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측은 "독자 개발한 AI 엔진은 경쟁사 대비 뛰어난 미세 염색 강도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 ADC 신약의 등장으로 중요성이 급증한 HER2 저발현·초저발현 환자군을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AI 디지털 병리 시장 선도할 것"

에이비스는 최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초기 기업으로서 이례적으로 안정적 매출을 기록하며 자사의 기술력을 시장에 입증해 보이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속 연 7.5억~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는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 '글로벌 AI 디지털 병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인 필립스와 의 제품공급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확보한 글로벌 유통망을 핵심 발판으로 삼아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과 유럽(EU) 지역에 본격 진출할 예정이다. APAC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뒤 이를 교두보로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도 추진한다.

회사는 현재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도

기업명	에이비스(AIVIS)
대표자명	이대홍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퀀티 IHC(Qanti IHC)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를 활용해 현지 시장에서의 기술 신뢰도를 확보하며 북미 및 유럽 시장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국내 상급종합병원 시장 입지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 다중 암종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신약 개발 지원 플랫폼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약 개발 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고부가가치 동반진단(CDX)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 해당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

성해 나아가 신약 개발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대홍 에이비스 대표는 "AI 기술을 통해 제약사는 임상시험의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신약과 그에 맞는 진단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동반진단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병리 이미지와 유전체 데이터를 융합하는 '멀티오믹스(Multi-omics)' 분석 기술을 통해 차세대 정밀의료 시장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웨스트문, AI가 사람 이해하는 데 도움 되는 데이터 구축 ‘총력’

### 센스원, 합성 모션 데이터부터 파인튜닝된 모델까지 배포 가능 AI 제공

웨스트문은 합성 데이터를 통해 AI학습 환경을 혁신하고 있다. 인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AI와 개인정보 관련 우려가 없는 데이터가 장점이고 합성 데이터를 통한 AI학습 속도 향상과 AI모델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웨스트문은 산업 안전 AI 비전 솔루션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웨스트문은 움직임, 맥락, 의미를 담은 인체 합성 데이터를 통해 AI가 사람을 오해하지 않도록 돕고 제작된 데이터는 AI를 통해 사람에게 다가간다.

웨스트문의 비즈니스 중심엔 안전을 위한 합성 데이터 솔루션 ‘센스원(SenseOne)’이 있다. 센스원은 건설현장, 중장비, 화물트럭, 병원·요양원 등 위험 상황 시뮬레이션을 위한 합성 데이터를 제공하며 사람 인식, 사고 탐지, 안전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또 AI 도입·활용 원스톱 서비스로써 비즈니스 분석 및 맞춤형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 합성데이터 기반 맞춤형 AI 모델 및 고도화된 학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학습 혁신 기능으로 합성데이터를 통해 객체 인식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실제 촬영 없이 대규모 학습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해소해 주며 비용 및 시간 부담 없이 다양한 시나리오 데이터를 생성해 학습 속도를 향상시킨다.

특히 센스원은 블루메트릭 스튜디오 기반 다각도 영상 수집을 통해 실제 인체 동작을 3D 데이터로 정밀 재현, 물리 기반 렌더링과 강화학습·확산모델을 결합해 사실적인 합성 모션 생성, 딥러닝을 활용한 환경·객체 배치 최적화 및 가상 카메라 시뮬레이션 지원, 실제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간 도메인 갭을 줄여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는 파라미터 최적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센스원은 ISO/IEC 5259-2 기준으로 데이터 정확성·완전성·일관성이 입증된 합성데이터 생성 파이프라인으로 합성 데이터만으로도 기존 아키텍처 성능을 +3% 이상 향상시킨 검증 사례 확보했다. 또 특허 등록 1건, 출원 3건 보유로 경쟁사 대비 기술 방어력을 강화했으며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선정 및 공식 플랫폼 등재로 시장 신뢰성도 확보했다. 더불어 강원대학교 등과 산학협력 MOU 체결, 산림재난 대응 교육·연구 분야로 확장, 개인정보 비침해 합성데이터 제공 기능으로 규제 준수 및 활용 용이성 확보 등의 이력을 갖추고 있다.

기업명 웨스트문(Westmoon)  
대표자명 허명현  
설립연도 2020년  
주요제품 센스원(SenseOne)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 AI+모빌리티 · AI+미디어 콘텐츠 · AI+공공·스마트시티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모델 개발·배포·모니터링), 컴퓨터비전(CV)

### “다양한 산업군서 AI가 사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 만들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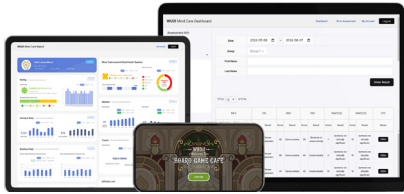
웨스트문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AI가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다중 모달리티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을 개발(이미지·3D→영상·시계열·센서 데이터 확장)하고 국방, 의료, 헬스케어, 스포츠 분석 등 신규 산업 진출을 꾀하고 있다. 또 AI 기반 시나리오 생성 엔진 및 데이터 품질 검증 솔루션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며

SaaS형 합성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이 직접 웹 기반 데이터 생성·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고객 대응 가능한 서비스 확장도 추진 중이다. 허명현 웨스트문 대표는 “웨스트문은 합성 데이터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기술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인절미, 일상서 게임처럼 건강요소 관리·예방 모바일 웰니스 서비스 제공



인절미는 시계열 건강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모든 사람이 개인화된 데이터 기반 케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종합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건강한 삶 제공

인절미는 AI 기술 기반 아동·청소년 특화 건강 관리 서비스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전문가 자문, 자체 빅데이터, AI 예측 기반의 초개인화 관리를 제공하며 초등학생부터 일상에서 게임처럼 건강 요소를 관리·예방하는 모바일 웰니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인절미는 비만·성장관리부터 정신, 눈, 피부 등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장해 궁극적으로 종합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인절미의 혁신은 시계열 개인 건강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을 포함한 AI 기반 기술을 통해 개

인이 자신의 건강을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 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절미는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B2B(G)2C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해외의 경우 우선적으로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8년까지 아시아 전역 및 미주 등 타 대륙 진출 시장을 타깃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를 통해 인절미는 비만 및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아시아 아동·청소년 디지털 헬스케어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얼굴 스캔을 통한 건강지표 수집 솔루션을 출시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 딥러닝 예측 기반 게임형 건강관리 솔루션 '우주두잇'으로 승부

인절미의 대표 솔루션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우주두잇'이다. 우주두잇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출시됐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데이터 맞춤형 건강 관리를 게임처럼 제공하고 맞춤형 콘텐츠와 리워드를 통한 지속적인 사용과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건강습관을 일상에서 키워준다. 또 학부모 및 커뮤니티를 연계해 온·오프라인의 예방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 솔루션을

기업명	인절미(Injewelme)
대표자명	문지명
설립연도	2020년
주요제품	우주두잇!(WUDI)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제공한다.

우주두잇은 아동·청소년 비만관리 및 정신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출시돼 있다. 현재 비만관리 서비스를 국내에서 운영 중이며 정신관리 서비스를 싱가포르에서 시범사업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우주두잇은 모바일 연동·API·IoT·비전 AI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건강기록 시계열 수집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우주두잇의 차별 포인트는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동기부여와 지속사용성이다. 전문 의와 심리학자의 자문을 받아 실제 치료기법을 게임화했다는 점과 AI 빅데이터에 기반한 예방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인절미는 현재 국내 서비스 중인 비만관리 서비스와 싱가포르 테스트 중인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해 적극적인 글로벌 진출 및 디지털 치료제/빅데이터 플랫폼으로의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얼굴 스캔을 통한 건강지표 수집 솔루션 및 시계열 개인건강기록 기반 AI 예측 모델 솔루션을 해외 시장에서 직접 출시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 시계열 건강기록데이터 플랫폼을 출시해 5년 내 아시아 최대의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향후 디지털 치료제 시장으로 진출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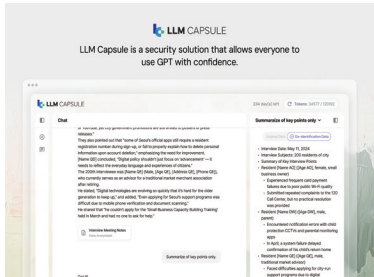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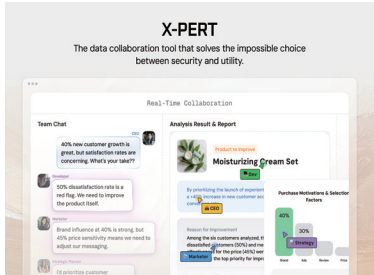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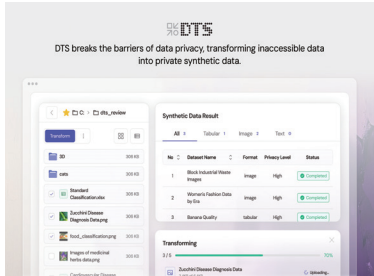






# 큐빅, 데이터 생성·변환·분석·통합 위한 AI 기반 솔루션 데이터 신 패러다임 정의

기업명	큐빅(CUBIG)
대표자명	배호·정민찬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DTS·엑스퍼트(X-PERT)·LLM 캡슐(Capsule)·아주(Azoo)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 AI+리테일·커머스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대규모언어모델(LLM), 비전-언어 모델(VLM) 등 · AI 개발·운영 기술: MLOps,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원본 데이터 접근 없이 데이터 문제 해결**  
2021년에 설립된 큐빅(CUBIG)은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없이도 고성능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는 차세대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특히 '원본 데이터 접근 없이 데이터 문제를 해결한다'는 접근으로 금융, 의료, 공공, 국방 등 고위험 산업군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AI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큐빅의 핵심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DTS(Data Transform System)'는 차등정보보호(DP) 기반 합성데이터 생성 솔루션으로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도 표·텍스트·이미지·시계열 등 멀티모달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차등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DP)를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 AI 학습 및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안전하게 공급한다.

금융, 의료, 공공, 국방 등 고위험 산업군에서 안전하게 활용 가능하며 생성부터 검증·분석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플랫폼이다.

또 엑스퍼트(X-PERT)는 합성데이터 기반 AI 에이전트 기반 데이터 협업 플랫폼으로 실데이터 없이도 기업내 민감정보, 기밀정보 데이터를 안전한 형태로 클리닝해 각 부서의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데이터 결합, 분석, 공유

기능 등을 지원하며 노코드 비개발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LM 캡슐(Capsule)은 퍼블릭 LLM 사용시 개인정보와 기밀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비식별화(캡슐화)하는 생성형 AI 보안 게이트웨이 솔루션이다. 로컬 환경에서 작동해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며 망분리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해 공공·금융·의료 분야에서 안전한 AI 활용을 지원한다.

**데이터 혁신 이끄는 핵심 솔루션 자리매김**  
큐빅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현재 국내 특허 8건(등록 1건) 및 해외 특허 2건 출원 완료했으며 다수의 국내외의 논문 발표와 AI 기술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또 SKT, 하나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클라우드, 국군, 대학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진행 중이며 그 중 일부는 실제 POC(기술검증)을 완료하고 계약 단계로 진입했다. 사업 모델 측면에서 큐빅은 SaaS(구독형)와 온프레미스(On-Premise: 구축형) 모델을 병행하고 있으며 AI 분석 솔루션 연계 및 합성 데이터 유통 플랫폼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수익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자사의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아주(Azoo)를 통해 누구나 합성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확장

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했다. 아주는 합성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위한 마켓플레이스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합성하거나 구매 및 판매를 지원해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큐빅의 최첨단 기술은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고도 99%의 성능 유사성을 보장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 큐빅은 유럽 및 북미 시장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구글 SEO를 활용한 해외 판매 활성화, 글로벌 데이터 바이어 확보, B2B 파트너 확대를 통해 세계 1위 민간 합성 데이터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AI가 데이터에 기반해 움직이는 시대, 큐빅은 '원본 데이터에 접근없는 고성능 AI 분석'을 실현하며 AI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큐빅의 합성 데이터 기술은 단순한 대체제를 넘어 데이터 혁신을 이끄는 핵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클레버러스, 비전 AI 기술로 모든 산업 혁신 선도

**재난 안전 솔루션 기반 성장 중인 AI 테크 기업**  
인류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가장 큰 관심과 주목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의료'다. 노년기로 사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초연결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요즘 의료 분야 또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융합을 이뤄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클레버러스는 AI 헬스케어에서 더욱 확장시킨 지능형 CCTV 비전 솔루션을 통해 사회 재난 안전에 관한 솔루션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AI 테크 기업이다.

클레버러스는 의료영상·디지털헬스·정밀진단 등 AI 기반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및 비전-언어 모델(VLM), 멀티모달 AI 등 AI 모델-아키텍처와 데이터 엔지니어링-데이터 파이프라인-엡지 AI 및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컴퓨터비전(CV) 등 AI 개발-운영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

### 비클레버, 낙상-침대 이탈-욕창 등 이상행동 0.2초 이내 탐지 알림

이러한 클레버러스가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 중 하나가 AI 낙상 예방 모니터링 솔루션 '비클레버(Be:Clever)'다. 이 솔루션은 어안렌즈 및 소형 AI PC(엡지 디바이스)를 편리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상행동 AI 분석을 더해 간호사 관제 모니터링까지 지원하

는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솔루션에 사용되는 어안렌즈는 화각이 180°를 넘는 초광각 렌즈다. 특히 비클레버는 엡지 디바이스를 활용함으로써 워크스테이션이나 서버보다는 비용적으로 최대 60~70% 절감되며 유지보수비로 초기 도입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 어안 카메라를 활용함으로써 화각 180도의 범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다.

클레버러스의 사명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강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비클레버는 현재 포항세명기독병원, S서울병원 최근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서울시 서울형 R&D 과제에 선정돼 정신병동(보호병동)에서 환자들의 이상행동 탐지 및 예방 알람 솔루션을 LLM과 접목시켜 제공할 계획이다. 배현재 클레버러스 대표는 "일반 카메라의 경우 화각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이 생기기 된다"며 "하지만 어안 렌즈 카메라를 천장에 달 경우 방 전체, 그리고 복도 전체를 모두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클레버러스는 이러한 어안렌즈를 통해 낙상의 탐지 만이 아니라 예방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업명	클레버러스(CLEVERUS)
대표자명	배현재
설립연도	2022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비클레버(Be:Clever)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비전-언어 모델(VLM),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

80만 장에 달하는 어안렌즈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이에 더해 AI 경량화 기술을 통해 고비용 서버가 없어도 바로 도입을 할 수가 있어 어안렌즈와 저비용의 소형 AI PC(엡지 디바이스)를 활용해 AI 모델 크기는 1/3, 전력 소모는 50% 줄여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클레버러스의 AI 낙상

예방 모니터링은 데이터셋과 AI 디바이스를 이용 상반기인 이탈, 몸 전체 이탈, 침대 가려짐 이탈 등 낙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자세를 파악해 낙상을 예방한다. 이 과정에서 상황 확인용 이미지가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제공되며 이 이미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제 상황 발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 펫페오텍, AI 기술로 반려동물 건강 책임진다

### AI 기반 '소리감지·행동인식' 기술로 반려동물 건강 케어

펫페오텍은 비디오 AI 기반의 반려동물 행동인식 및 분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짚음, 하울링, 끄끙거림 등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소리감지' 기술과 반려동물의 걷기, 굶기, 빙글빙글 도는 행위 등의 행동을 인식하는 '행동인식' 기술이 핵심이다. 이러한 기술을 솔루션화해 웹RTC 기반의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과 결합, 반려동물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해 운영중이다.

실시간으로 반려동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반려동물의 행동지표를 비교 분석해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건강을 케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행동 분석 기술을 활용해 슬개골 케어, 분리불안 케어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향후 다양한 질병 케어 솔루션으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펫페오텍의 대표 제품은 비디오 AI 기반의 반려동물 행동 분석 솔루션 '도기보기(Dogibogi)'다. 도기보기는 AI 기반 반려동물 감지 및 동작 인식(AI based Pet Detecting, Action Recognition)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반려동물의 행동을 감지해 녹화하고 그 분석 결과를 제공하거나 움직인 경로를 히트맵으로 요약 및 도식화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도기보기는 반려동물에 특화된 펫캠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공기계를 CCTV로 활용할 수 있고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감지했을 때만 녹화한다. 도기보기는 영상 분석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특히 보통의 홈캠 서비스들의 경우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과 모션 녹화 기능 정도에 국한돼 있는 것에 비해 도기보기는 AI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인식·분석하는 기술을 제공해 반려동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건강을 케어할 수 있다. 도기보기는 현재 누적 앱 다운로드가 약 15만건에 달한다.

### 수의사·동물병원과 연계 등 반려동물 헬스케어로 사업 확장

펫페오텍은 2025년 2월 펫 모니터링 AI 카메라 '도기캠'을 출시해 매출과 유료 구독자 모두 크게 성장 중이다. 2025년 상반기에만 2024년도 매출을 상회하는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전년도의 3배수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률훈 펫페오텍 대표는 "도기캠의 경우 현재 구매자의 약 35%가 '도기보기 Plus+'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회사는 전용 디바이스 판매와 함께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펫케어 기능 출시로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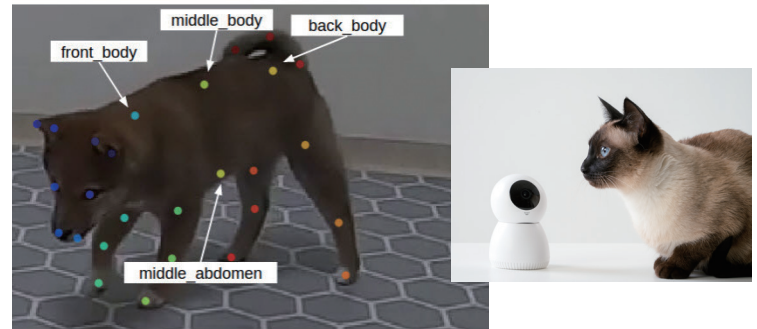
펫페오텍은 앞으로 AI 반려동물 행동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더욱 정밀한 분석과 알림 기능 제

기업명	펫페오텍(Petpeotalk)
대표자명	권률훈
설립연도	2019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도기보기(Dogibogi)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AI API·SDK 개발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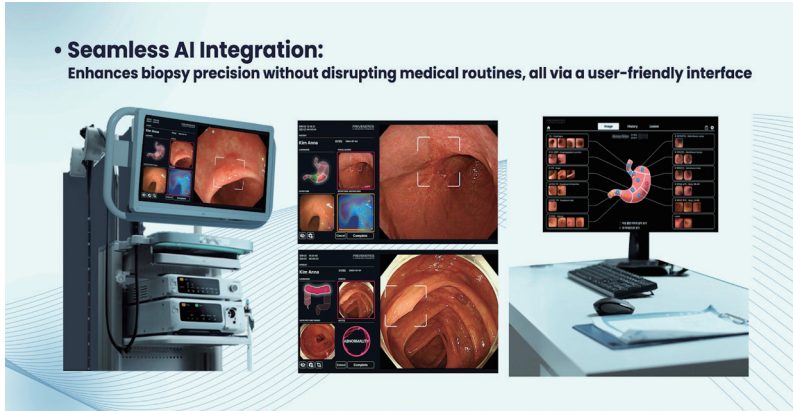
펫페오텍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공할 것이며 질병 조기 발견 솔루션으로 고도화, 수의사 및 동물병원과 연계한 펫 헬스케어 서비스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펫 보험 추천 등 개인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AIoT 기반의 스마트 장난감 및 급식기 등의 홈케어 디바이스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에서 나아가 말이나 소, 돼지 등의 가족의 건강 모니터링 B2B 솔루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률훈 대표는 "사람들은 보통 반려동물이 건강할 때부터 진단을 하지 않는다. 반려인들이 증상을 발견하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진단을 제대로 하려면 건강할 때부터 꾸준히 모니터링하듯이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펫페오텍 펫 CCTV 서비스는 이 부분에 특화돼 있다. 사용자들이 외출했을 때 반려동물이 보고 싶고 걱정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용하는데 동시에 질병 진단에도 도움이 되는 도구다. 이에 사업 성장을 위해 반려동물 헬스케어 분야로 확장하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고 강조했다.



## 프리베노틱스, AI 예방 진단 넘어 예방까지 강화



### 암 예방-진단-추적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 구현

프리베노틱스는 AI 기반 암 예방과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프리베노틱스는 실시간 진단을 통해 위암 예방 관리를 지원하는 AI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솔루션은 고위험 환자가 심각한 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생존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암 단계부터 암까지 포괄적인 AI 실시간 진단과 최적의 예방 관리를 위한 다중모달 AI 개인 맞춤형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프리베노틱스의 대표 솔루션으로는 '베노틱스(Venotics)'와 '프리베노(Preveno)'가 있다. 이

솔루션들은 실시간 인공지능 상부 내시경 및 고위험전암질환 진단보조, 소화기암 고위험군 환자 중심 AI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

프리베노틱스의 주요 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의료영상 분석 솔루션이다. 특히 소화기 내시경 영상이 특화돼 있으며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초기 단계의 전암단계 질환 미세 병변이나 비정형적인 암 조직을 실시간으로 검출해 내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이는 수십만건 이상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됐다.

핵심 차별점은 이러한 의료영상분석 기술이 '해부학적 랜드마크 인식 기술'과 결합해 환자 맞춤형 추적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AI가 단순히 의심 부위를 찾는 것을 넘어 위

기업명	프리베노틱스(Prevenotics)
대표자명	장수연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Pre-A
주요제품	베노틱스(Venotics)·프리베노(Preveno)
사업분야	· AI+헬스케어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 AI 개발-운영 기술: 오픈 AI-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프리베노틱스는 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암 전 단계 위험 식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예방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Stomach)나 대장의 주요 해부학적 위치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추적하며 이를 통해 과거 검사 이미지와 현재 이미지를 동일 부위별로 정밀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병변의 변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각화해 제공한다. 이 기술은 의료진의 진단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진료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 '병변 검출' 넘어 '정밀한 변화 추적' 가능 기술이 경쟁력

프리베노틱스의 경쟁력을 단순한 '병변 검출'을 넘어 '정밀한 변화 추적(Progression Analysis)'이 가능한 기술력에 있다.

대부분의 경쟁 솔루션이 단순히 의심 부위를 '점·동그라미표시'로 표시하는 수준에 머

무른다면 프리베노틱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부학적 랜드마크 인식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동일 부위 영상의 시계열 비교 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단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했다.

프리베노틱스의 특허받은 AI 알고리즘은 암의 전 단계 병변인 '장상피화생(Intestinal Metaplasia)'과 같은 고위험군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위험도를 계층화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최소 30% 이상 줄이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프리베노틱스는 '소화기암 진단 분야 글로벌 No.1 AI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국내 주요 대학병원 및 대형 검진센터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동시에 현재 위암, 대장암 및 전암단계 중심의 솔루션을 식도암을 포괄 소화기암 진단 영역으로 확장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 법인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에 진출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물론 미국 FDA 등 주요 의기기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 BRIDGE TO INNOVATION SEOUL AI STARTUP 100

서울 AI 허브 2025-26

## AI + 기타

디자인드에이아이(DesignedAI)  
에이아이링고(AiLingGo)  
온더플라이(OnTheFly Inc.)  
완드(WAND)  
콘티고(Contigo)





## 디자인드에이아이, AI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기술 혁신한다

디자인드에이아이는 AI 프레임워크 기업으로 AI SW 프레임워크를 통해 연산 성능 및 컴퓨팅 자원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한다.

### AI 프레임워크 '메텡AI'로 고성능·저비용 실행 지원

디자인드에이아이(DesignedAI)가 자체 개발한 AI 연산 최적화 프레임워크 '메텡(Metep)AI'를 앞세워 글로벌리더로 도약에 나섰다.

메텡 AI는 저비용·고성능 AI 소프트웨어(SW) 프레임워크다. 단일 C++ 기반 통합 아키텍처 설계돼 파이토치(PyTorch), 텐서플로우(TensorFlow) 등 기존 글로벌 프레임워크에서 가진 모듈 단편화 문제와 교차 스택 최적화 한계를 극복했다. AI 모델 실행 전 과정에서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고 컴퓨팅 자원 활용 효율을 높여준다.

또 템플릿 메타프로그래밍(Template Metaprogramming) 기반의 커널 최적화 기술을 적용해 CNN, 트랜스포머(Transformer), LLM 등 다양한 AI 모델에서 연산 효율성과 사용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

회사측은 "실제 옴니(YOLO) 기반 CNN 모델을 x86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 기존 글로벌 프레임워크 대비 적은 메모리와 전력으로 더 빠른

추론 성능을 구현하고 최대 27배의 AI 실행 비용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며 고성능 및 저비용 실행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단순 SW 패키지가 아닌 커널 최적화 엔진, 프레임워크, 솔루션을 통합 제공해 맞춤형 PoC와 상용화에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디자인드에이아이는 국내 유일 독자적 AI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AI 최적화 커널, 온디바이스 AI 관련 특허를 갖고 있으며 국제 학술지인 IEEE 엑세스(Access)에 논문을 게재해 보유 기술력을 공식 입증받기도 했다. 2025년에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그램에 선정돼 국내 AI 프레임워크 기업으로서 인정받기도 했다.

### 해외 시장 공략 '본격화'...글로벌 차세대 AI 프레임워크로 도약

디자인드에이아이는 기존 프레임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메텡AI를 성장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오픈·상용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로 글로벌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품 및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범용 최적화 커널과 분산 학습 엔진을 개발하고 비전·LLM·멀티모달 AI를 지원하는 범용 AI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심 특허 확보와 인재 영입으로 기술 IP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 국내의 시장은 체계적인 전략으로 공략해 나갈

기업명	디자인드에이아이(DesignedAI)
대표자명	성재모
설립연도	2019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메텡 AI(Metep AI)
기술분야	· AI 개발·운영 기술: AI API-SDK 개발, AI 경량화·최적화, 엣지 AI-온디바이스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컴퓨터비전(CV)

designedai.com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제조·온디바이스 분야에 집중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PoC와 상용화를 추진하고 해외에서는 퀄컴, 인텔 등과 협력하며 미국, 유럽, 아시아 시장으로 단계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퀄컴, 애플, 엔비디아 등 반도체·기기업과 협력하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R&D 및 테스트베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 시장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AI 반도체와 스마트 제조 시장을 공략한다.

현지 AI 연구 컨소시엄과 EU 호라이즌(Horizon) 프로그램 참여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는 온디바이스 AI와 로보틱스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대만과 싱가포르에서는 AI 반도체와 스마트시티 실증 파트너를 발굴할 예정이다.

성재모 디자인드에이아이 대표는 "향후 5년 내 매출 100억 원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한다"며 "전략적 투자 유치와 글로벌기업과의 M&A 또는 IPO를 통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 diagram features a central blue diamond with the 'Designed AI Metep' logo. It is surrounded by four white boxes with blue borders, each containing text and a small icon. The top-left box is titled '자동 최적화 및 자체 프로그래밍' and describes template metaprogramming. The top-right box is titled '뛰어난 호환성' and lists supported frameworks like ONNX and NNEF. The bottom-left box is titled '외부 모듈 의존 없이 자체적으로 수행 가능' and highlights the use of C++ templates. The bottom-right box is titled '쉽고 빠른 프로그램 개발' and mentions compatibility with Python and C++.

## AI 법률 번역 시장 강자 '에이아이링고', 각종 산업 최적화된 솔루션 지속 제공

Discover a New Era of Legal Translation. Move Forward with AILingo



에이아이링고는 시스트란 엔진을 주 기반으로 법률 용어에 특화된 AI 번역기 '오트란(OTRAN)'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 고정확성·속도·보안성 갖춘 AI 기반 법률 번역 서비스 제공

에이아이링고는 법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이 서비스는 대형 로펌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실제 법률 번역에 활용할 만큼 높은 정확도와 빠른 속도,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며 2020년 3월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에이아이링고는 20년 이상의 법률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AI 엔진을 통해 법률 문서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구급 번역 등 범용 AI와 달리 법률 분야 특화 번역에 최적화돼

있어 실무 활용도가 높은 솔루션을 제공한다. 에이아이링고는 인공지능명 기계 번역(NMT) 모델을 활용해 법률 번역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다수의 특허를 획득하는 등 법률 번역 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입증해 왔다.

이재욱 에이아이링고 대표이사는 “팁스 선정을 통해 AI 기반 법률 번역 기술의 우수성과 시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법률 번역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아이링고는 ‘AI를 통한 번역 자동화와 정확도 향상’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에이아이링고는 기존 법률 번역의 가장 큰 문제였던 문맥 불일치와 전문 용어 오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도 활용 가능하

기업명	에이아이링고(AILingGo)
대표자명	이재욱
설립연도	2020년
투자단계	Series A
주요제품	오트란(OTran)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대규모언어모델(LLM)



Generation) 구조를 최적화해 '오트란 2.0'으로 고도화했고 이를 통해 번역의 정확성과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현재 오트란 2.0은 챗GPT 등 상용 LLM 대비 2~3배 높은 법률 번역 품질을 보이며 특

히 전문적인 법률 문맥에서도 안정적이고 정밀한 결과를 제공한다. 또 자체적으로 구축한 다양한 언어 데이터와 방대한 법률 데이터셋을 활용해 학습시킨 결과물은 업계 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에이아이링고는 단순 기술 공급을 넘어 국내외 로펌 및 기업들과의 협업 경험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법률 시장에서도 적용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확장성에서도 높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에이아이링고는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성장 잠재력에 한계가 있고 규모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큰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 시장으로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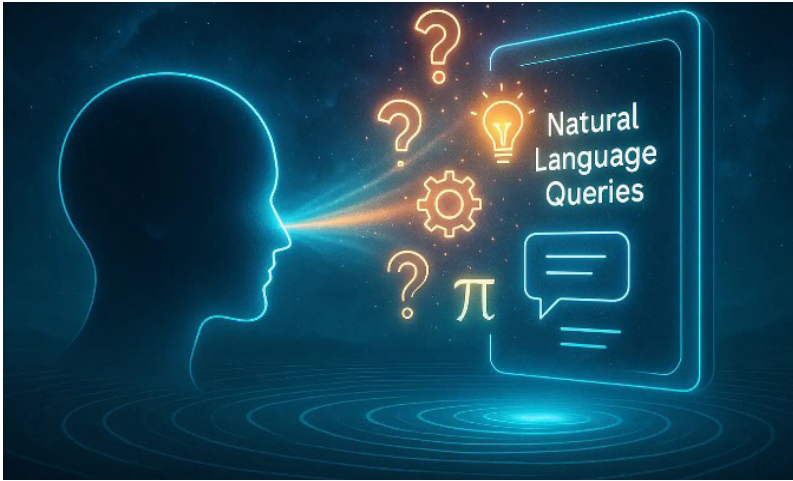
고품질 번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AI 기반 법률 번역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회사는 확신하고 있다. 에이아이링고는 법률 번역 외에도 다양한 AI 기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소상공인 대상 AI 전화 서비스 등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 오트란, 고객사에 가장 익숙한 용어 학습 통해 맞춤형 번역 모델 제공

에이아이링고의 핵심 기술은 법률 분야에 특화된 고품질 번역 솔루션에 있다. 초기에는 NMT(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을 기반으로 '오트란 1.0'을 출시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이후 최신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을 활용해 RAG(Retrieval-Augmented

## 온더플라이,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로 LLM 시장 선도



**LLM 에이전트 시장에서 선도적 기업으로 자리매김**  
온더플라이는 기업 맞춤형 AI 에이전트(Agent)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향후 5년간 LLM 에이전트 시장에서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직후 예비 창업패키지로 선정돼 6개월만에 연환산 매출 2억원을 달성했으며, 초기 고객사 2곳과 파트너십 계약 체결도 완료했다.  
김근우 온더플라이 대표는 “온더플라이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우선 시해 금융·헬스케어 같은 규제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해당 산업군으로

솔루션을 확장해 시장 저변을 넓혀갈 것”이라고 전했다.

### 글로벌 시장 진출 ‘박차’...“2026년 동아시아 LLM 에이전트 시장 매출 10억”

온더플라이는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지식 관리 시스템(Knowledge Base)을 구축하고 싶은 기업을 타깃으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PoC(Proof of Concept)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초기 고객사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업명 온더플라이(OnTheFly Inc.)  
대표자명 김근우  
설립연도 2024년  
주요제품 온더플라이 AI(OnTheFly AI)  
기술분야 AI 모델 아키텍처: 대규모언어모델(LLM),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온더플라이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검색과 AI 에이전트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보안(Security)과 규제 준수(Compliance)를 중요시하는 산업군인 금융, 헬스케어 등으로 솔루션을 확장하고, 나아가 미국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Accelerator Program)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기술 브랜드를 강화할 전략이다.  
현재 규제 산업을 위한 보안 강화 솔루션 확장과 학계 연구실들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술력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또한, 시장 공략을 위한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존 SaaS와 온프레미스 솔루션에 더해 특정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지속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여와 기능 고도화를 통해 기술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장 내 신뢰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온더플라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6년 까지 동아시아 LLM 에이전트 시장에서 매출 10억 원(ARR) 및 5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목표를 내세웠다.

### 온더플라이, AI 핵심 기술과 안정적 인프라로 PoC 검증 성과 입증

온더플라이는 LLM Agent 파이프라인과 검색(Retrieval) 모듈을 자체 설계하며 FAISS와 Milvus 기반의 벡터 인덱싱을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 검색과 온프레미스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오케스트레이션을 수행한다.

NeurIPS, ICML 등 최상위 AI 학회 논문 경향을 바탕으로 최신 연구 성과를 빠르게 제품화할 수 있으며 SLA 99.9%를 달성할 정도의 인프라 안정성과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대응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자사의 클라우드 SaaS를 활용하면 빠른 구축과 확장이 가능하고, 온프레미스 솔루션을 통해 내부망 보안도 강화할 수 있으며 슬랙(Slack)·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노션(Notion) 등 10종 이상의 업무툴과 연동해 기존 워크플로우 내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뿐 아니라 고객사 개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온더플라이는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QnA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적용하는 등 국내 주요 스타트업 및 기업과 함께 다양한 PoC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PoC 성과 검증을 통해 향후 레퍼런스 고객 확보와 추가 시장 확장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가겠다는 방침이다.

## 완드 “IP 실무자, 창의적·전략적 업무 집중하는 환경 조성할 것”



### IP 실무 파트너 ‘팻솔’, 핵심 업무 단일 플랫폼서 통합 제공

완드는 2025년 4월 AI 기반 특허 통합 플랫폼 ‘팻솔(PatSol)’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 플랫폼은 완드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로 특허 검색, 명세서 작성, 기술 분석 등 IP 실무의 핵심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팻솔은 반복적이고 복잡한 특허 실무에서 실질적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변리사 맞춤형 AI 솔루션이다.

완드에 따르면 베타 테스트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1시간 만에 가출원을 마쳤다”, “명세서 작업의 70%가 줄었다”는 등의 후기를 전하며 실질적인 업무 효율 향상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팻솔의 가장 큰 강점은 자연어 기반의 특허 검색 기능이다. 사용자는 복잡한 검색식을 입력하지 않아도 발명을 설명하는 문장만으로 관련 유사 특허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고 초보 사용자도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명세서 자동 작성 기능을 통해 발명 아이디어 입력만으로 핵심 항목이 자동 생성되며 간편한 편집도 가능해 실무자의 문서 작성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또 특허 분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특허 자산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향후 사업 방향까지 구체화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모든 기능은 월 구독제로 제공되며 검색·작성·분석의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더불어 팻솔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어까지 확장할 수 있는 다국어 처리 엔진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기업 고객의 보안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온프레미스(On-premise) 배포와 강화된 보안 옵션을 지원해 글로벌 B2B SaaS 솔루션으로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완드는 기업의 IP 전략 수립을 돕는 OS 매트릭스

기업명 완드(WAND)  
대표자명 한상호  
설립연도 2024년  
주요제품 팻솔(PatSol)  
기술분야 · AI 모델 아키텍처: 생성형 AI  
· AI 응용 분야 기술: 자연어처리(NLP)



기반 공백기술 분석 기능을 이미 탑재한 데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 팻솔을 단순한 검색 도구가 아닌 ‘IP 실무 파트너’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한상호 완드 대표는 “특허청에서의 실무경험과 검색엔진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팻솔을 개발했다”며 “IP 실무자들이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특허 생애주기 전반 아우르는 지식재산 관리 SaaS 플랫폼으로 확장”

완드는 팻솔을 변리사와 기업 IP팀의 핵심 업무 도구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거절이유통지서 대응을 지원하는 오피

스 행동 분석 및 대응 논리 생성 기능을 추가해 출원 이후 절차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일본, 미국 시장 진출을 대비해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자동화 기능을 개발해 방대한 관련 문헌 제출 과정을 효율화할 예정이다.

또한 팻솔은 OS 매트릭스 기능을 통해 포트폴리오와 경쟁특허를 목적·수단 관점에서 구조화하고, 매트릭스 상 공백영역을 시각화함으로써 공백 집중 구간을 드러내 기술 포지셔닝과 R&D·IP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한국어, 일본어, 영어에 이어 중국어까지 다국어 지원을 확대하고, 보안 규제가 엄격한 국가에서는 온프레미스 배포 옵션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 콘티고, AI로 인사·노무 업무 자동화 환경 구현

### 콘티고, 자문 기록부터 리포트 발송까지 자동화...노무 업무 효율↑

콘티고는 창업가, 대표, 소상공인을 위해 AI 기반의 인사관리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수립한 인사정책에 따라 고용계약, 근태, 휴가관리, 급여관리 등 필수 인사관리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 인사 업무의 부담을 줄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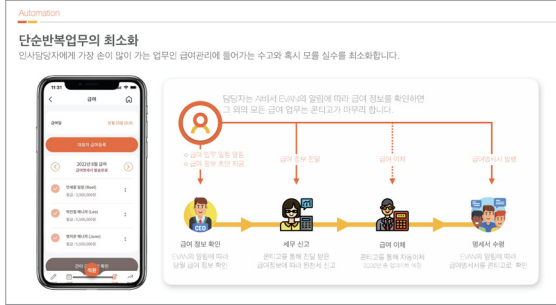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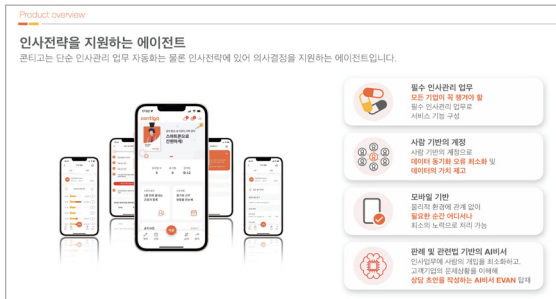
콘티고는 회사명과 같은 노무사 및 노무법인을 위한 인사·노무 지원 에이전트 솔루션 ‘콘티고 (Contigo)’를 내놴다. 콘티고는 한마디로 초기 창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인사 및 경영 업무를 돕는 모바일 서비스다.

가장 큰 장점은 고용, 급여, 근태, 코칭, 커뮤니케이션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필수 인사관

리 업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AI ‘파이(Pai)’가 바쁜 창업자가 놓칠 수 있는 인사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준다.

파이는 매번 앱에 접속해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맞는 업무를 적절한 시기에 맞춰 알려주는 인공지능 파트너다. 업무가 필요할 때만 접속하여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해 준다.

‘고용’은 계약서 작성 및 증명서 신청과 서류 보관함 제공과 퇴직시에도 서비스를 탈퇴하지 않고도 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근태’는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와 근무시간 기록 및



기업명	콘티고(Contigo)
대표자명	전석원
설립연도	2021년
투자단계	Seed
주요제품	콘티고(Contigo)
기술분야	· AI 모델-아키텍처: AI 에이전트-멀티에이전트 시스템 · AI 응용 분야 기술: 예측 분석 모델링

연차, 휴가 신청 관리가 가능하다. ‘급여’는 월별로 급여의 기초대상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담당하는 세무사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게 관리가 가능하며 급여 지급이 완료된 이후 급여명세서 자동 생성과 급여명세서 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티고는 사례 중심의 자문부터 근로계약서, 채팅까지 노무 업무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연결하는 실무 최적화 환경을 제공한다.

‘코칭’은 개인 또는 전체의 성과 등을 리뷰할 수 있는 코칭(평가)과 사내에서 필요에 따라 내부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2가지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가이드와 노무, 세무 지식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튜(STU)’와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클록(CLog)’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에반(EVAN)’에 주목할 만하다. 에반은 상담 내용을 분석해 관련 노동법 조항, 판례, 행정해석을 기반으로 자문 초안을 자동 생

성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기존 유사 자문 작성 대비 시간을 단축하고 초안 품질 일관성을 유지하며 노무사 간 결과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노무법인 시장 집중 공략...점유율 20% 목표

콘티고는 향후 5년간 노무법인 시장을 집중 공략해 입지 강화에 나선다. 노무법인 시장의 20%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공동영업을 위한 지역별 파트너 노무법인을 확대하고 대한노무사회 파트너십도 확보할 계획이다. 회사는 현재 2개의 법인과 공동 영업중이다.

또 중소기업 고객도 지속 확보할 방침이다. 1만개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 커머스 솔루션 마켓을 통해 대응력을 높이고 노무법인을 통해 콘티고를 사용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능을 업셀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회사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을 완료했다.

콘티고는 해당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및 근로자도 에반을 활용해 노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탠드얼론 서비스를 준비하는 중이다.



# SEOUL AI STARTUP 100

서울 인공지능 스타트업 백서

---

인쇄	2025년 12월 23일
발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 AI 허브
주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08
이메일	info@seoulaihub.kr
홈페이지	www.seoulaihub.kr

## 도서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기획	IT조선, 테크월드뉴스
원고 집필	이광재, 박규찬, 김혜진, 김승기
편집	이광재
디자인	박윤진(디자인어스)